

# 建築士



K.I.R.A

vol. 395

2002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3월호, 통권 395호

차례 2002 3 395호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 (이용흠 + 레오나르도피커 作)



칼럼	외부공간과 '역사'에 대한 배려	차미래	14
회원작품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	최삼영	1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희수	26
	고양 여자 중·종합고등학교	신영천	34
	코리아 디자인센터	이영희·정영균	42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이용흠	50
	부천시 국공장	김승희·강원필	60
작품노트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안길원·서학조	68
기고	건축가의 선비정신	서보광	76
	지구단위계획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건축과 도시의 간극	김상길	78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시행	이용락	81
기획연재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원)	한동수	84
건축만평		유원재	90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1
	현상설계경기		98
	해외잡지동향		110
	세무인내		116

발행인: 우남웅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현,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mailto: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98



104



106



## Column

Consideration of exterior and 'history'	Cha Mi-Rae	14
---	------------	----

## Works

Service Station of Meeting Plaza, Seoul	Choi Sam-Young	18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Kim Hee-Soo	26
Koyang Girls' Comprehensive High School	Shin Young Cheon	34
Korea Design Center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42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Lee Yong-Heum	50
Bucheon Korean Archery Range	Kim Seung-Hoy & Kang Won-Phil	60

## Design Note

The Social Role of the Architect	Ahn Gil-Won & Suh Hak-Jo	68
----------------------------------	--------------------------	----

## Feature

Noblesse Oblige of Architect	Suh Bo-Kwang	76
Rift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Revealed in Discussions on Urban Planning	Kim Sang-Gil	78
The Implementation of Green Building Validation Program	Lee Yong-Rak	81

## Serial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Han Dong-Soo	84
--	--------------	----

Cartoon	Yoo Won-Jai	90
---------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91
Competition	98
Overseas Journal	110
Taxation Business	116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 외부공간과 '역사'에 대한 배려

### Consideration of exterior and 'history'

차미레 / 세계일보 논설위원  
by Cha Mi-Rae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모든 권력형 밀집도시가 그렇듯 거대한 자본력과 이를 부추기는 도시행정이 말 그대로 '하늘을 할퀴는' 초고층 스카이스크레이퍼(skyscraper)들을 속속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한 도심지나 강남의 기존 아파트단지주변은 '옆으로 더 넓힐 데가 없으니 위로 솟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듯 불과 몇해 사이에 수십층의 주상복합건물과 초고층 오피스텔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봉건시대 군주들의 궁전과 수성(守城)을 위해 세워졌던 감시탑에서 유래한 '타워'와 '캐슬'의 이름을 달고 민주국가의 수도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기묘한 초고층 첨단 아파트들도 있다.

쉽게 허물고 빨리 짓고 대충대충 마무리 하는 속도전의 전통(?)에다가 갖가지 첨단 공법과 전에 없던 초현대식 중장비기계의 도입으로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공기단축이 최대의 미덕인양 예정보다 빨리 번개처럼 지형과 스카이라인을 바꿔놓는 공공건축들도 많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산도 깎고 샘터도 메우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옛 한옥들도 순식간에 헐어버린다. 조용한 뒷골목도 사라져간다. 주차장설치 의무화가 실시되기 전에 주차장건축비를 안들이고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웬만한 주택가 뒷골목은 파헤쳐진채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이 완공된후 좁은 골목에 수십대씩 차가 몰릴 결과는 뒷전이다. 건축주의 눈앞의 이익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 '타워'와 '캐슬'에 멧드는 서울

80년대 중반에 필자는 건축과 관계된 기획시리즈기사를 전담한 적 있다. 문화부 미술담당기자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던 당시엔 한 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의 건축비 1%를 들여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발표됐던 것이다. 대형건물마다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거리의 인상은 그만큼 달라질 것이라는 발상이었겠지만, 미술기자를 오래 한 필자로서는 갑자기 '순넛맞이행사'로 도시경관에 법이 개입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상상이 되었기에 (도시환경과 공공미술)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매주 연재하기로 하고 건축계의 도움을 청했다. 건물 내부의 타블로(tableau) \_ 액자그림이나 입구, 로비의 소형 조각작품에만 익숙해있는 건축주나 일반시민(관람객)의 인식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신속될 수많은 현대식 초대형 건물자체가 시공단계에서부터 예술적 배려를 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건축미술에 관해서 자료와 의견 등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건축가 김수근선생과의 대화이다.

\_ 차기자, 미술전람회 얘기나 써요. 건축 얘기는 써도 소용없어요.

\_ 아뇨.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막상 이 '1% 법'이 실시되면 시내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미술작품들이 설치될텐데 잘못되면 돈만 버리고 시각공해가 양산될 수도 있잖아요. 서울의 이미지도 더 망쳐질 수 있구요.

\_\_\_ 어차피 서울이라는 도시전체가 쓰레기통 같은데, 거기에 장미꽃을 꽂든 색칠을 하든 마친가지 아니요?

\_\_\_ 그렇게 쓰레기통처럼 된 데는 건축가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물들을 설계한 선생님 같은 분들의 책임도 크게 아닌가요? 이 (공간사)건물도 대학로의 미술회관도 선생님은 만족스러워 하시지만, 저는 여기 들어서면 헛갈리고 답답해요. 미술회관도 천정의 파대한 철골구조물 때문에 웬만한 대작이 아니면 전시작품이 죽어보여요. 아꼈든 선생님 책임도 있으니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마음 먹고 생떼를 쓰는 기자에게 그는 많은 외국 서적들과 자료를 빌려주었고 자신의 경험과 건축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 늘 솔직히 이야기 해 주었다. 그 밖에도 여러 훌륭한 건축가들의 열띤 성원과 도움으로 필자는 천호동의 한 대형 신축백화점앞에 세워진 FRP재료의 대형 코끼리상, 예술의 전당 건물이 공모당선작인 김석철씨의 원작에서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갓과 부채 모양'으로 변질된 이유, 대형공연장이 파르테논신전처럼 위압적이고 불편하게 지어지는 원인, 시민의 접근성이 배제된 모든 공공건물과 공용공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설치가 원천적으로 잘 결합된 파리 교외의 신도시 라데팡스 답사기를 비롯해 1년가까이 매주 기사를 연재했다. 시작은 공공미술이었지만, 내용은 도시환경과 건축문제 쪽으로 흘러갔고 수십명의 대학원생(건축과, 환경대학원)들이 논문 자료로 쓰다며 신문기사철을 복사해갔다. 건축이나 도시환경에 관한 신문기사는 물론, 관련서적조차 워낙 희귀했던 터라 이론과 현장을 접속시킨 신문기사는 참고문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 건축의 외부공간과 도시공동체의 융합

그 당시 국내 번역서도 나와있던 일본의 건축가 요시노부 아시하라(芦原義信)의 [외부공간의 미학] [건축의 외부공간] 같은 저서들은 건축을 화가의 그것처럼 건축가의 개별적인 작품정도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일단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었지만 새롭고 이상적인 도시공동체를 위한 urban design이나 미학적인 계획도시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게 이상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의 다른 국가 도시들에 비해 우리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리멸렬하게 '집장사 집'들이 들어서고 종합적인 도시계획보다는 부분부분 철거와 재개발의 땀길에 의해 엄청난데 혼란스럽고 복잡한 밀집도시가 돼버린 것이다.

결국 끊임없는 건설과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택지와 건물 용적의 극대화, 건축주의 이익과 탐욕에 봉사하는 건축물의 양산으로 건물의 외부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 나아가 주거용 대단지와 도시전체의 외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배려는 시도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50~60년대의 이른바 '미움(口)' 지 한옥들과 목욕탕용 흰 타일을 건물 외벽에 붙인 '양옥집'의 흔재, 70년대의 화강석마감재를 장식한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들, 80년대의 붉은 기와지붕과 전들의 연립주택과 '빌라' 들, 90년대 이후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풍의 다가구주택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류처럼 주택문화 역시 그 시대의

패션을 쫓아가기에 급급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물들이다.

#### 역사적 컨텍스트의 실종은 건축가 책임

답답한 것은 종전에 비해 건축물의 용적이나 건축비의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국내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무수한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70년대 강남의 대 개발은 특성과 영동의 아름다운 산과 숲을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 없애놓고 시작했다. 그런 광경을 늘 보던 필자는 도시환경에 관한 취재를 하는 동안 서울시 주택연구소를 드나들면서 상계지구의 종합디자인이 종래 있던 아산과 하천지류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도 많이 나아지는구나)하고 크게 감명을 받은 적 있었다. 미셸 라공의 (현대의 페허 \_ 도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원도시를 선전하며 도시개발에 앞장 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시멘트포장을 한 다음 화단에 인조잔디나 심는 게 우리 건설회사와 부동산업자들의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녹지는 돈이 되지 않으므로 밀어서 상가를 만드는 편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일정량의 녹지를 보존한다면 전원도시라는 애초의 꿈과 명분을 살릴 수도,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신도시들은 이 점을 어느 정도 배려하게 되었다.

문제는 개별건축물의 클라이언트들과 건축설계자의 인식 수준이다. 옛날 화신백화점 자리에 우뚝 솟은 종로타워는 대표적인 경우다. 아직은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알묘막한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종로거리, 그것도 인사동과 조계사와 종각을 연결하는 포인트에 노출철골과 유리외 상층부의 거대한 빈 공간이 거의 충격적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33층짜리가 우뚝 솟아나 주변과의 조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건물을 설계한 라파엘 비놀리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화신백화점의 의미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이 외국인이 종로의 종(鍾)의 의미, 전통적인 육의전거리, 종로를 따라 뒷골목으로 이어진 피맛골과 인사동의 체취를 어찌 이해할 것인가.

종로타워의 경우는 '개성적인 디자인'이 역사를 무시하고 주변과의 컨텍스트를 포기함으로써 '나홀로' 타워가 된 최악의 사례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주들과 건축인들은 파리나 로마, 밀라노같은 도시들이 외관상으로는 오래되고 우중충한 회색도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유행과 디자인의 최첨단도시, 전통과 현대미가 공존하는 도시가 돼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한다. 밀라노 토박이로 건축디자인의 선구자인 지오 폰티의 구호처럼 전후 부흥기에 '숲가락에서 도시까지' 탁월한 디자인을 도입했던 사람들이 초고층의 번쩍이는 마천루들을 세우지 않은건 그런 건물을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좁은 땅에 내 건물만 하늘 높이 올리고 싶어하는, 역사고 이웃이고 아랑곳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은 역시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먼저하면 다 '운동'이 되는게 우리나라지만, 건축인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운동가가 되어도 좋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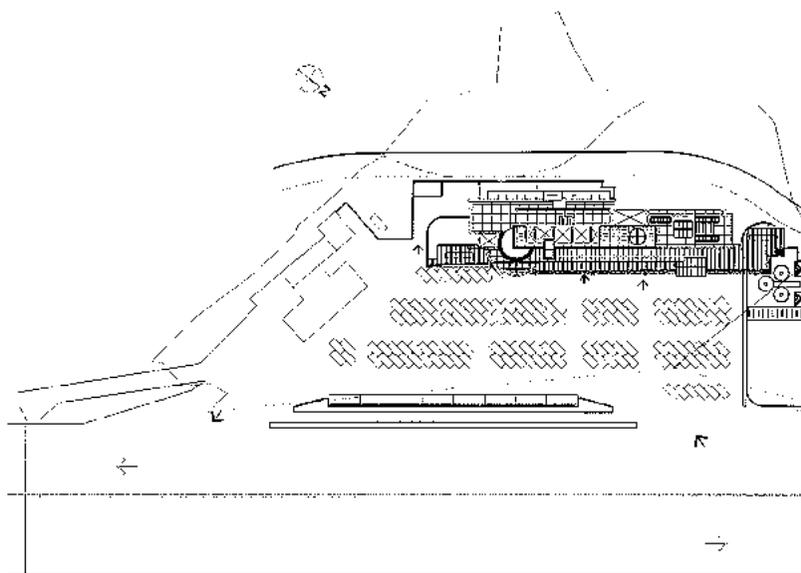
#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

## Service Station of Meeting Plaza, Seoul

최삼영 / (주)가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m-Young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10-16, 10-7일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12,640㎡
건축면적	1,765.92㎡
연면적	2,182.36㎡
건폐율	13.97%
용적률	14.25%
구조	철근콘크리트멘조
용도	관광휴게시설 주용도-휴게소 부속용도-주유소
조경면적	3,819.90M 법정(대지면적의 30% : 3,792M)
정화조	콘크리트 부패정화조(3,200인조)
시공	중일건설(주) (현장소장 : 정연수)
건축주	한국도로공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2001년 2월 건축사지에 조감도 사진현장과 공사진행중이라는 알림이 있었다.

휴게소가 OPEN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개보수한 건축물인줄 알고 있었다. 구 건축물뒤에서 조용히 공사를 마친 후 구 건축물을 철거해내지마자 사용에 들어갔으니 마치 요즘 한참 인기 TV 프로인 러브하우스를 연상했던 모양이다.

러브하우스는 어느덧 이 땅의 건축가들을 대단한 요술쟁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지고한 휴머니스트로 만들어 놓았다. 뒷감당은 나중에 하더라도 고미운 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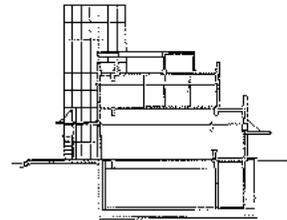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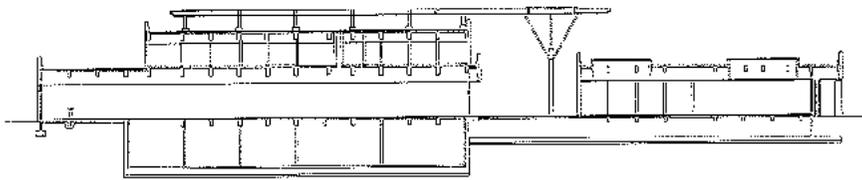
현상공모로 당선된 휴게소 건물은 화장실 크기와 외장디테일의 변화만 조금있었을 뿐 공모안이 거의 원형대로 지어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황급히 해결해야 할 화장실 문제 그리고 우동 한 그릇이다. 해마다 명절 때면 전쟁 치르듯 고속도로와 휴게소에서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어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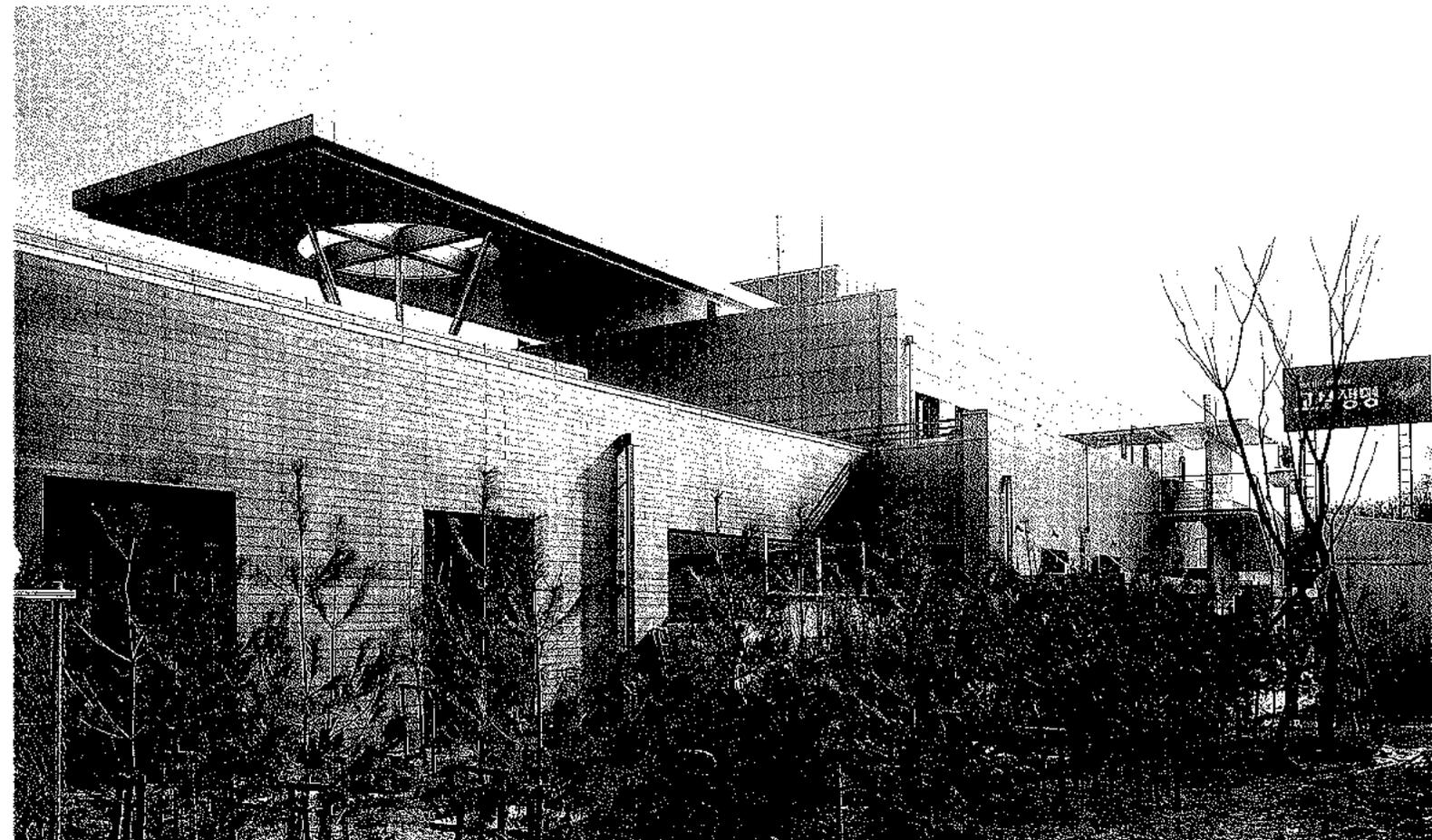
에게는 이런 날이 힘든 날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고향집 할머니 그리고 사촌들과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휴게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추억만들기이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과 나를 위해서 휴게소는 편하고 즐거운 공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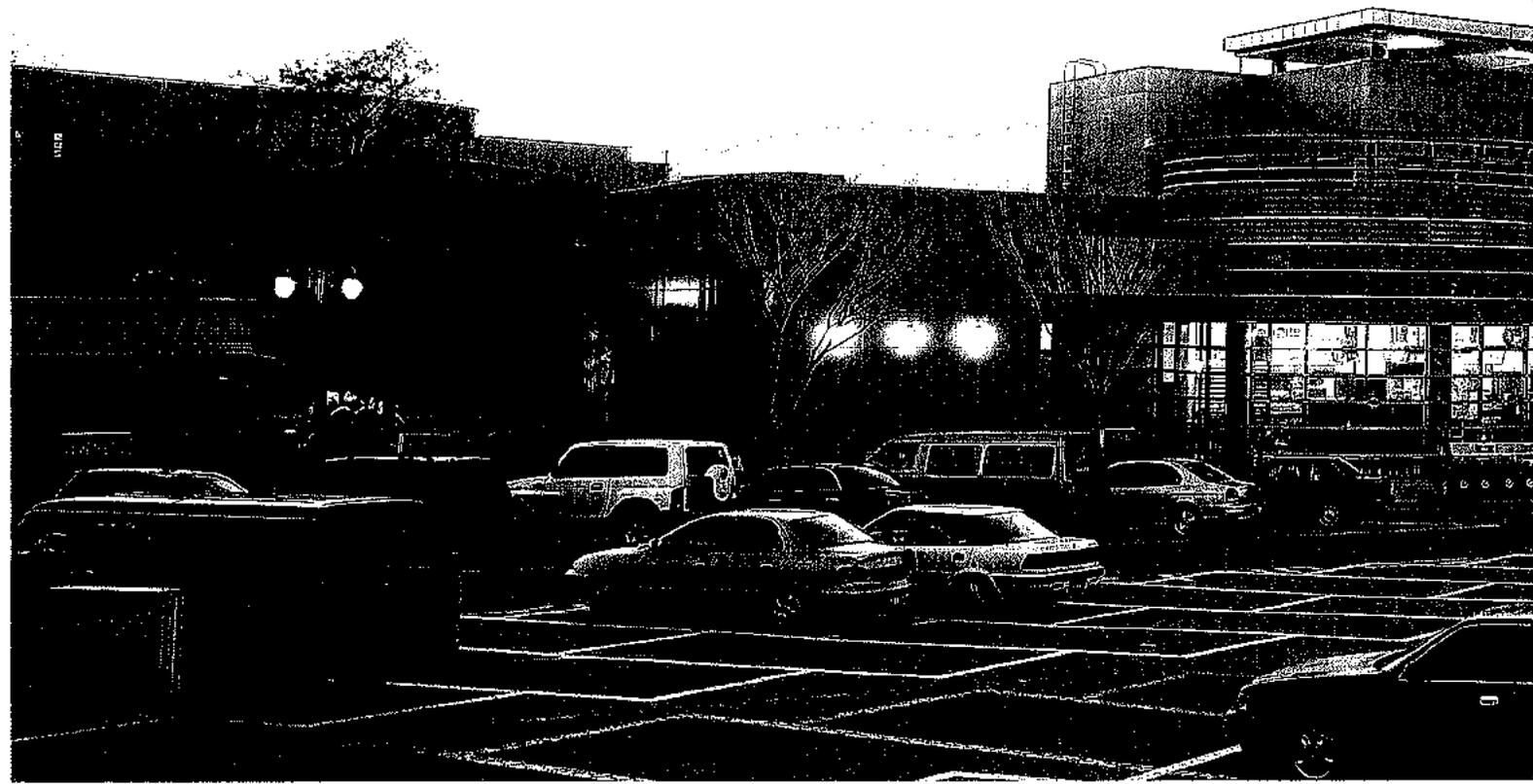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의 첫 출발지여서 많은 사람이 먼 길 떠날 채비로 분주한 곳이다. 기존 시설로는 주차공간도 협소할 뿐 아니라 낙후된 휴게실 공간과 화장실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신축되는 새 휴게소는 지금의 대지보다 약간 깊고 크게 계획된다.

두 개의 매스로 나누어진 본동과 화장실동 사이로 낮은 산이 배경으로 들어와 좁은 대지를 시각적으로 확장시켜주며 쾌적한 접근을 유도한다. 주차공간과 휴게소 사이에 만들어진 기벽은 캐노피의 구조체 역할을 하면서 커(layer)를 형성하여 접근의 깊이를 더해주고 휴게공간을 확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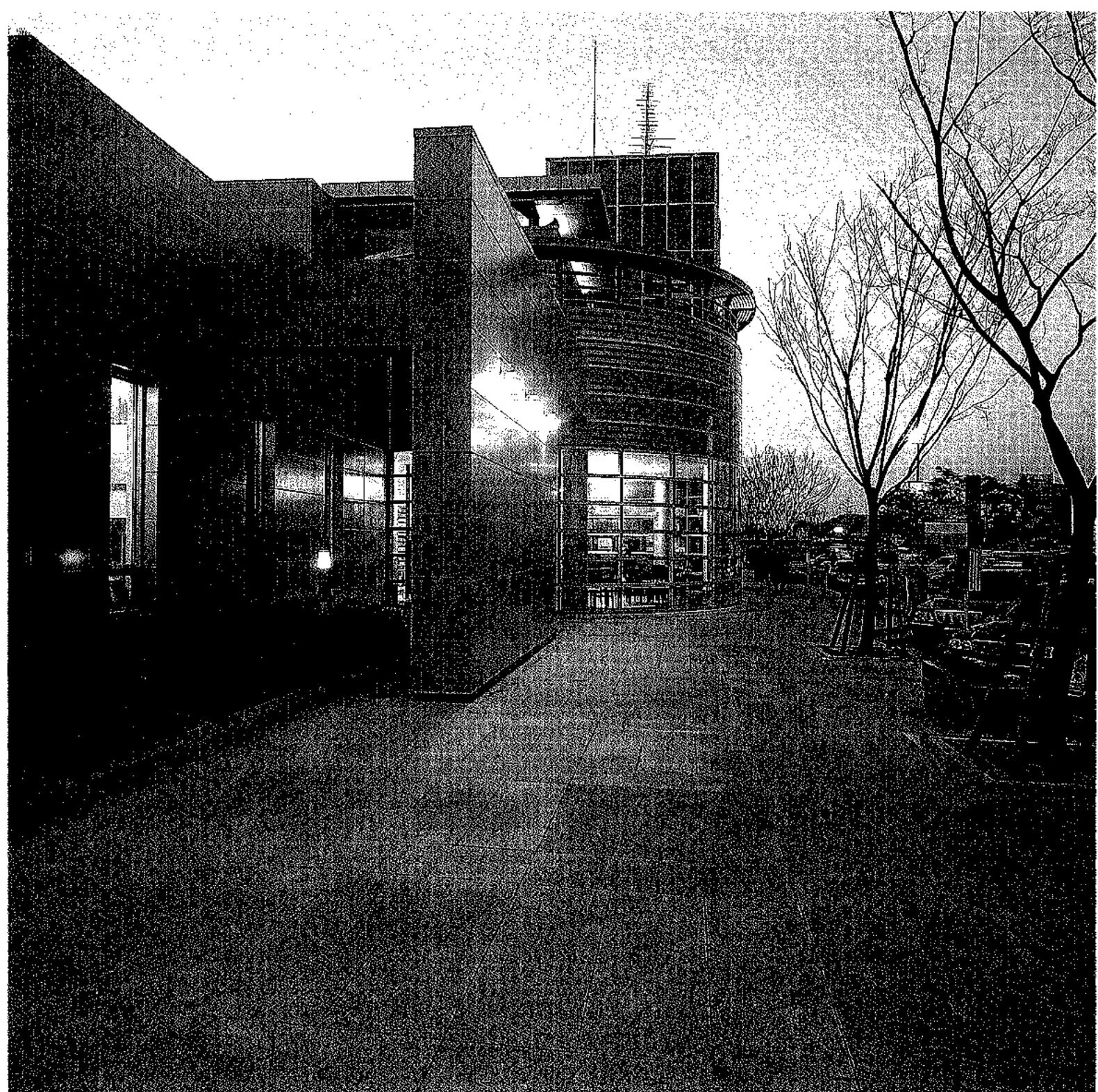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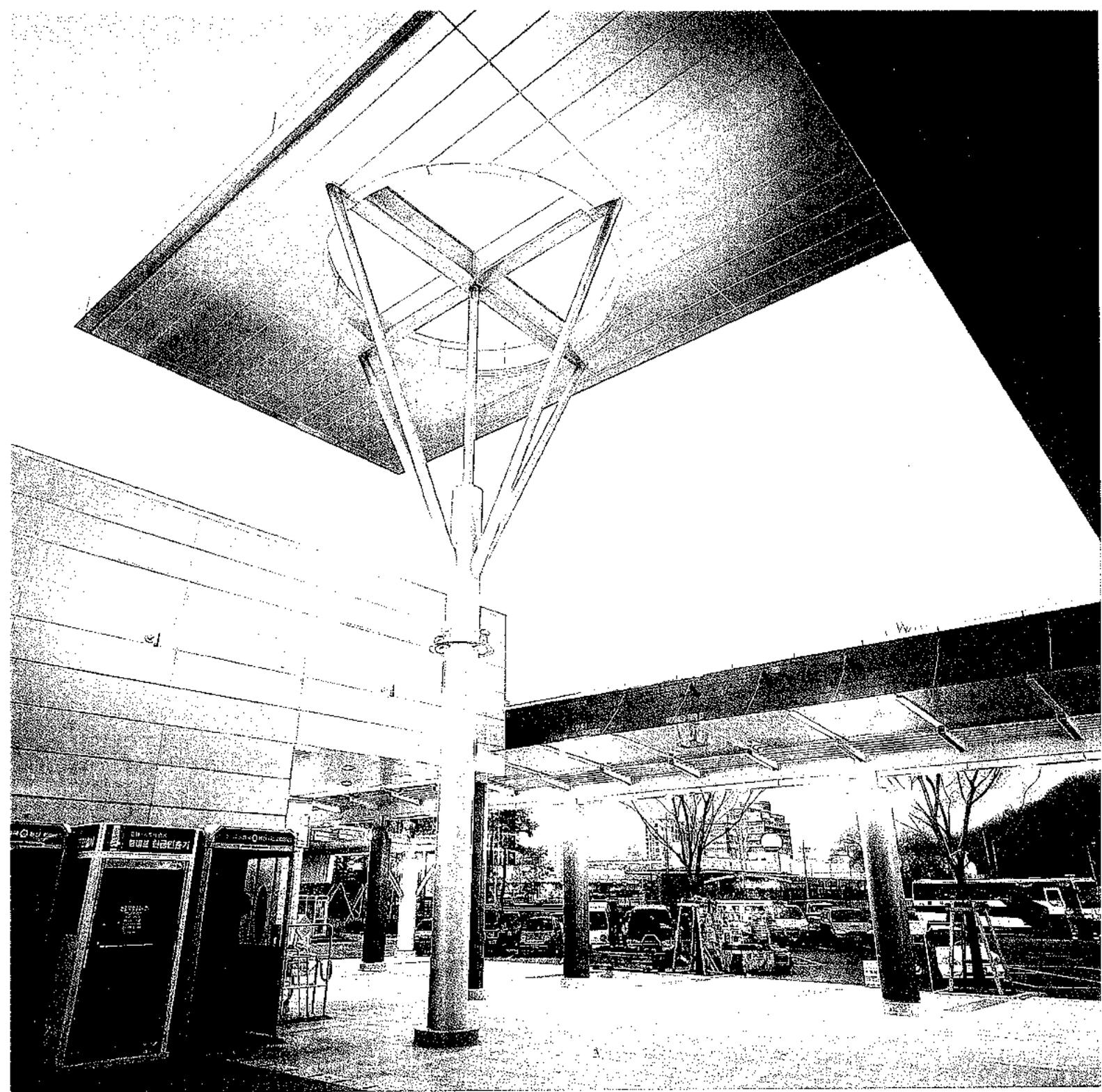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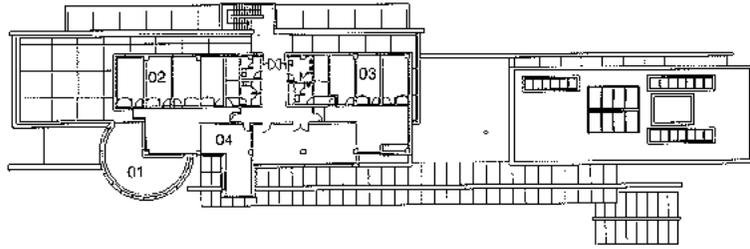
속도와 안전이라는 도로 이미지를 입면의 수평성으로 주장하며 뜬 지붕은 경쾌한 날개가 되어 두 매스를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휴식공간의 지붕역할도 더한다. 아간에는 뜬 지붕과 기둥에 조명을 비추어 원거리 인지도를 향상시켜 접근을 유도하고 뜬 지붕의 유영(流泳)성이 한층 돋보여 신비스러운 야간 조형을 연출하길 기대한다.

휴게소 건물의 화장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며,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공간연출을 위해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큰 창을 통해 화장실만의 회담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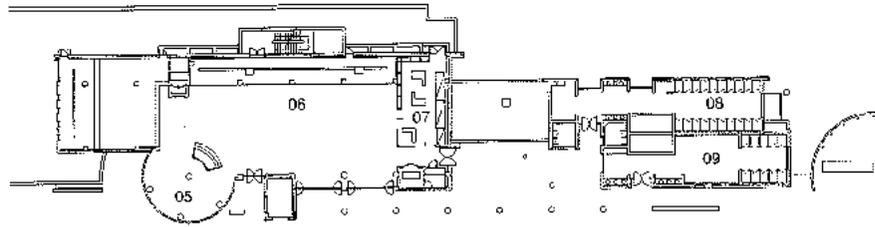
다 지어진 건물에 자책과 아쉬움이야 많지만, 특히 설계자와 아무 상의 없이 붙여진 커다란 간판은 마치 정성껏 그린 그림 위에 잉크를 쏟은 듯한 아픔이 남는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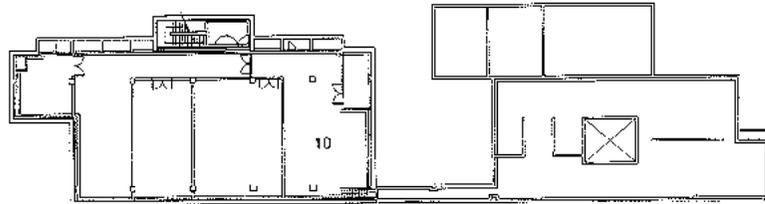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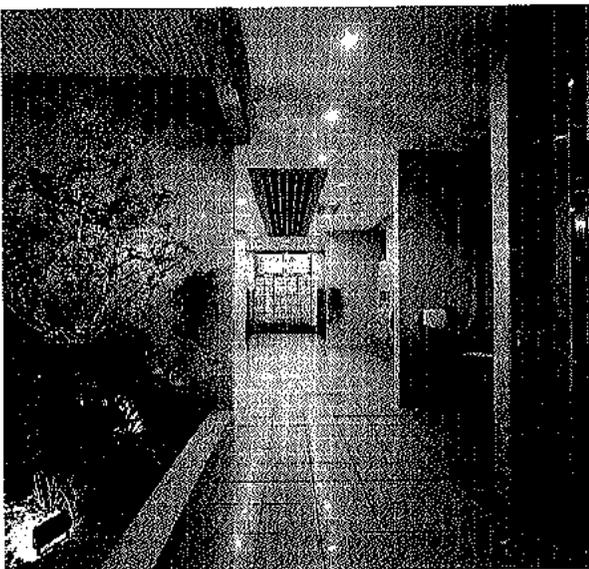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옥외휴게공간
- 02 비상대기실(여)
- 03 비상대기실(남)
- 04 직원식당
- 05 커피숍
- 06 매장
- 07 편의점
- 08 화장실(여)
- 09 화장실(남)
- 10 기계실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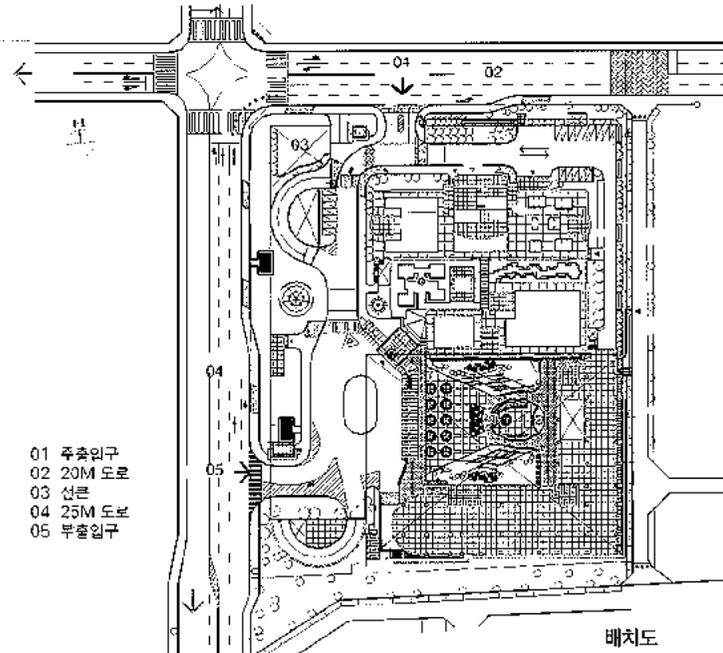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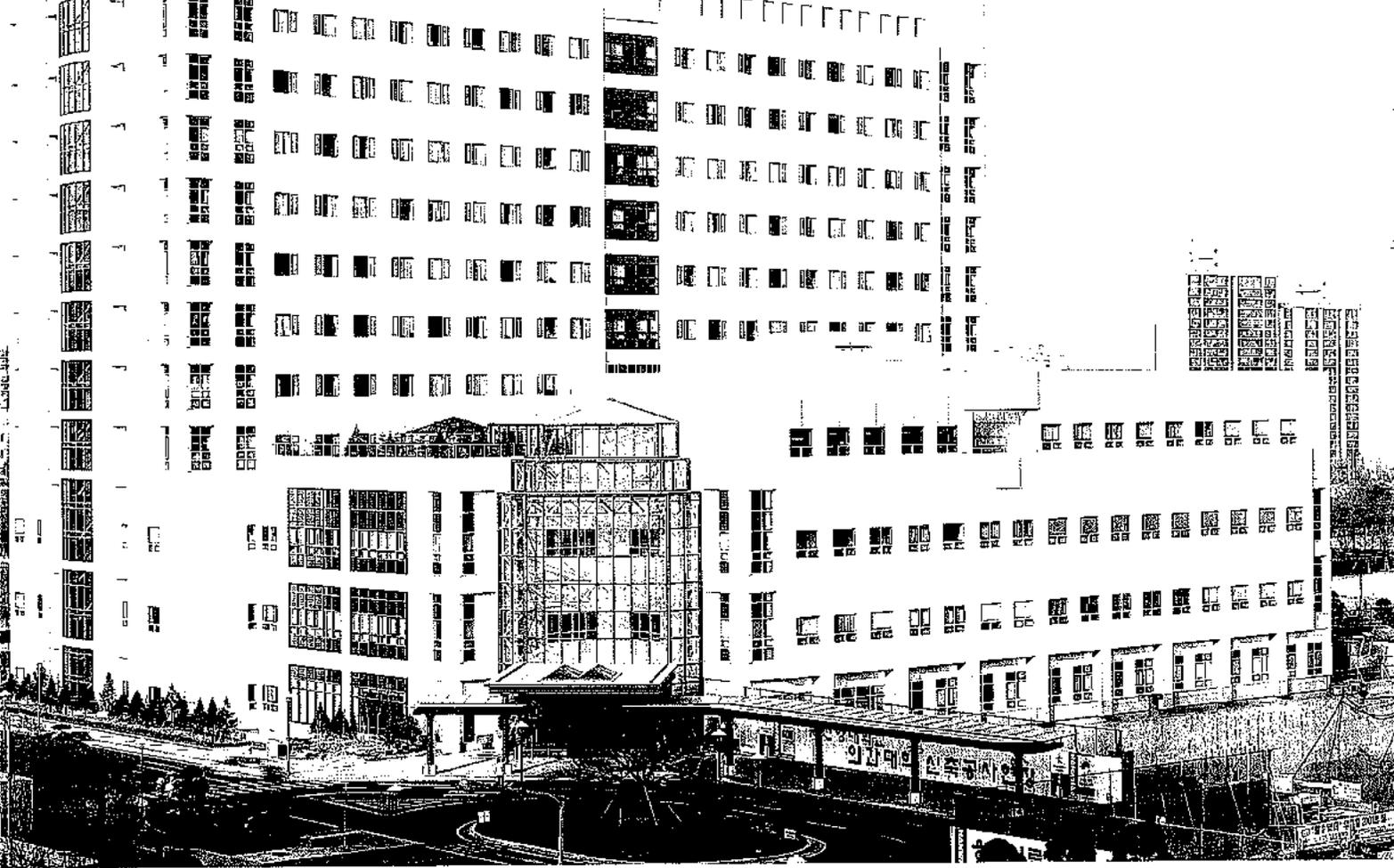
김희수 / (주)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Soo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20,859.40㎡
건축면적	4,331.50㎡
연면적	52,117.30㎡
규모	병원-지하2층, 지상11층 주차장-지하3층
외장마감	알루미늄 세라믹 패널 / 18mm컬러 복층유리
건폐율	20.70%
용적률	129.10%
병상수	547 병상
주차대수	523 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 SCJ 순천향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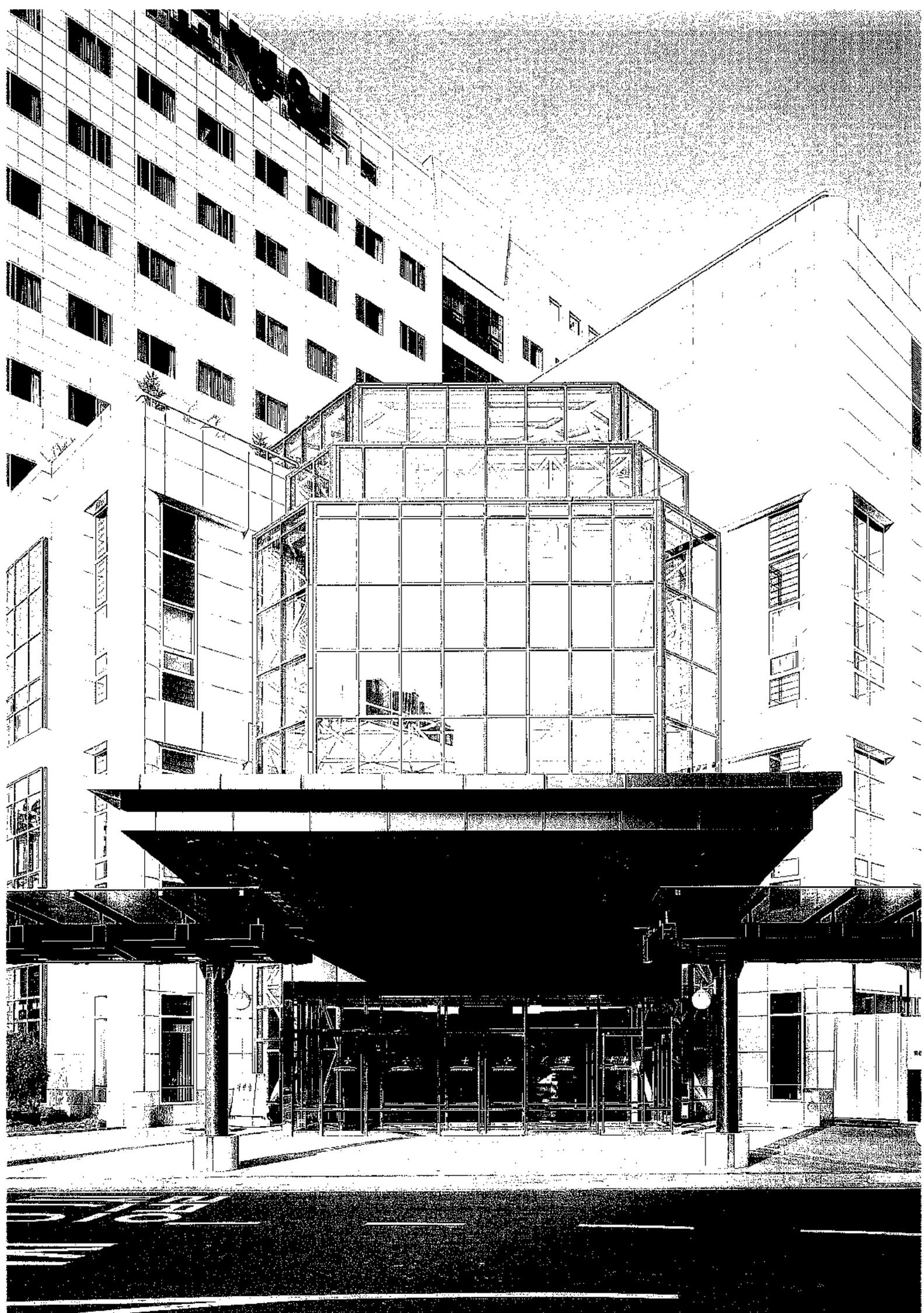
이 병원은 부천 중동지구 도시설계에 의해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된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병원주변은 중동신도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지 남쪽으로는 부천의 구시가지와 인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중앙공원이 부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종합병원의 부지로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 조성된 중앙공원의 입지적 조건을 본 병원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으며, 환자를 위한 병원, 동선이 명확한 병원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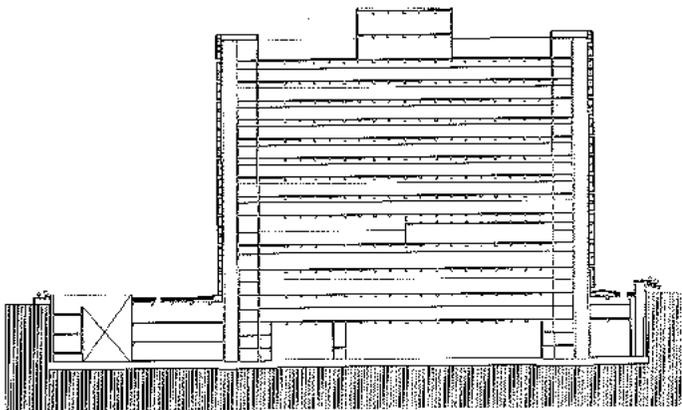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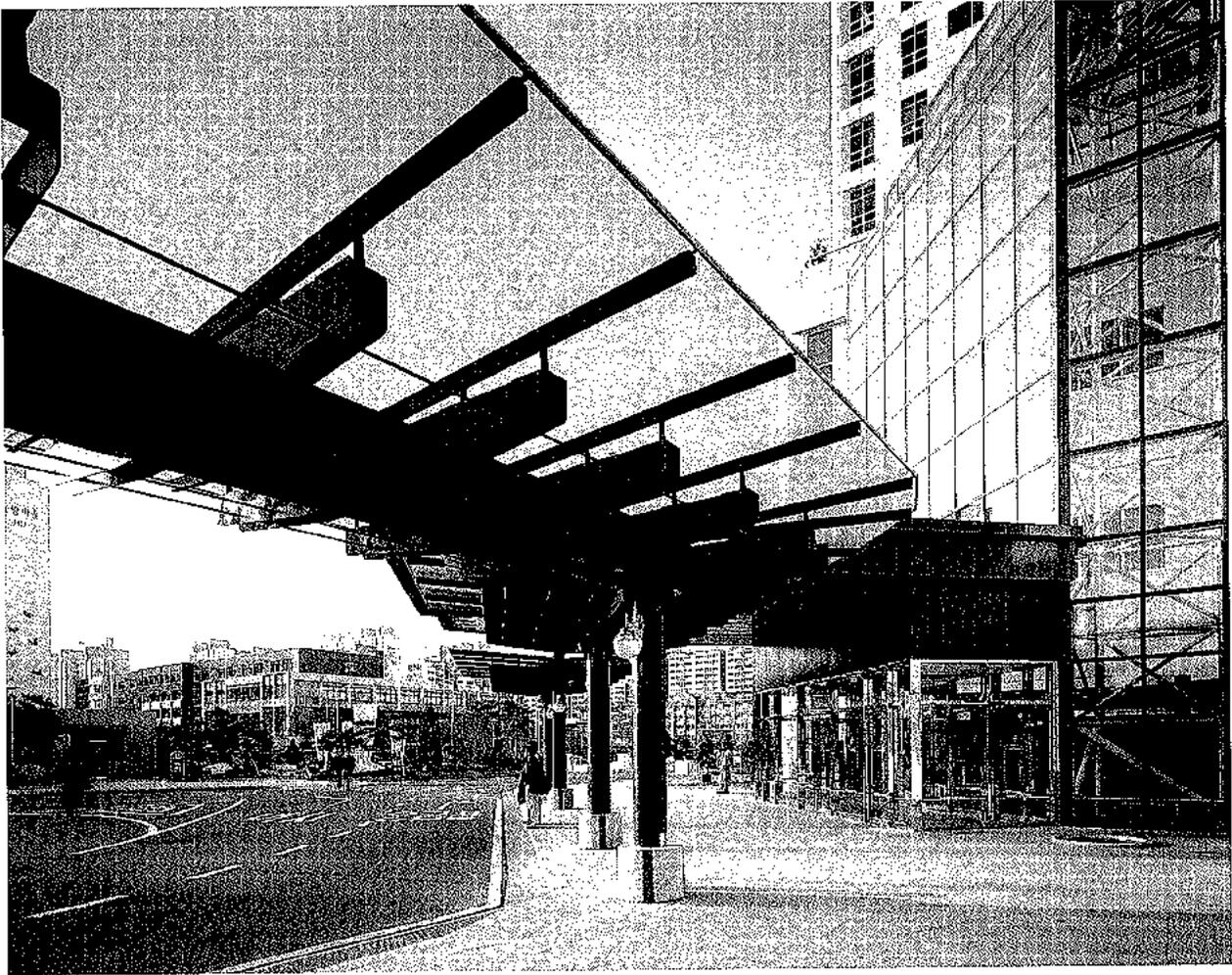
병동의 라운지를 중앙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계획하여 환자나 방문객에게 탁트인 조망을 제공하고, 환자의 치료효과와 함께 쾌적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병원의 복잡한 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병동부를 일자형의 중복도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저층부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OPEN하여 외래환자 및 방문객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길찾기(Wayfiding)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중앙 아트리움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으며, 환자들에게 친근감과 따스한 느낌을 주기위해서 체리, 단풍나무 무늬색으로 인

테리어를 마감했으며,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꾸며진 1층 로비의 일부공간은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고자하는 건축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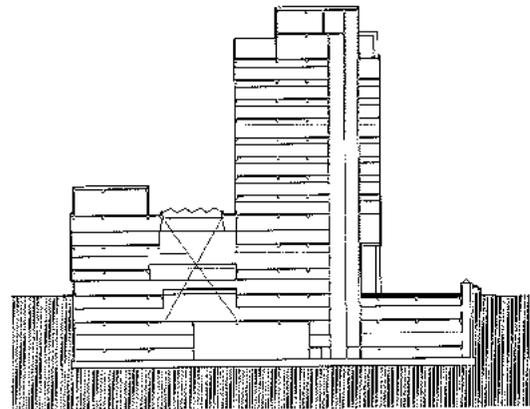
이 병원은 전형적인 Podium and Tower 형태의 Mass로 되어있어 그러한 형태가 갖는 정형화된 입면과 병원의 고정화된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자 금속성의 외장재료와 어우러지도록 커튼월을 요소요소에 계획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주출입구의 작은 아트리움과 중앙 아트리움, 유리 로 감싼 4층 연결통로와 각 병동의 라운지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편안한 병원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외부공간을 살펴보면 예술장식품과 휴게공간을 곳곳에 설치하여 환자 및 방문객이 외부에서도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차량동선은 25m도로에 인접하여 One Way로 처리, 차량이 대지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대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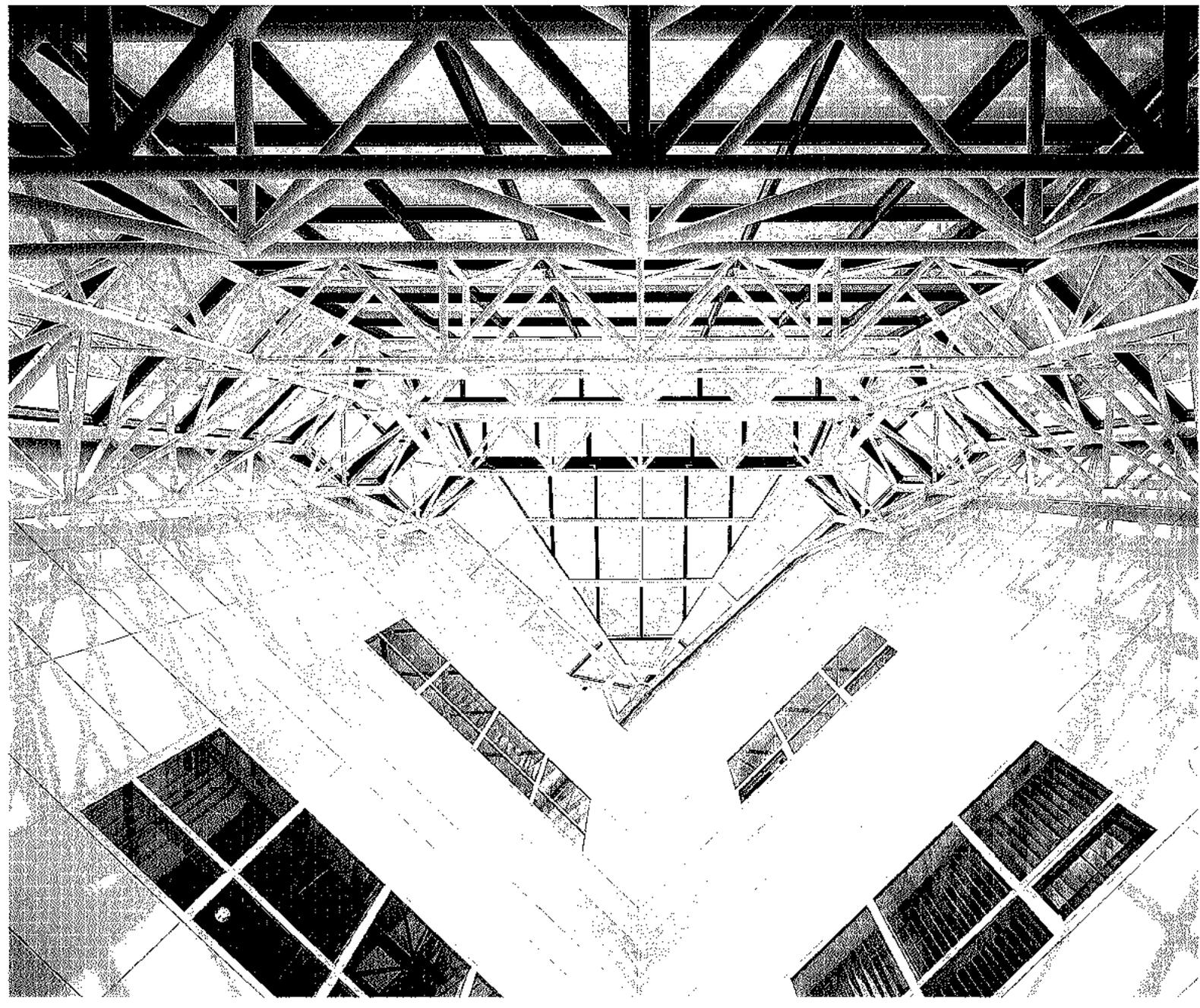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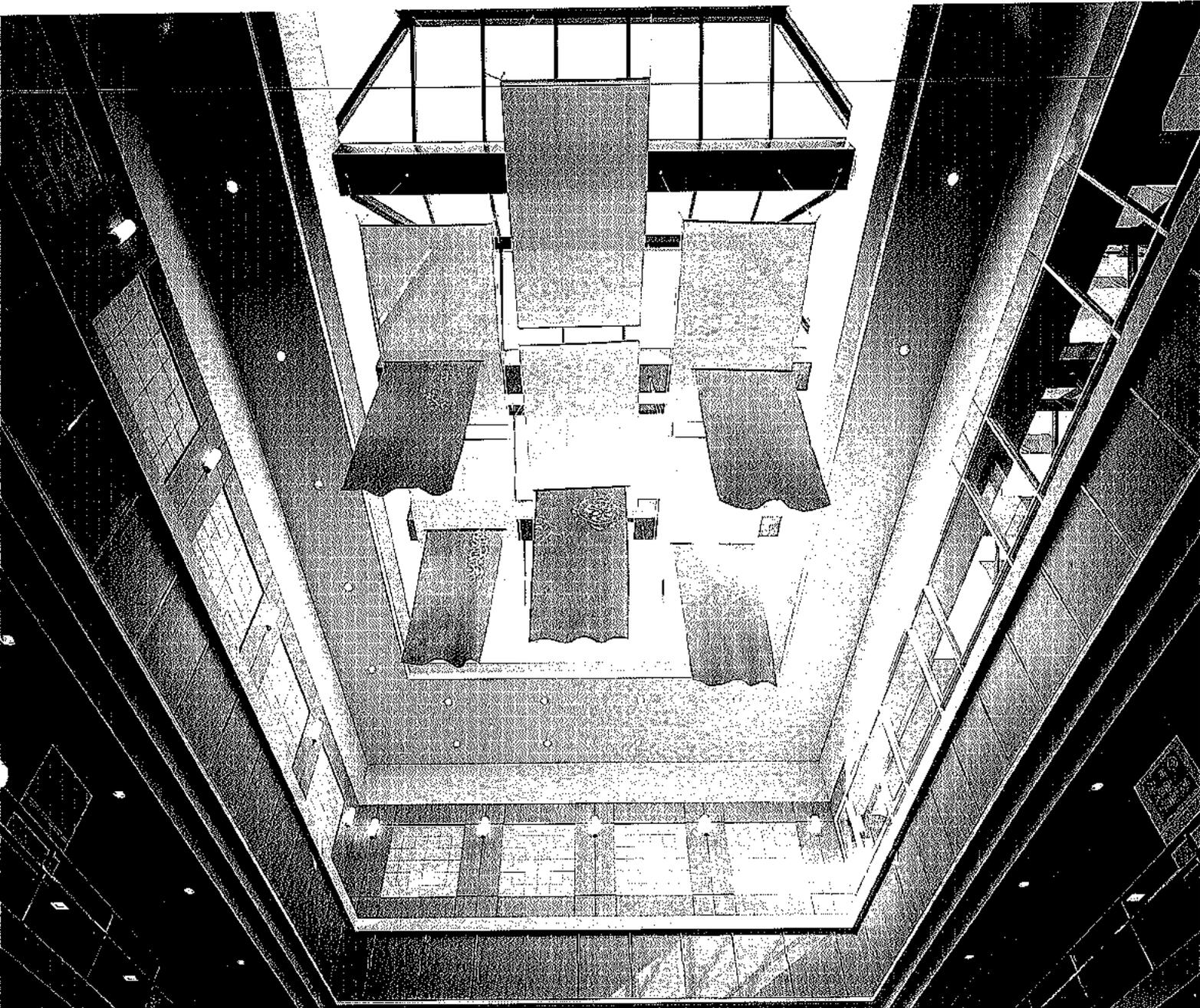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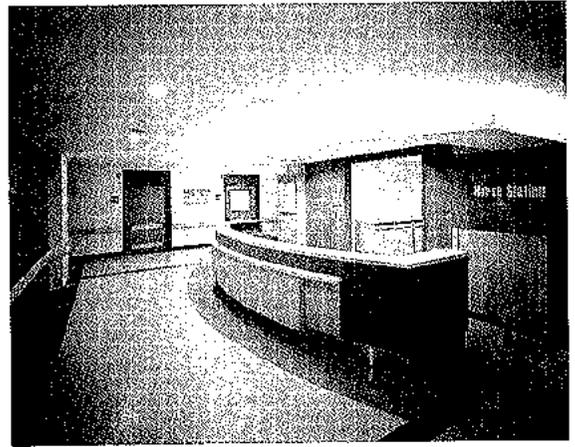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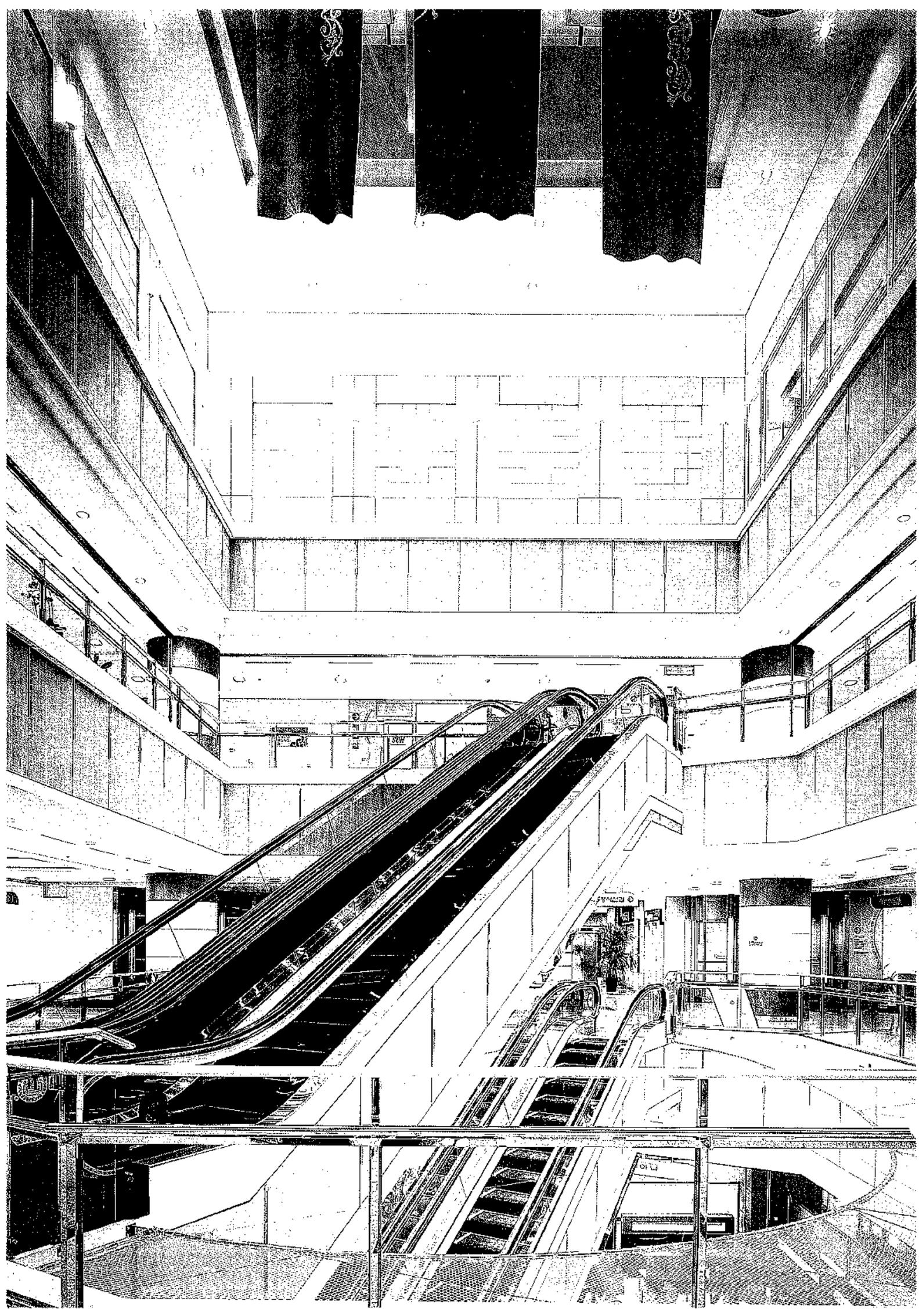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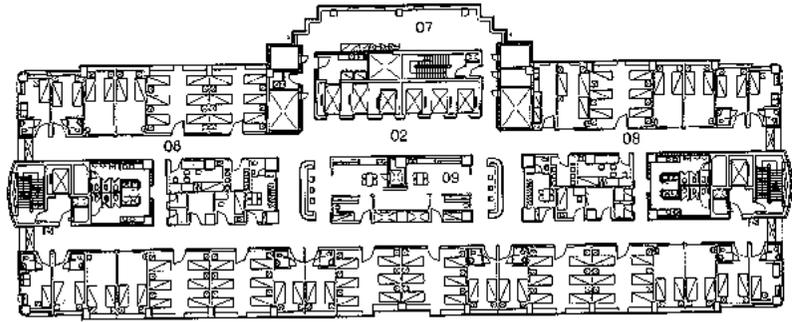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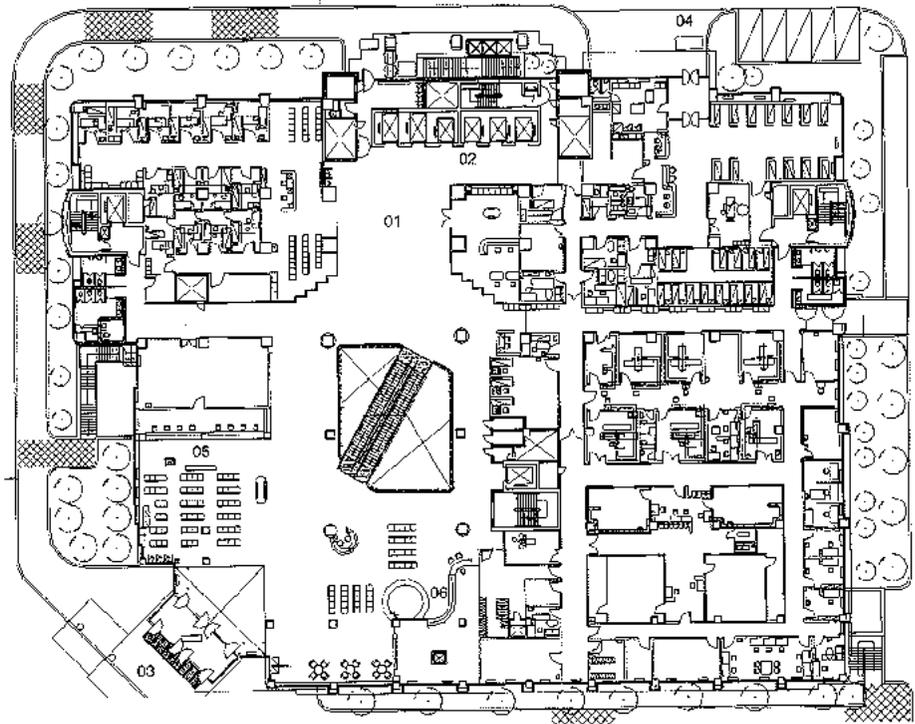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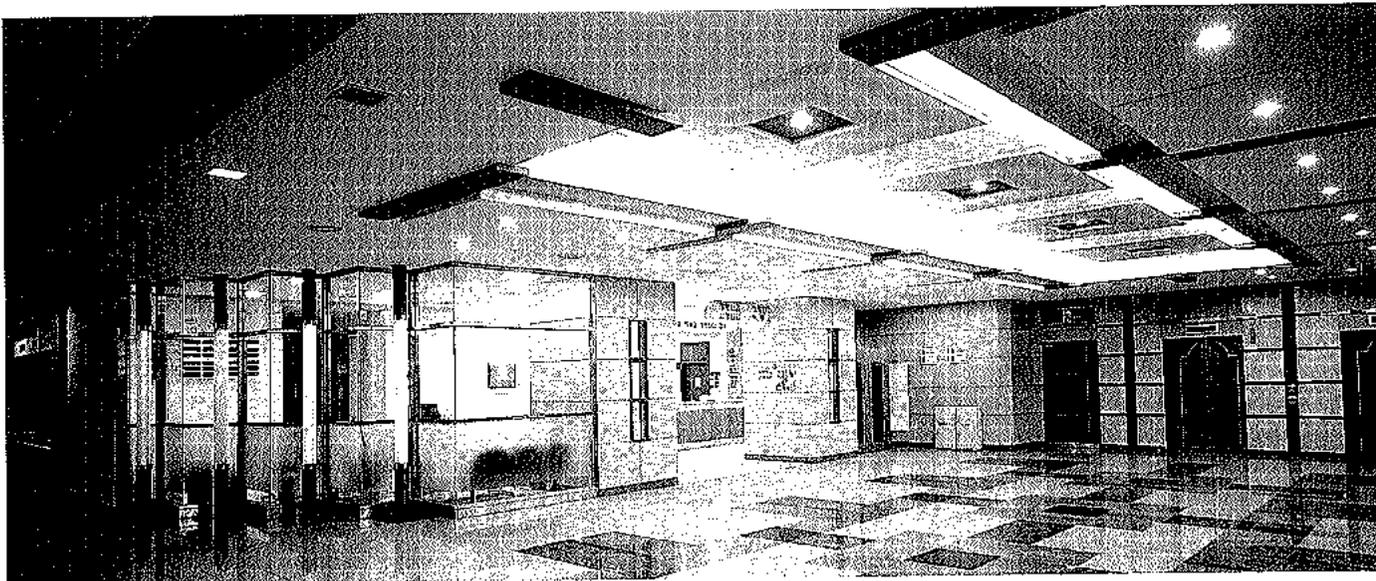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 01 로비
- 02 엘리베이터홀
- 03 외곽, 방문객 출입구
- 04 응급실 출입구
- 05 접수/대기실
- 06 투약창구
- 07 라운지
- 08 병실
- 09 간호각업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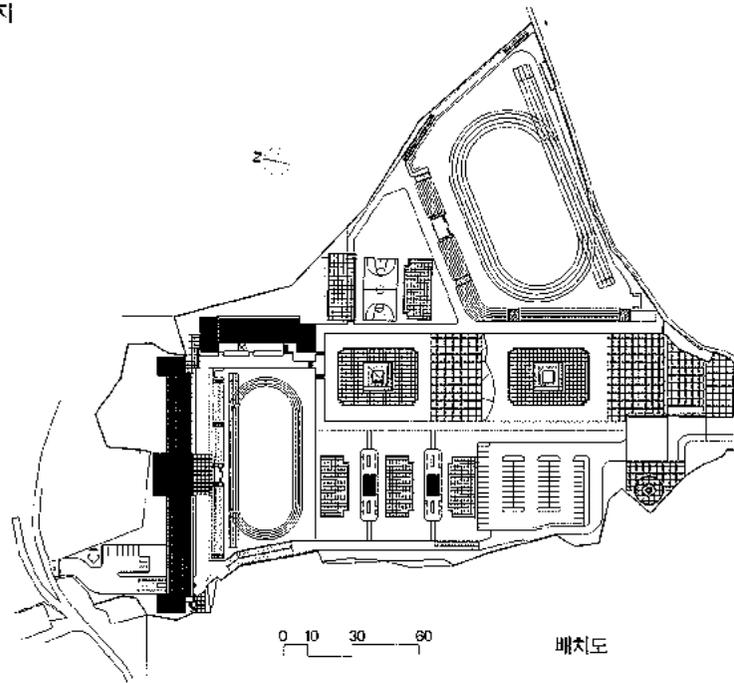
# 고양 여자 중 · 종합고등학교

## Koyang Girls' Comprehensive High School

신영천 / (주)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hin Young Cheon

###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99번지외 3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3,280㎡
건축면적	6,290.29㎡
연 면 적	22,063.89㎡
	① 금회 신축분 : - 중, 고교사동 : 11,988.69㎡
	② 중축 예정분 : - 도서관동 : 1,558㎡
	- 식당동 : 1,042.80㎡
	- 체육관동 : 3,892.86㎡
	- 기숙사동 : 2,597.64㎡
	- 부속동 : 983.90㎡
건 폐 율	14.53 %
용 적 륜	50.97 %
주차대수	74대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도자기질 치장벽돌, THK12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최희곤, 박희훈, 최기선, 조월성, 김란이, 이제익, 홍종덕, 신선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전통성** : 오랜 역사를 가진 고양여자종합 중 · 고등학교 법인 자체가 현 이사장의 선친께서 직접 학교를 짓고 설립하신지 50주년이 된 학교였다. 고양시에 위치한 구 학교 캠퍼스 자체를 이번엔 신축한 새로운 캠퍼스는 2세인 현 송웅운 이사장께서 이전을 주도 계획하였다. 학교의 설립 이념을 전통성과 이념성에서 확실한 교육의 기반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설립한 전통성에 대해서 이 계획안을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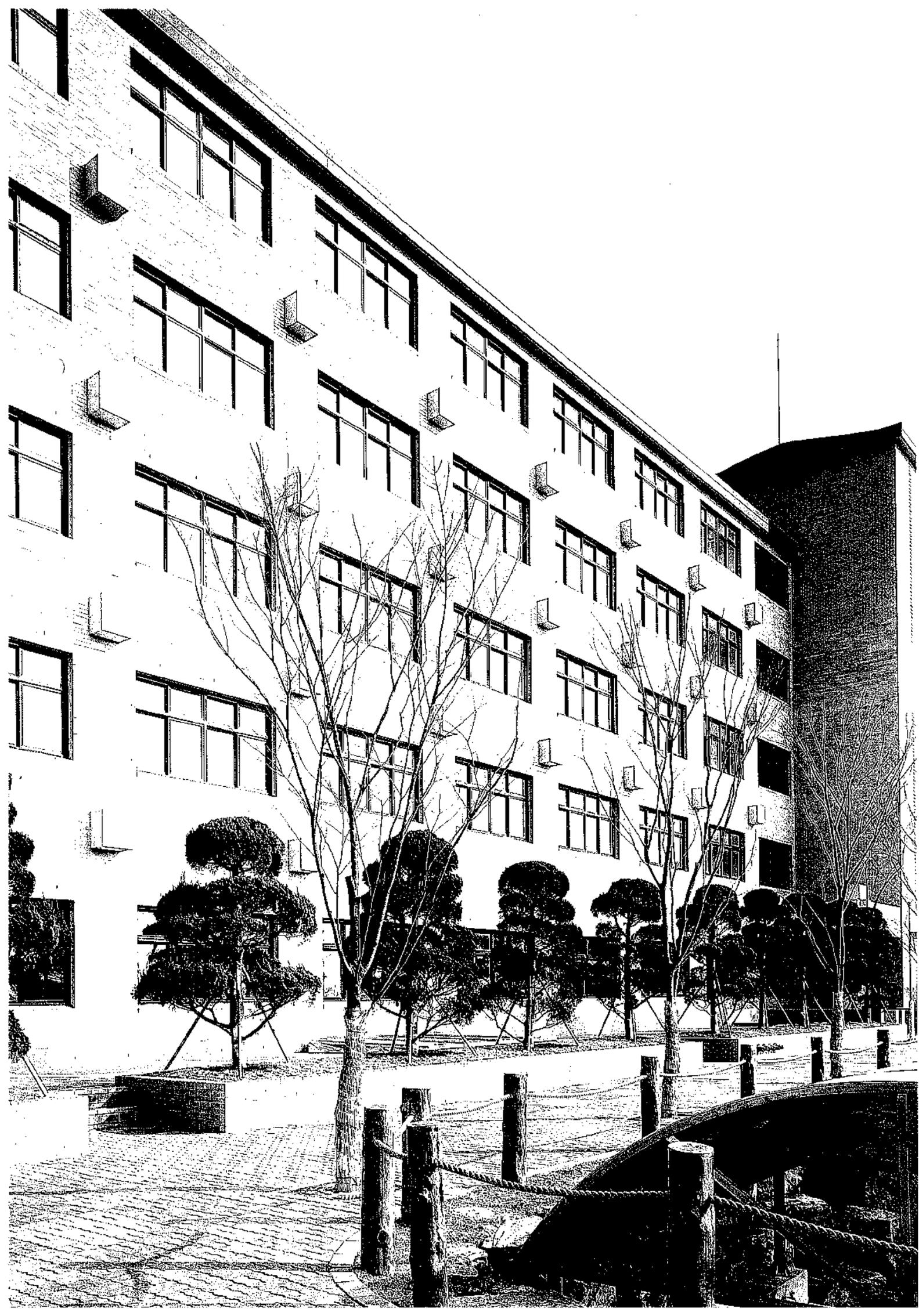
**상징성** : 이번엔 완성한 캠퍼스는 중 · 고등학교의 캠퍼스에 해당하는 교실만이 설계되었으며, 향후 전문대학을 설립코자 전면에 넓은 캠퍼스를 확보하였다. 전체적인 MASTER PLAN의 계획 아래에서 우선 중 · 고등학교 캠퍼스만을 계획하였다. 학교의 배치 방법에는 상징성을 두고 계획하였다.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정기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 배움에 열중할 수 있는 배치 형태를 구하였다. 정문으로부터 축을 두어서 향후 증축할 캠퍼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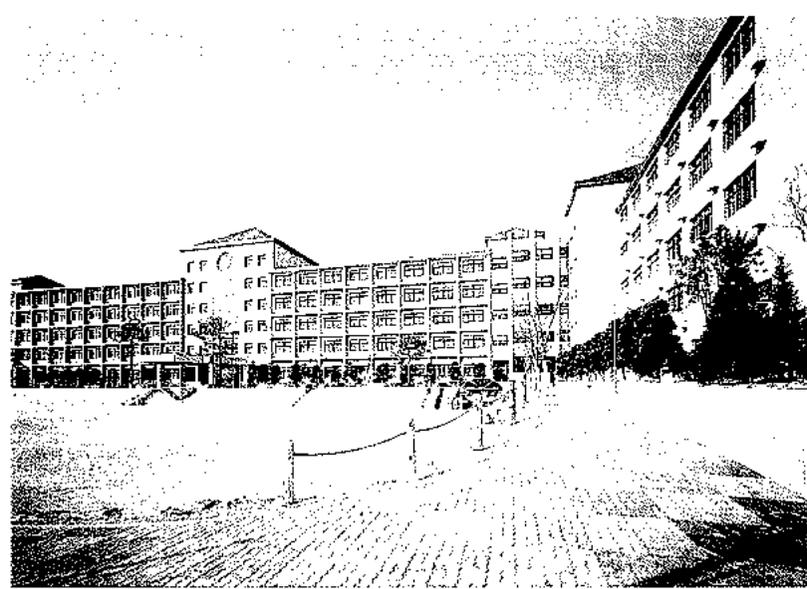
사동을 학생회관, 법인사무처, 교사동, 중 · 고등학교동, 기숙사동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운동장의 규모 또한 소운동, 대운동장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였다.

**자연친화성** : 자연의 친화성과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창출기 위하여 모든 외부 마감재는 벽돌로서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벽의 구조가 건물의 내부부터 휴게실까지 연결되어 부드럽고, 자연과 친화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인 또한 유지 보수 측면에서 페인팅의 반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소요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계획하였다.

지하의 DRY AREA는 태양광선의 충분한 채광으로서 지하의 단점을 충분히 보강하였다.

**조화성** : 건물과 건물과의 구분에 있어서 본관등을 옥합의 높이가 지 높여 주므로서 상징적인 본관으로서의 위용을 보여 주었고, 같은 패턴으로서 인근 건물의 매스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동일 재료로서 동일 패턴으로서 조화성을 유지하고 남쪽의 태양빛을 교사동에 충분히 끌어들이 수 있는 입사각의 조절을 위해서 파사드에 콘크리트 루바를 설치하였다. 여름에는 긴루바로서 태양빛을 줄일 수 있고 겨울에는 태양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파사드는 입면의 반복성, 대칭성 등을 강조하여서 학교만이 주어진 지루한 입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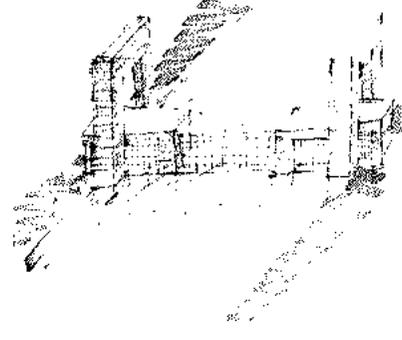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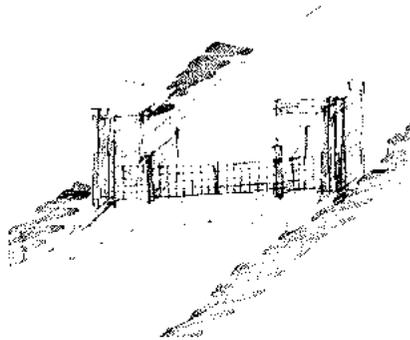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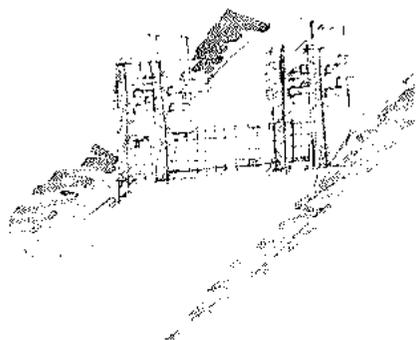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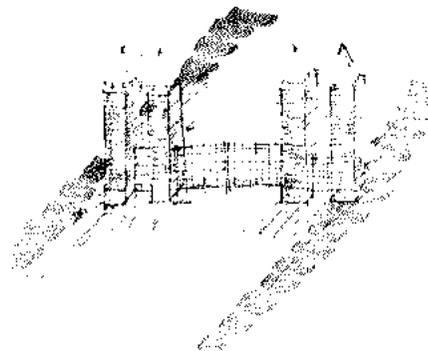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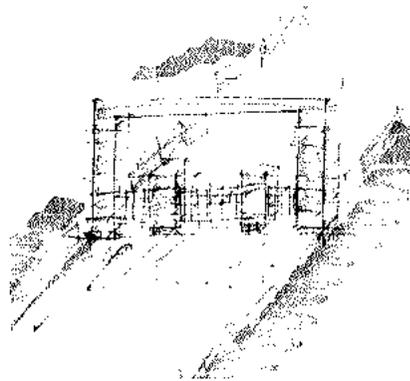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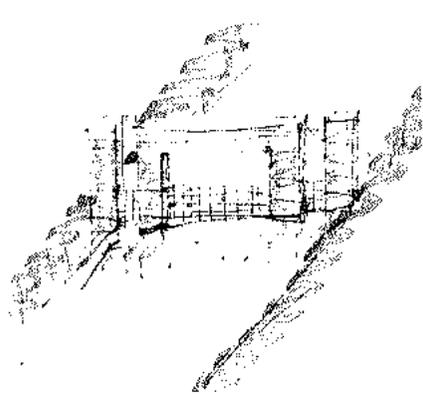
**편리성 :** 학교 평면에서는 기존의 학교평면을 탈피하였다. 우선 교실의 규모를 일반교실보다 적게 계획하였다. 학생수가 35명으로 축소될 경우를 대비할 공간의 허점이 없게끔 계획하였다. 복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유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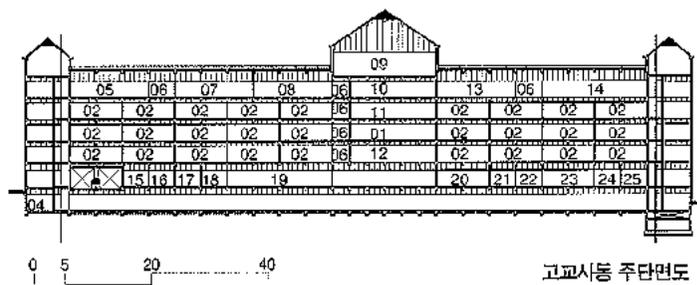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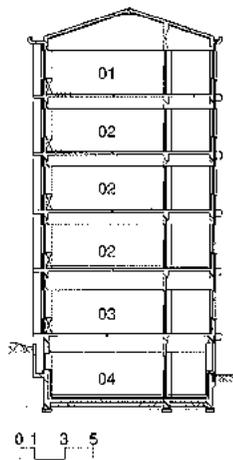
두어서 교실의 각개인장등을 복도에 연결하여서 설치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복도 폭의 여유공간은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계획하였다. 특히 건물과 건물의 오버브리지는 넓은 폭의 복도면적이 단순한 연결브리지의 역할을 떠나서 학생들의 휴게실의 공간으로서 설계하였다. 여학생들의 화장실 또한 교실의 평면 못지않게 중요하므로서 4교실에 1개의 화장실을 겸비토록 하였다. 이러한 화장실은 단순한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용도 외에 간단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일부 비데를 설치하면서 여학생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분위기를 살려주었다. 각실의 구분은 용도별로 총별,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 등의 전체적인 블록의 개념으로서 구분하였다. 따라서 지하층에는 식당, 학생들의 클럽 활동 교실로서 사용, 동별로서 1개동은 교실동, 별동은 취미활동의 공간, 특수교실동을 설치하여 기능의 구분을 두었다.

**운동성 :** 최상층의 교실은 2개의 교실을 한 개의 교실로서 만들 수 있는 경량칸막이로서 교실과 교실간의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후에 언제든지 변경가능토록 설계되었다. 특수교실동의 칸막이 벽에는 모토실을 가변성을 고려한 벽체로서 구성을 하였다.

학교캠퍼스의 배치는 차후에 공사를 위해서 우선 최후면에 있는 건물을 먼저 사공하였다. 전면의 건물의 위치에는 우선 녹지로서 잔디공간을 만들고, 또한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사용토록 유도하였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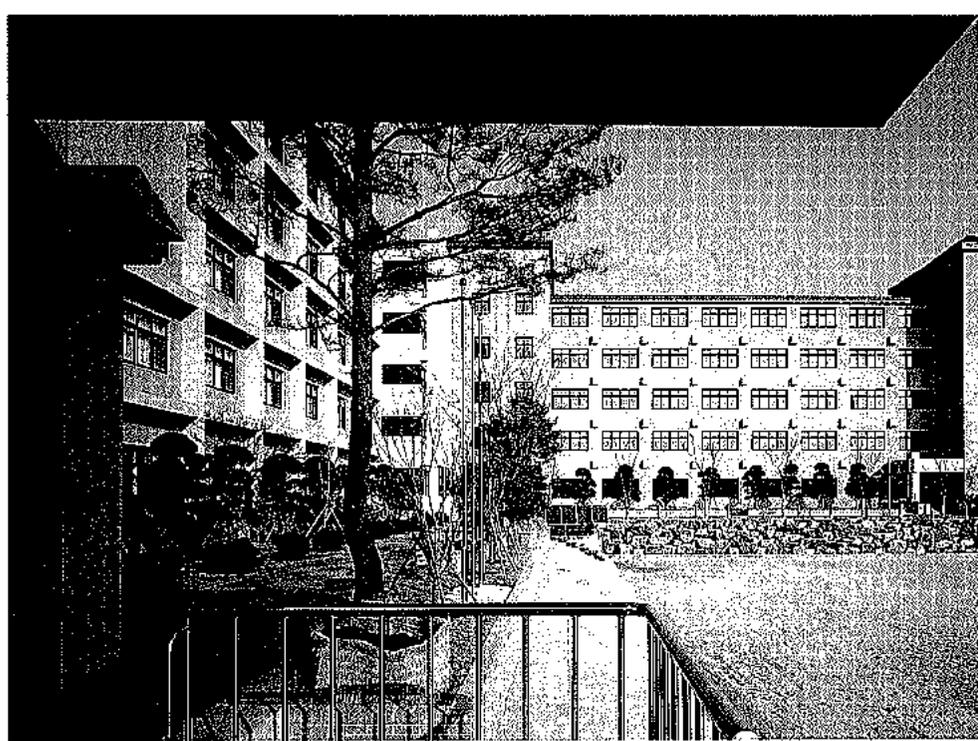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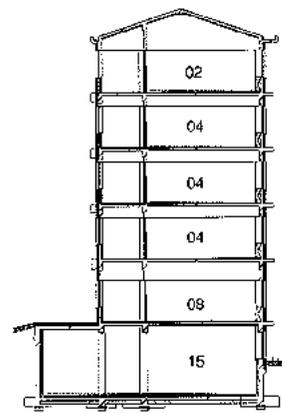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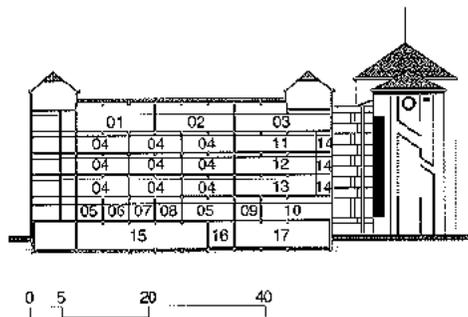


고교사동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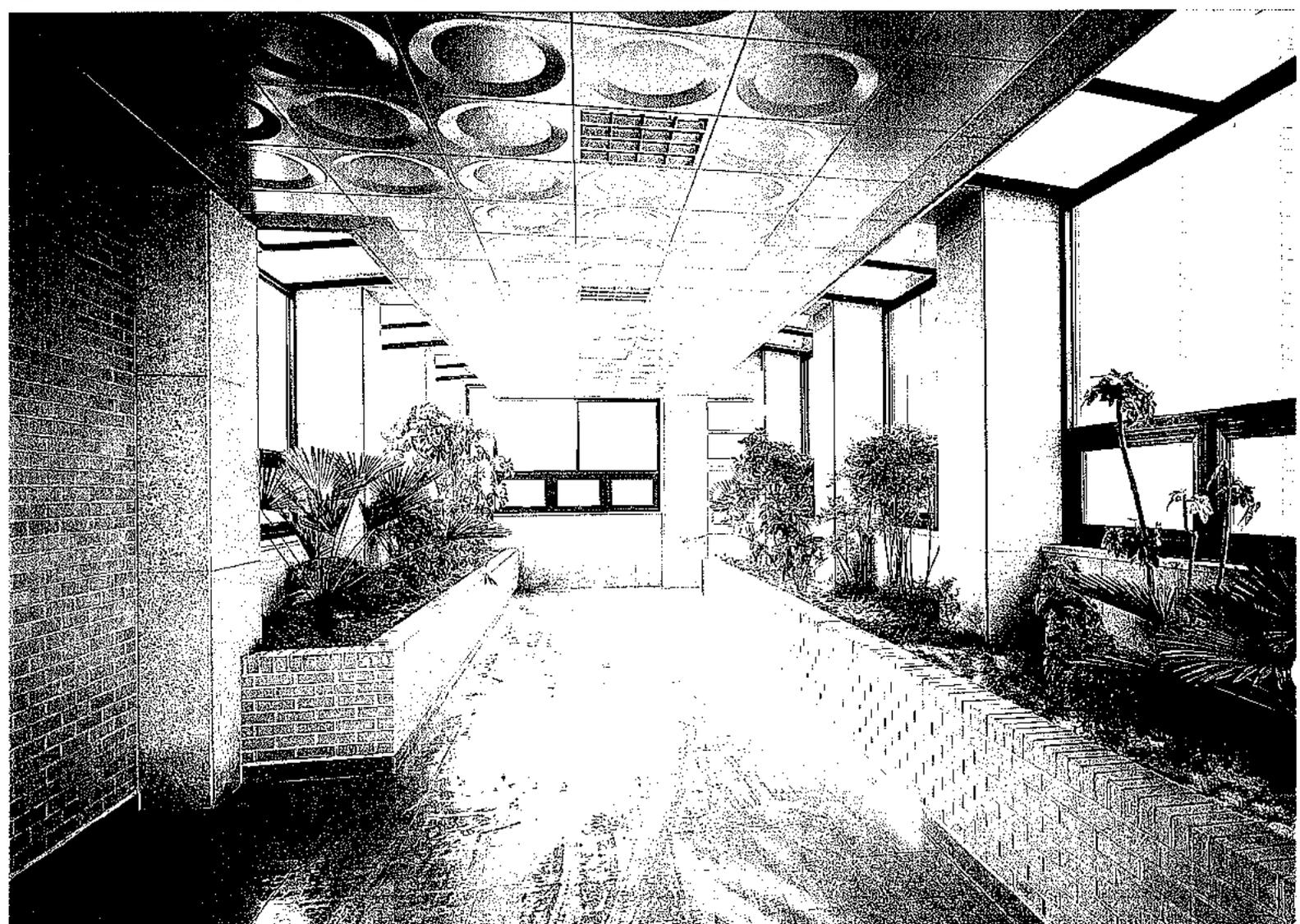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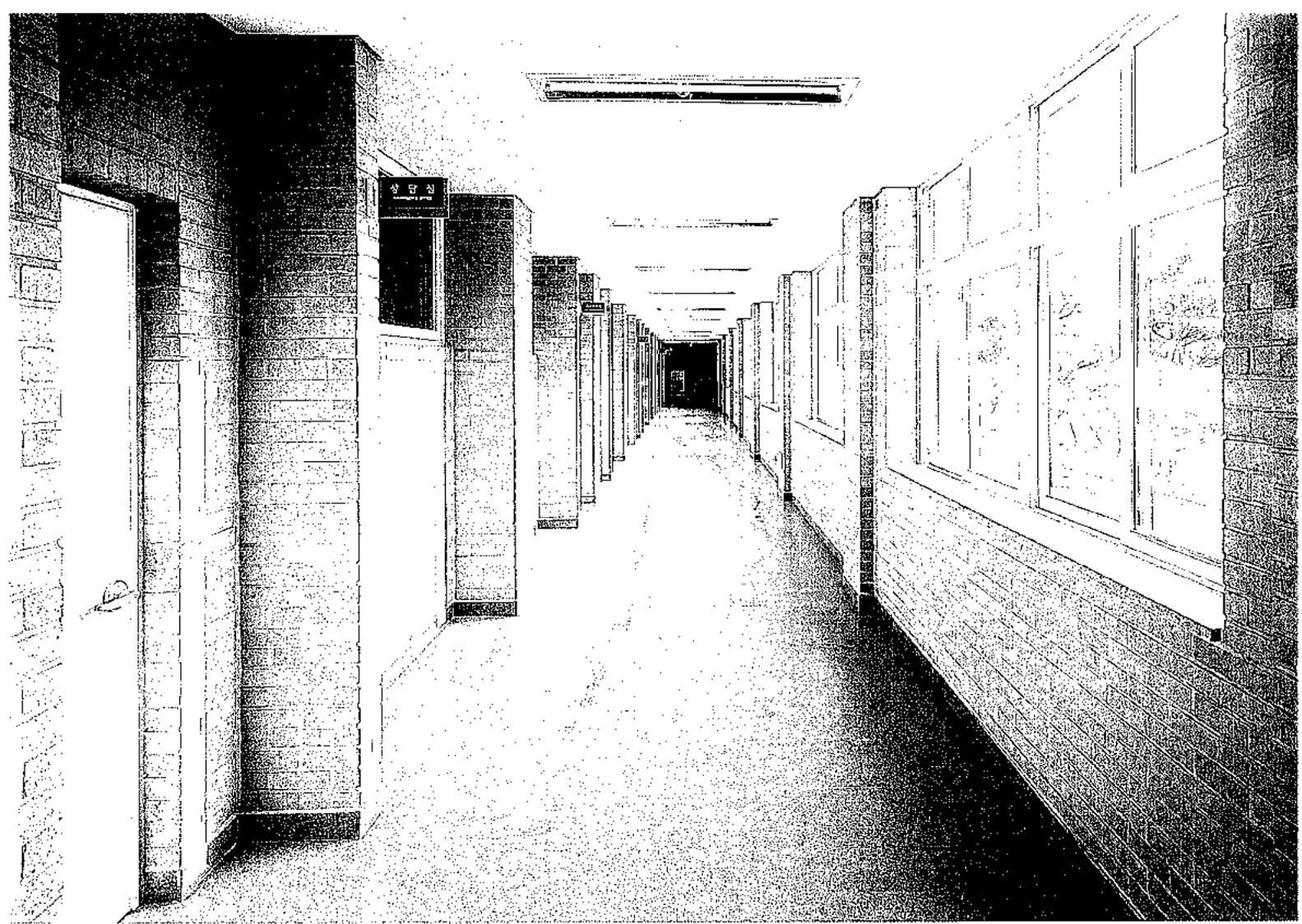
- 01 종합실습실
- 02 일반교실
- 03 교무실
- 04 디렉터실
- 05 음악실
- 06 준비실
- 07 미술실
- 08 사무자동화실
- 09 기자재실
- 10 문서작성실
- 11 멀티미디어실
- 12 과학실
- 13 컴퓨터실
- 14 시청각실
- 15 교사휴게실(남)
- 16 교사휴게실(여)
- 17 상담실
- 18 인쇄실
- 19 교우처
- 20 서우처
- 21 서교
- 22 내실
- 23 여사장실
- 24 비서실
- 25 교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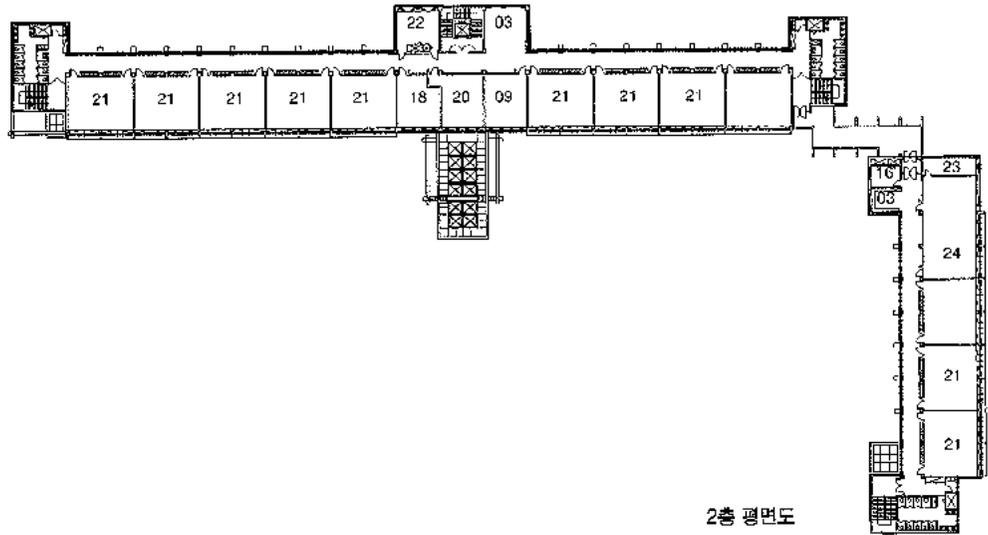


- 01 음악실
- 02 예절실
- 03 도서실
- 04 일반교실
- 05 교무실
- 06 방송실
- 07 상담실
- 08 문서실
- 09 전산실
- 10 양호실
- 11 기술실
- 12 컴퓨터실
- 13 과학실
- 14 준비실
- 15 기계실
- 16 발전기실
- 17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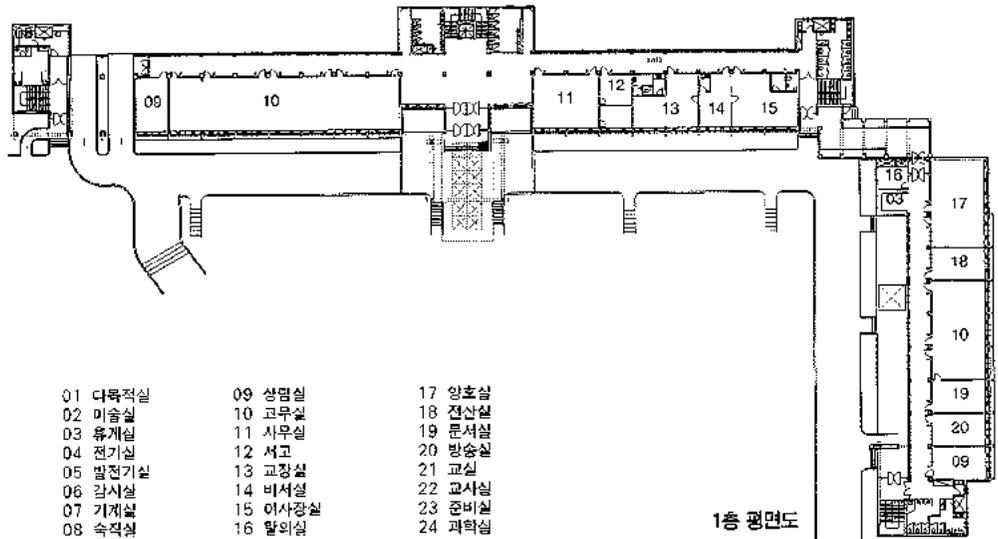


종교사동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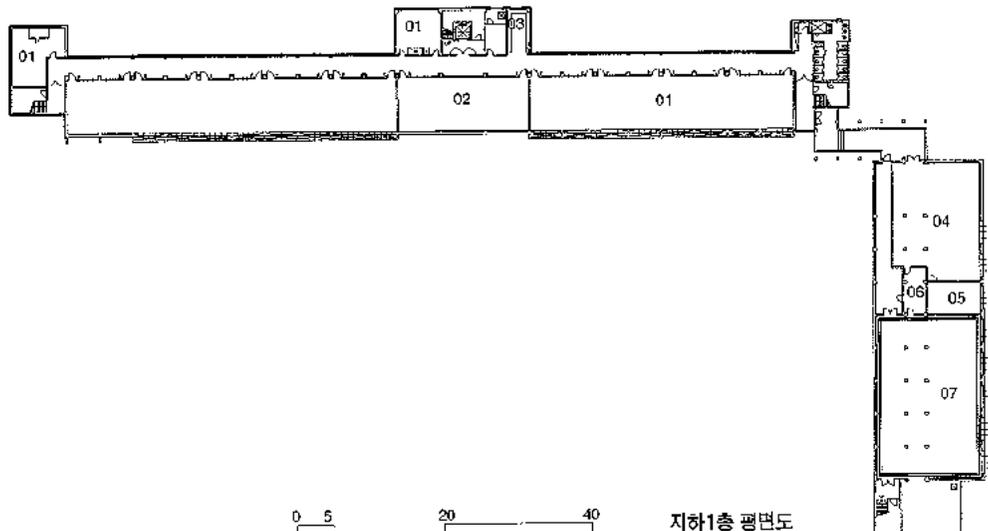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코리아 디자인센터

## Korea Desig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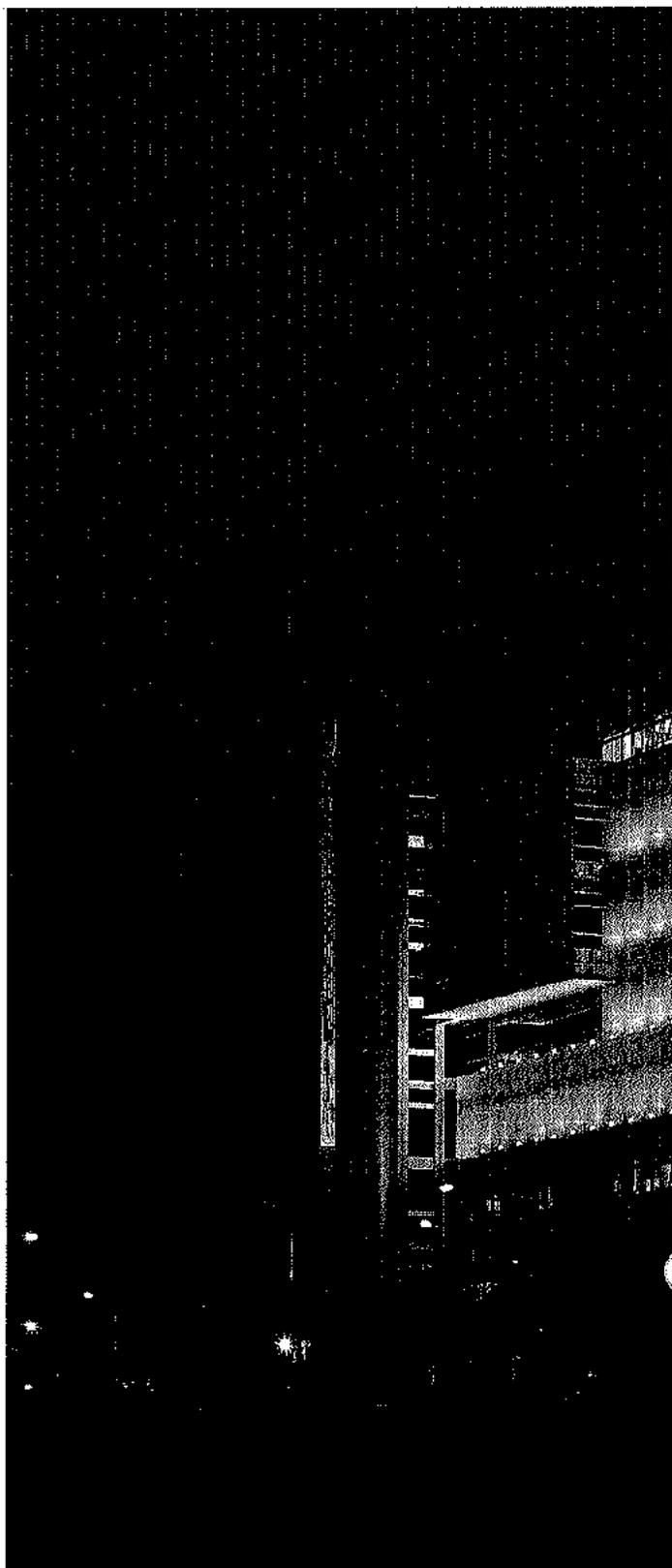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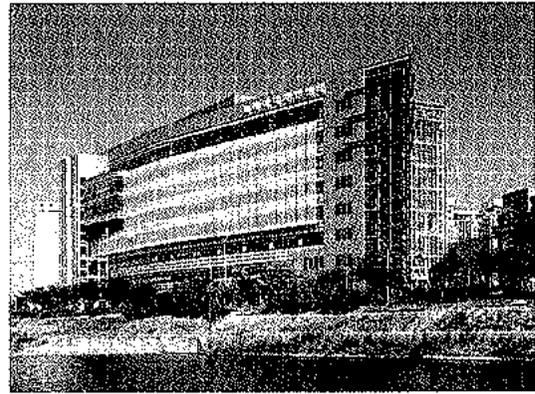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44-1
지역지구	도시설계지역, 중심상업지역
주요용도	업무, 전시, 관람집회, 근생, 교육연구
대지면적	10,705.80 m <sup>2</sup>
건축면적	4,554.18 m <sup>2</sup>
연 면 적	46,945.90 m <sup>2</sup>
건 폐 율	42.54%
용 적 륜	251.38%
규 모	지하 4층, 자상 8층
구 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최고높이	44m
외부마감	24t 로이복층유리, 2.2t 알루미늄 패널
내부마감	바닥 - 7t 카펫타일, 3t 비닐타일 벽 - 정전분체도장, 수성페인트 천정 - 12t 흡음텍스, 비닐페인트
설계참여	정영균, 남궁진, 임동건, 정용석, 박은희, 이정후, 안규섭, 김동훈, 서범석, 김경환, 이승상, 전승환, 정재우, 이영주, 박경운, 문오주, 서호식, 조규형, 이동원, 김재희
구조설계	(주)센구조 연구소
기계설계	(주)신영기연
전기설계	(주)나라기술단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디자인센터는 국내유일의 산업디자인 전문진흥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인지도 확보를 위한 Landmark로서의 조형성 및 개방적인 이미지 구현 등을 주요 이슈로 계획되었다.

전체 배치개념으로는 탄천의 흐름을 수용한 분당전체의 자연축과 도시의 격자축을 동시에 수용하였으며, 차량접근을 고려한 서측입면의 강조와 보행접근을 고려한 남동측의 정면성 확보 및 디자인플라자 조성, 탄천과의 연계를 위한 bridge 설치 등으로 개방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이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인 단계별 개발을 고려하여 construction joint로서 아트리움을 설정하였다. 이 시설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기능을 그 연관성에 따라 디자인 감상(Appreciation), 정보(Information), 교류(Exchange & Communication), 체험(Imagination), 교육(Education), 개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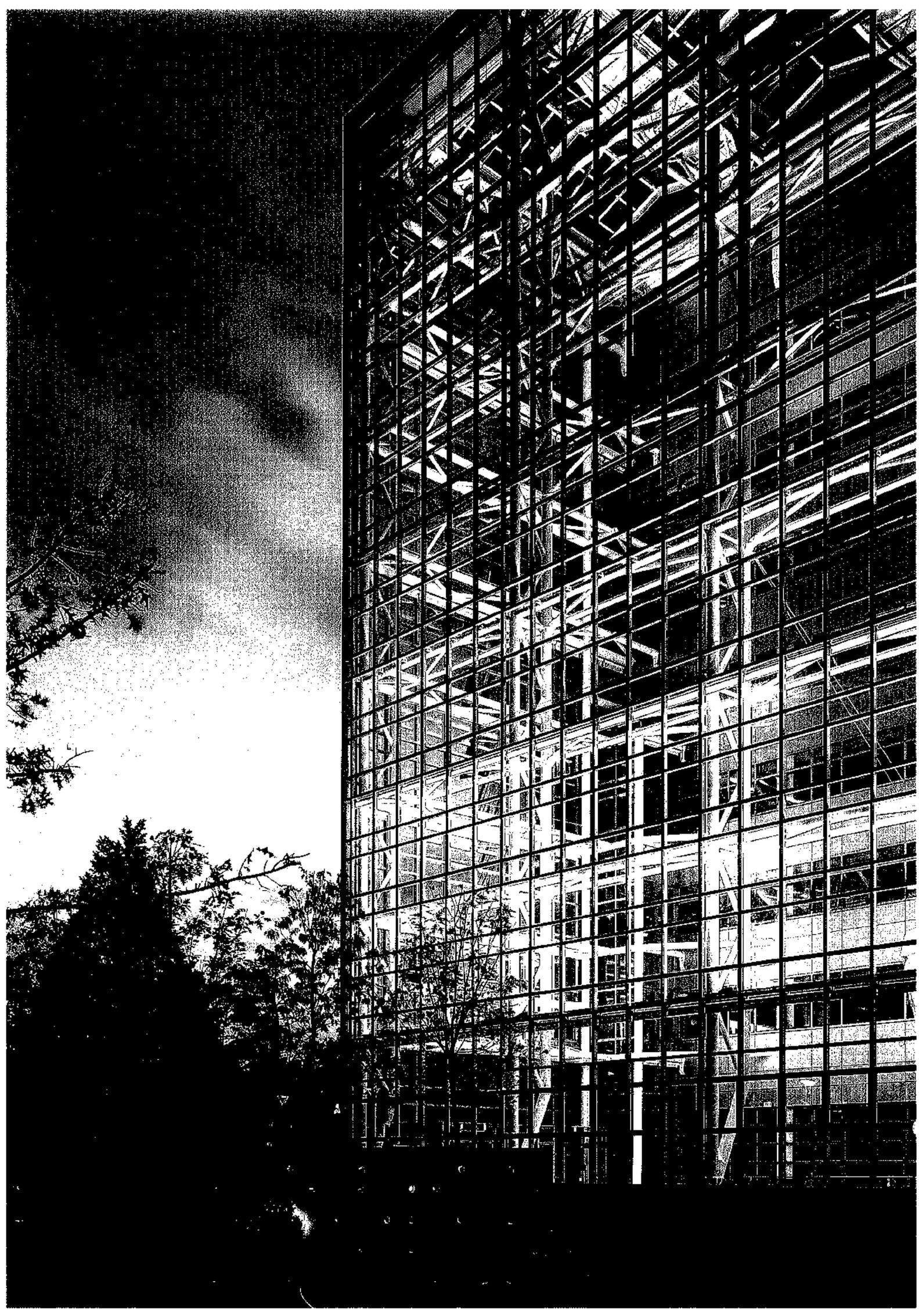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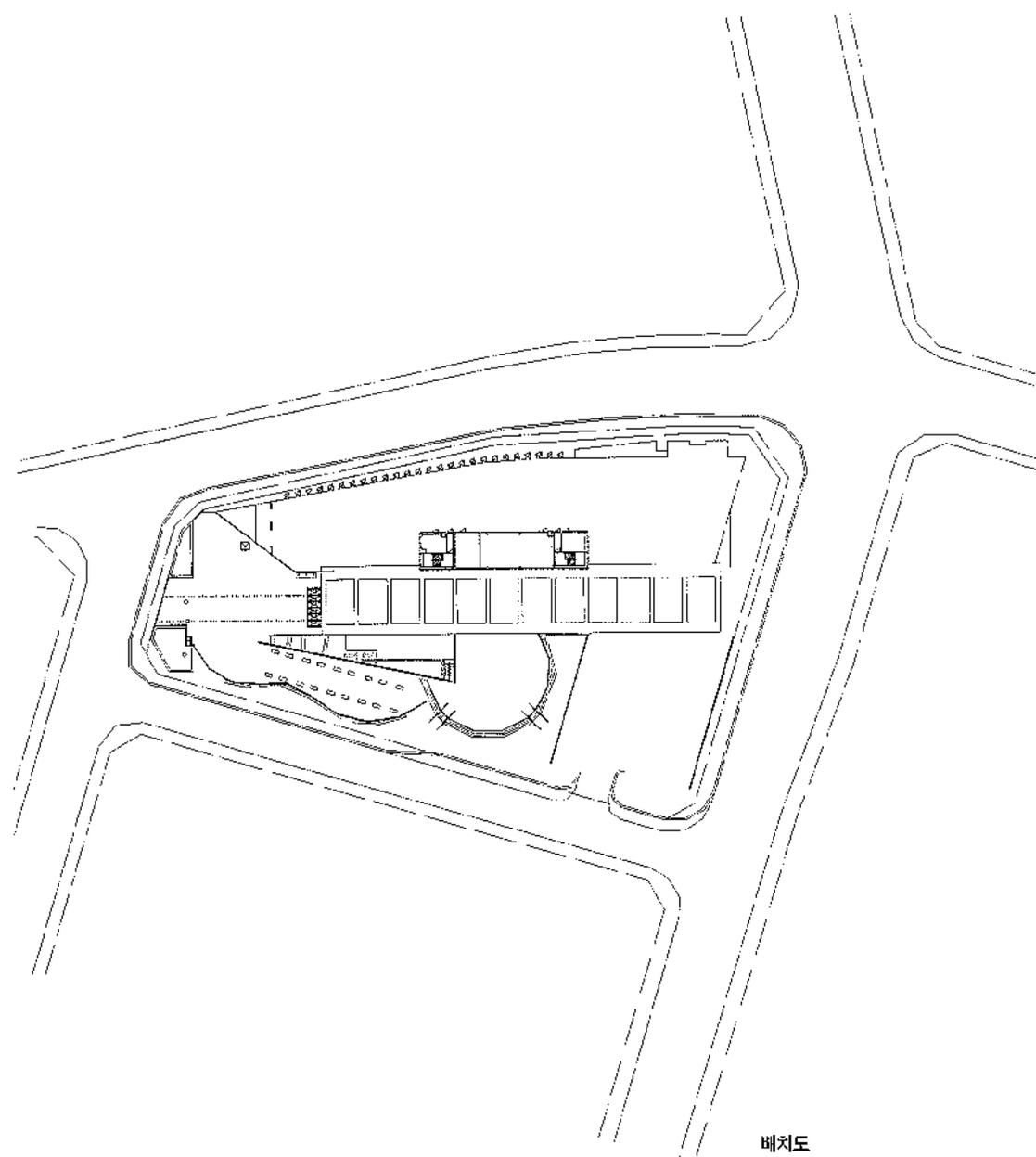
제작(Development & Production), 판매(Marketing)로 재구성하여 전체 시설을 계획하였다. 일반인의 빈번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저층부에 설치하여 아트리움의 에스컬레이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층부에는 관련업무시설 및 교육관련시설을, 상층부에는 전문가교류공간을 배치하여 동선을 명확히 해결하였다. 특히 이 건물의 중심공간인 아트리움은 전면광장에서 연장된 개방된 내부공간으로, 동선공간으로 뿐 아니라 상설홍보관, 이벤트 및 전시공간으로의 기능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Box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체험장치이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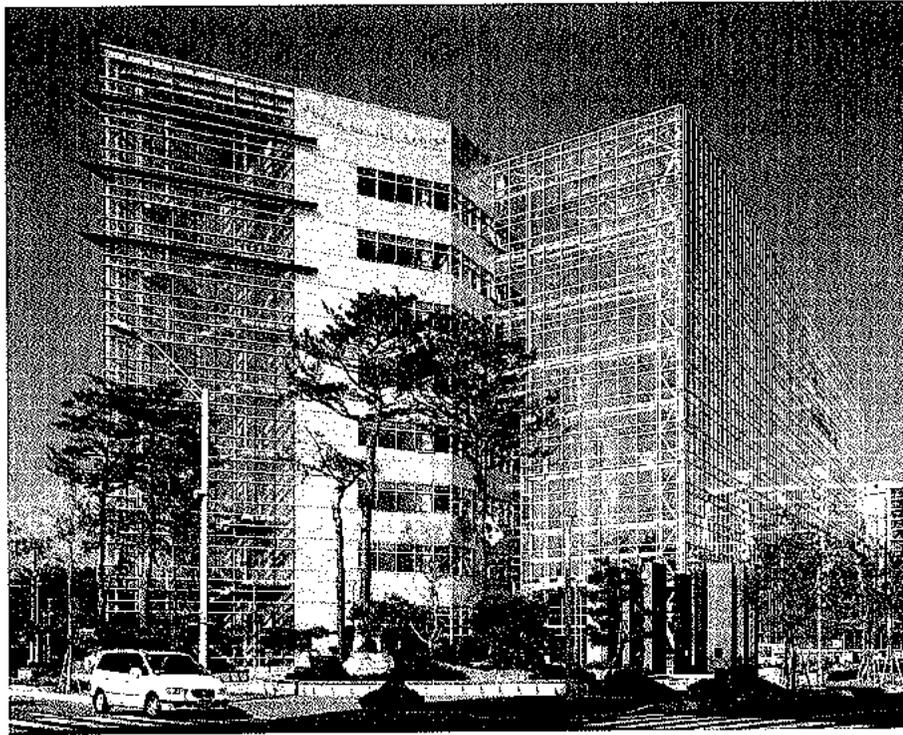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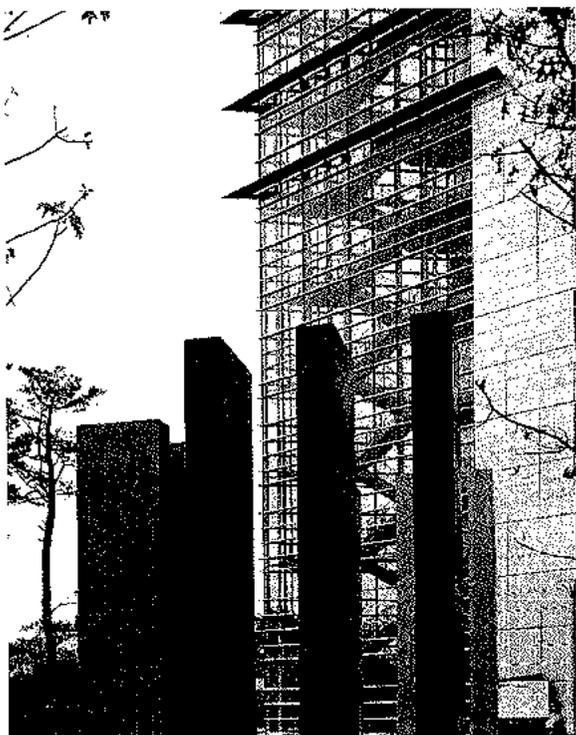
코리아 디자인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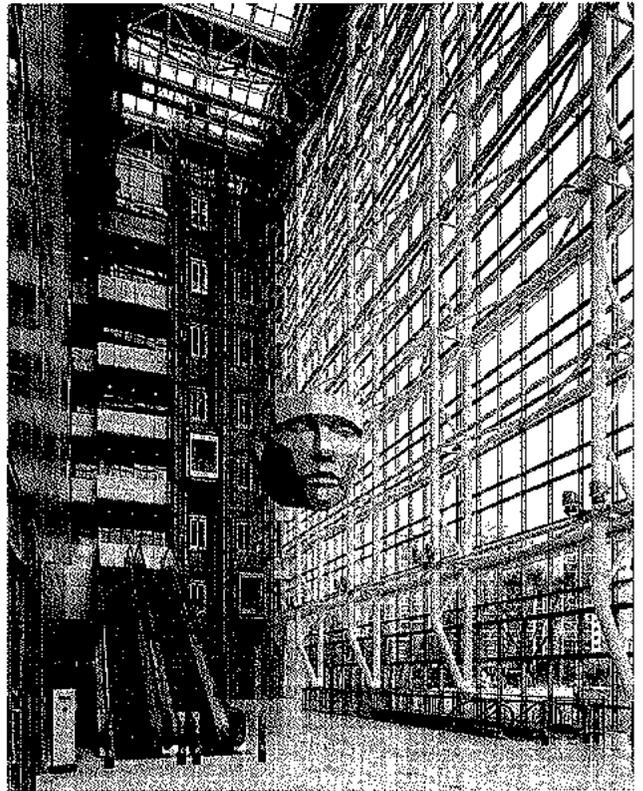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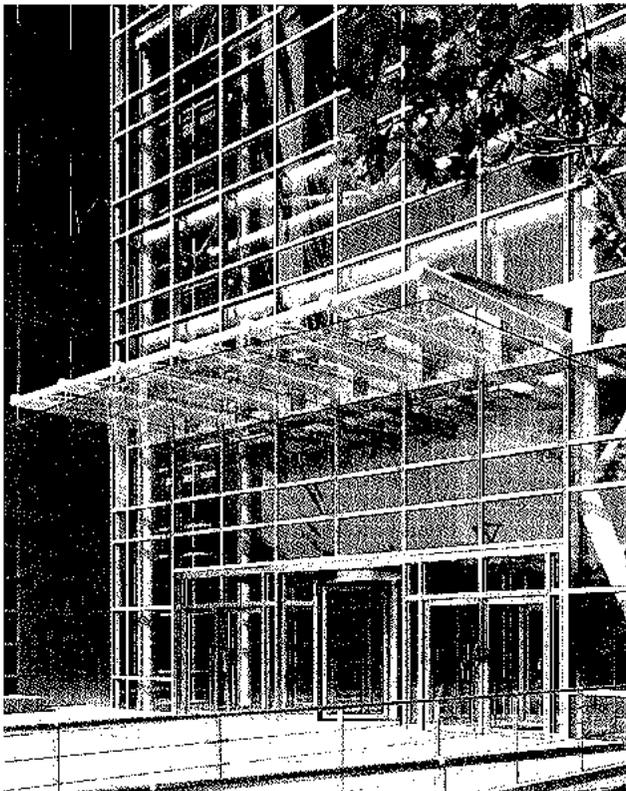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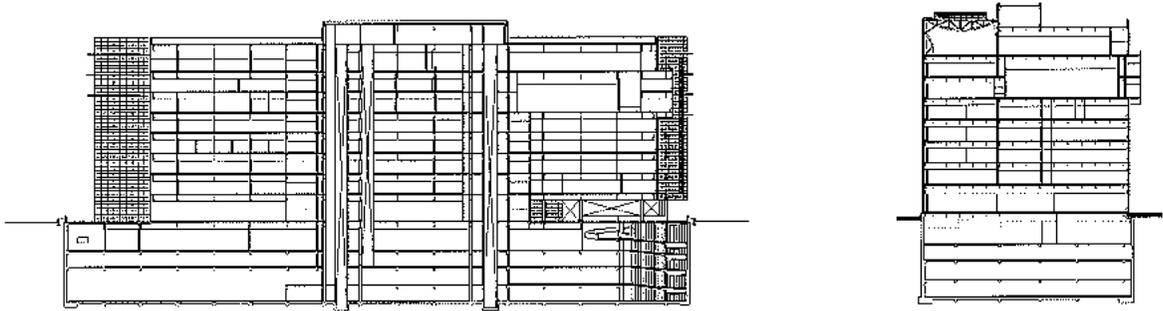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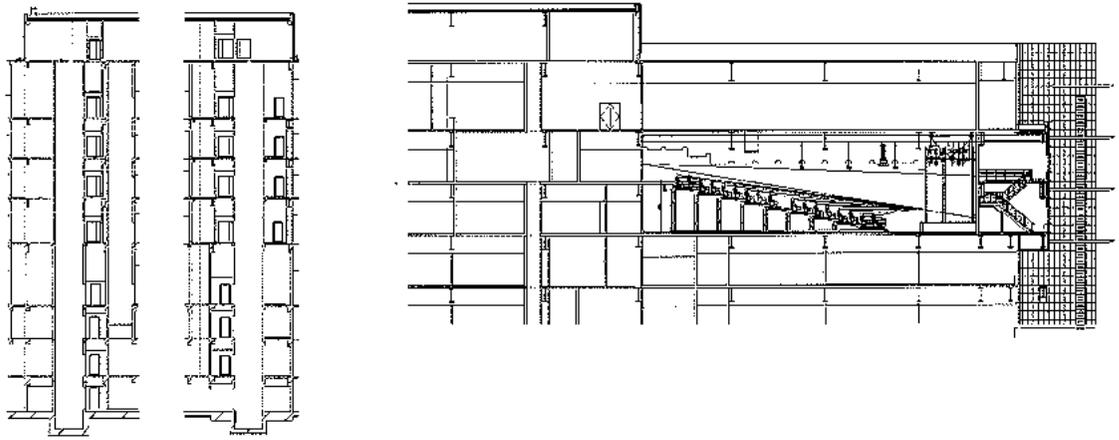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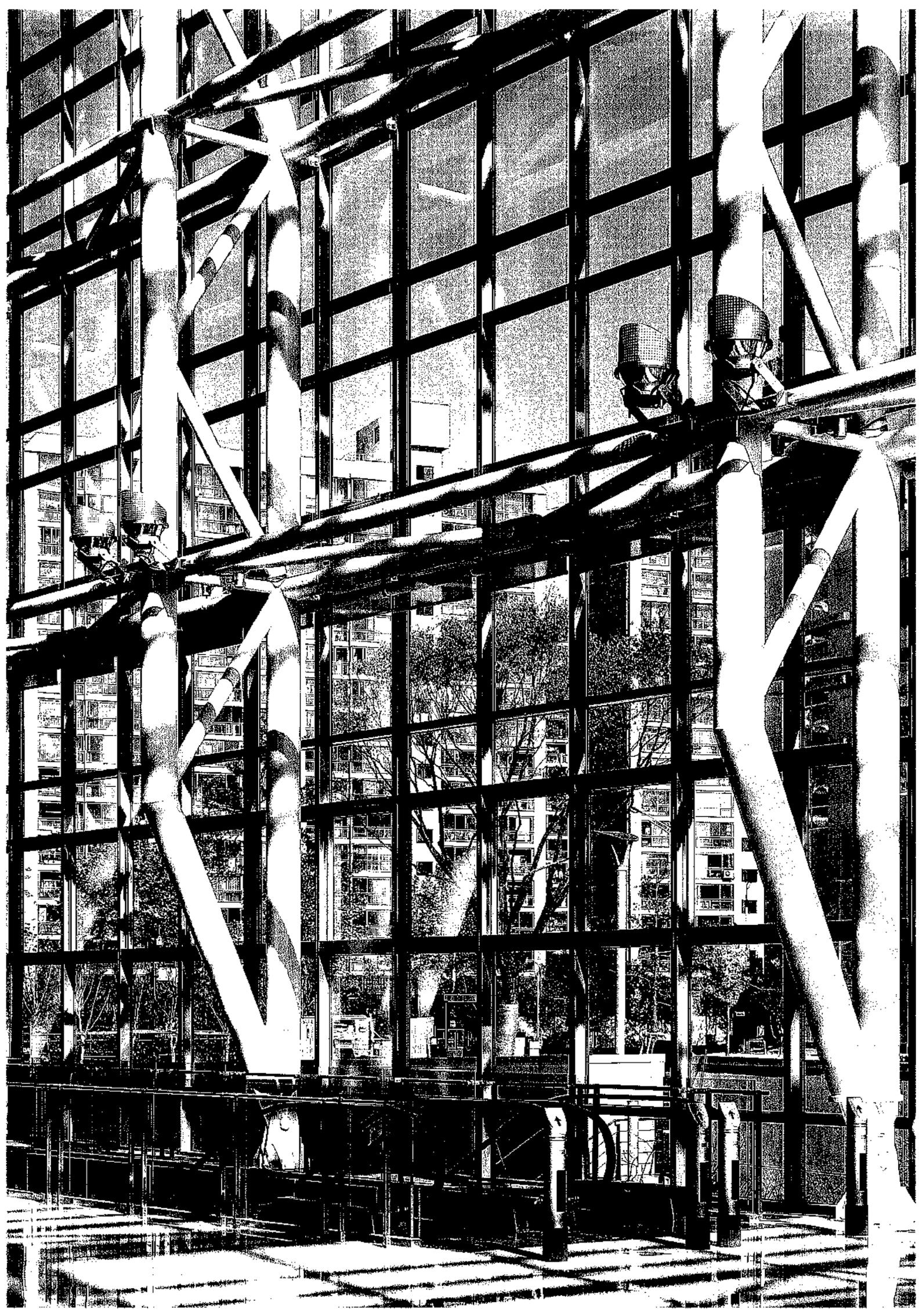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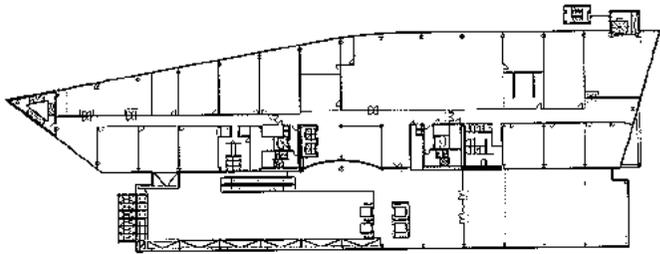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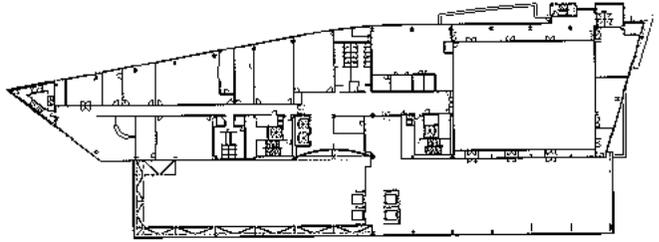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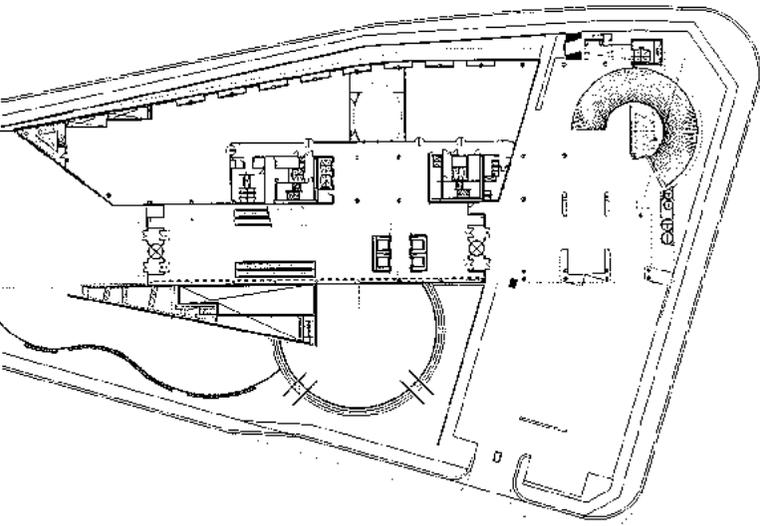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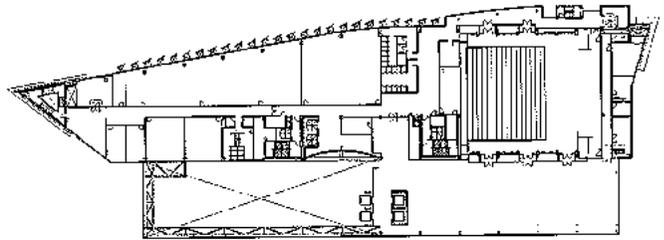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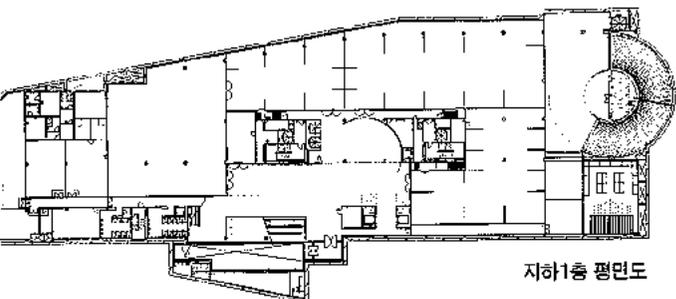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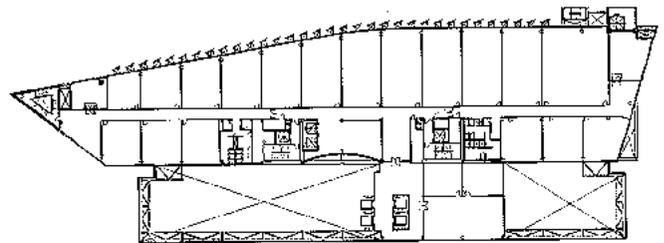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6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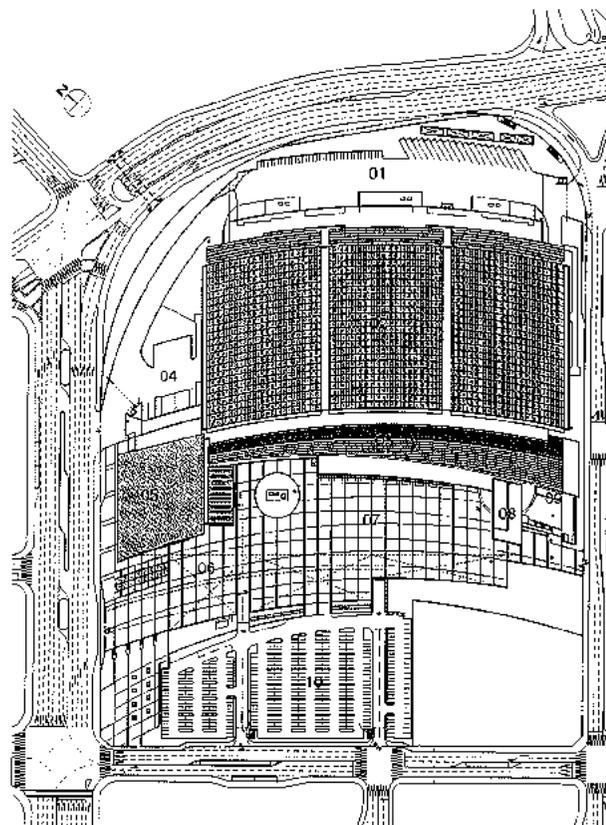
# 부산전시 · 컨벤션센터

##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이용흠 /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 레오나르드 파커 / TLPA  
 Designed by Lee Yong-Heum & Leonard Parker

### 건축개요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291번지 외 40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대지면적	114,772.64㎡
건축면적	47,501.10㎡
연 면 적	92,761.44㎡
건 폐 율	41.39%
용 적 륜	57.55%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최고높이	52m
외부마감	알루미늄 외장재, 28.76mm LOW-E 양면반강화점합복층유리, 24mm LOW-E 양면반강화복층유리, 24mm 양면반강화복층유리, 37mm S.P.G GLASS SYSTEM
내부마감	바닥 / 25mm 화강석물갈기, 카펫타일, 비닐타일, 벽 / 25mm 화강석버너구이+물갈기, 흡음패브릭패널, 수성페인트 천장 / 메탈유공천정판, 흡음텍스, 비닐페인트, 지붕 / 0.8mm 아연도 강판 위 불소수지도장
설계총괄	정태복
설계담당	이채근, 임정동, 조진만, 권종수
감 리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기간	1997년 11월~1998년 8월
공사기간	1998년 10월~2001년 4월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01	트럭하역장	06	진입광장	배치도
02	종합전시장	07	옥외전시장	
03	Glass Hall	08	사무동	
04	컨벤션 트럭하역장	09	Reflection Pool	
05	컨벤션센터	10	옥외주차장	

부산시의 도시개발방향 중 첨단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센텀시티(Centum City)내 3만4천7백여 평의 대지에 국제 종합 전시장 및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목적 아래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국제전문전시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의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센텀시티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전시 · 컨벤션센터>는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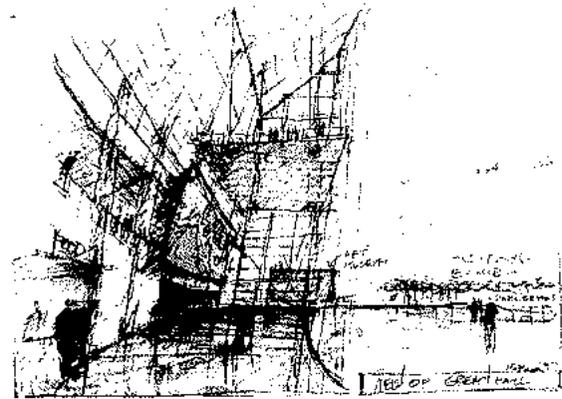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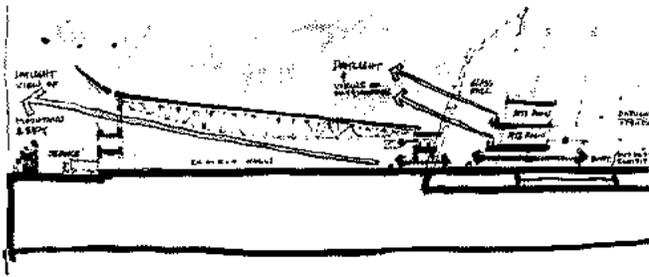
기본 계획의 주안점은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국제규모의 전시공간 확보와 전시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한 전시장 및 회의장의 계획이다. 각종 평면에서 알 수 있듯이 실별 상호 기능보완관계가 충족될 수 있도록 회의실, VIP ROOM, 사무실, 주방등을 근접

배치시켜 각 기능별 용도에 따른 연계성을 높이며, 외형적으로는 세계로 뻗어나는 듯 형성된 glass hall의 3차원적 spine truss에 연그린색 유리 커튼월로 형성된 항구 부산의 역동적 이미지와 첨단시설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35만평의 부지에 정보통신, 영상, 국제비즈니스, 상업, 주거,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 시설이 갖춰진 지상 최대의 최첨단 소도시로 조성될 센텀시티 마스터 플랜에 존중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지는 일반상업지역인 서측부분과 준공업지역인 동측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건물 배치는 센텀시티의 도시문맥에 순응하는 Main 축 그리고 대지형상과 향후 들어서게 될 호텔과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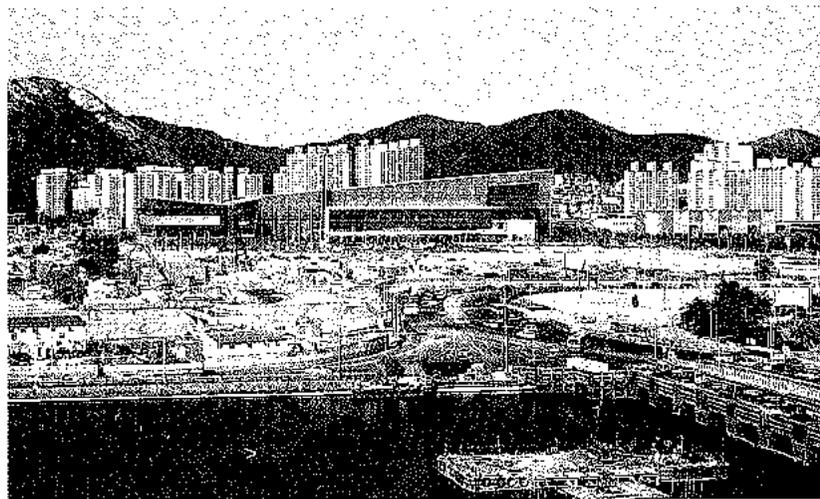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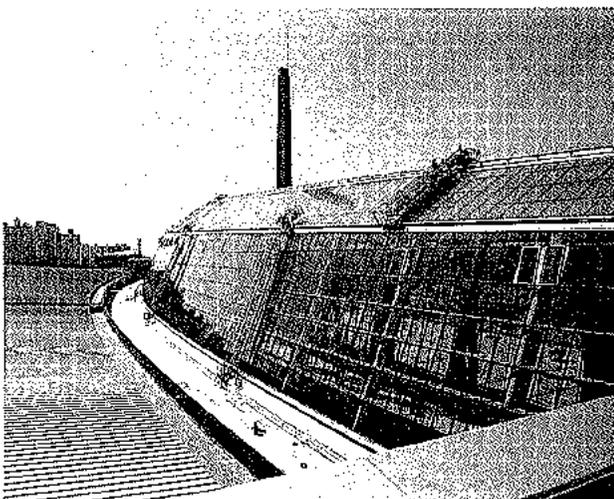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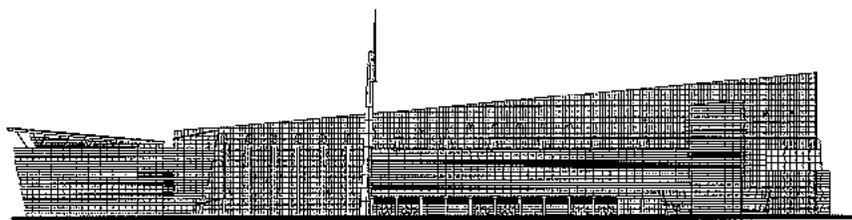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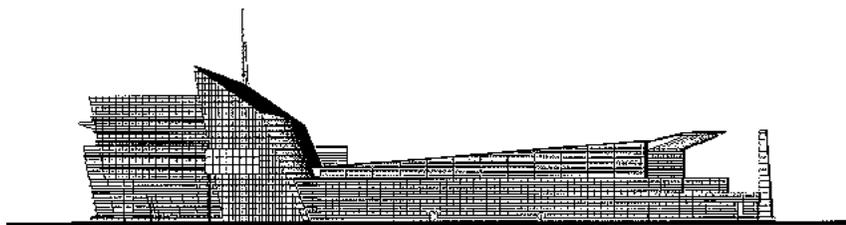
을 고려한 곡선축을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배치는 동부산의 관문이자 센텀시티 전체의 시작과 종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센텀시티의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국제회의 등의 행사 개최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처음 접하게되는 단지의 랜드마크적 건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전체 단지내 녹지 공원과 연계된 휴게 공간으로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결점 지로서 단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도심축을 마무리하며 대지의 형태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최적의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추구한다. 올림픽공원을 따라 형성된 녹지 및 개방공간과의 연계는 도시의 녹지 및 열린 공간의 연속성을 존중하고, glass hall 및 사무동에서 조망되는 야외전시장-올림픽공원 수영만으로 이어지는 탁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단지 주출입구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센텀시티역과 미술관축 도로에서 이용객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전시장은 단일공간(108m×243m) 및 세 개의 분할공간(108m×

81m)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 공간과 무주공간 형성을 위한 상부 108m Tapered Section(곡선형 단면) 트러스로서 극적이며 변화있는 공간감을 제공한다.  
 컨벤션센터 1,2층 회의실은 집회, 회의, 연회 등의 특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하도록 가변성(총10개실 분할 가능)이 고려되어 있으며, 통역시설, 방송, 통신시설을 갖춘 다기능적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하다.  
 항구도시 부산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한 glass hall의 3차원적인 철골 트러스와 전시장의 경사 지붕 구조, 전시장 기능에 부합된 거대 공간의 단순미와 불규칙적인 노출 철골트러스의 조형적인 조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68°,79°의 각도를 가진 경사 구조의 기하학적 형태로 인해 이용객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긴장감과 함께 기념비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어 주변환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건물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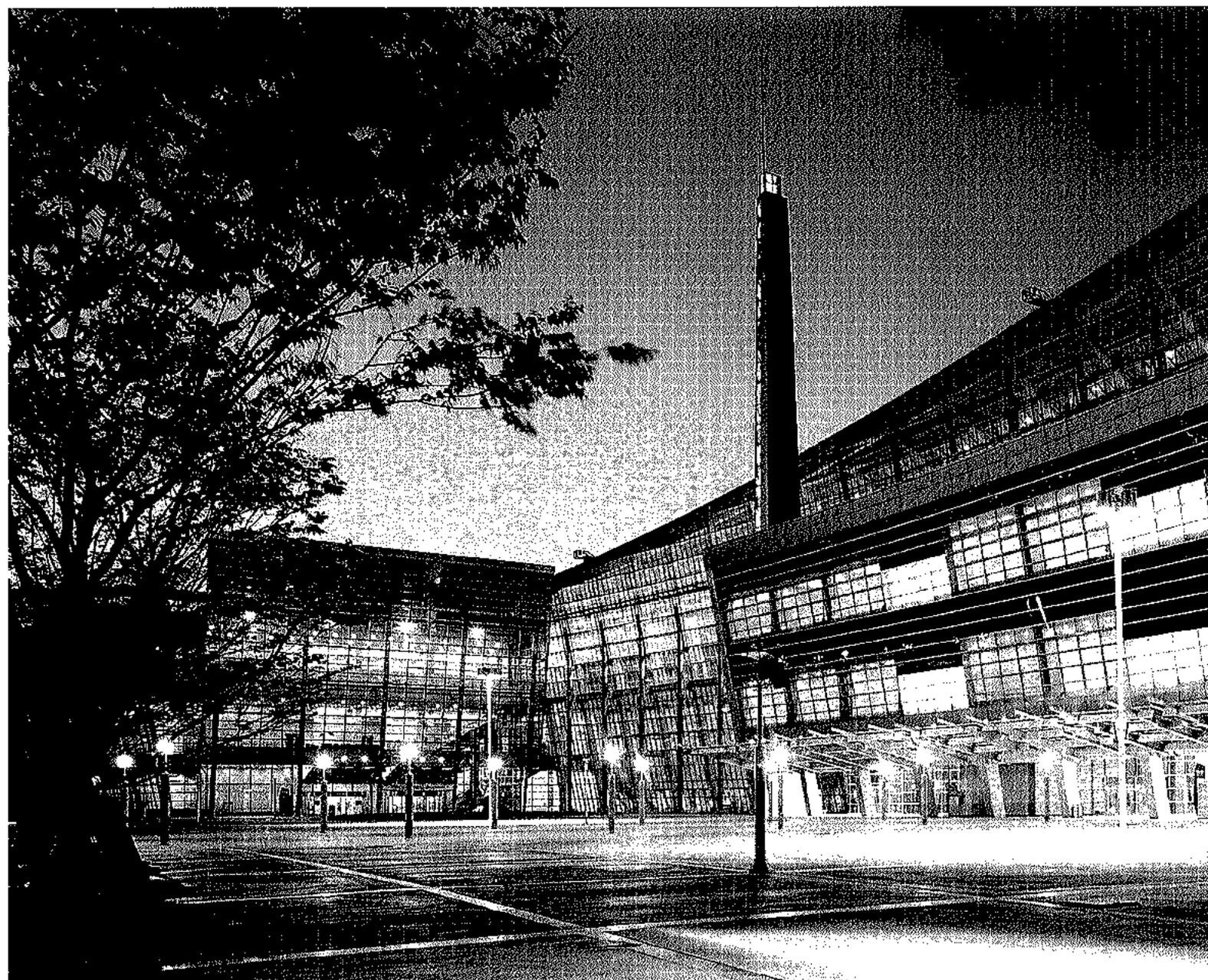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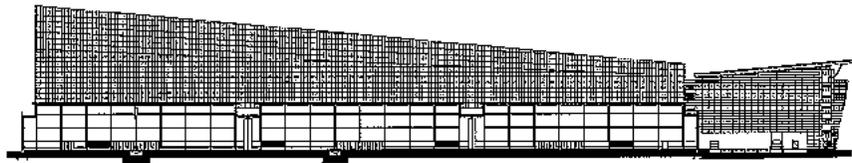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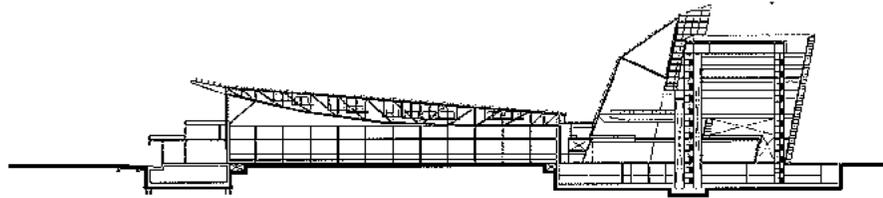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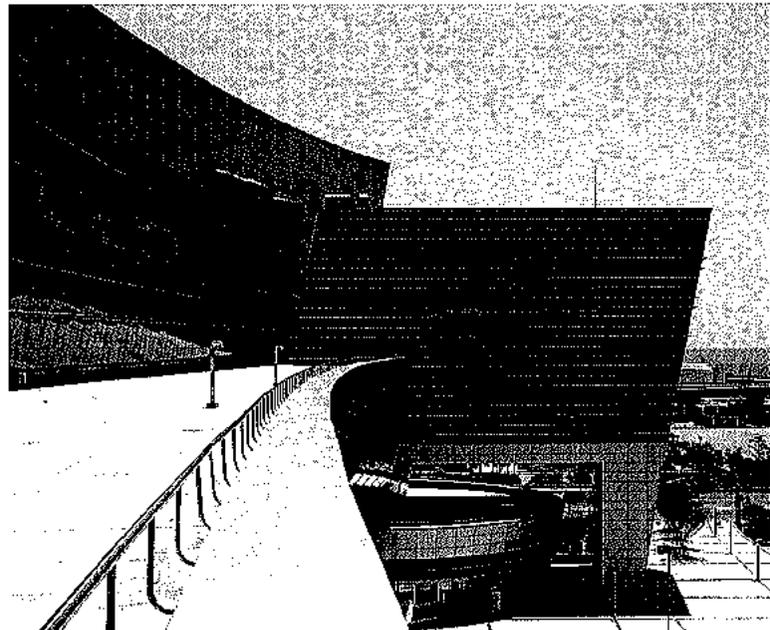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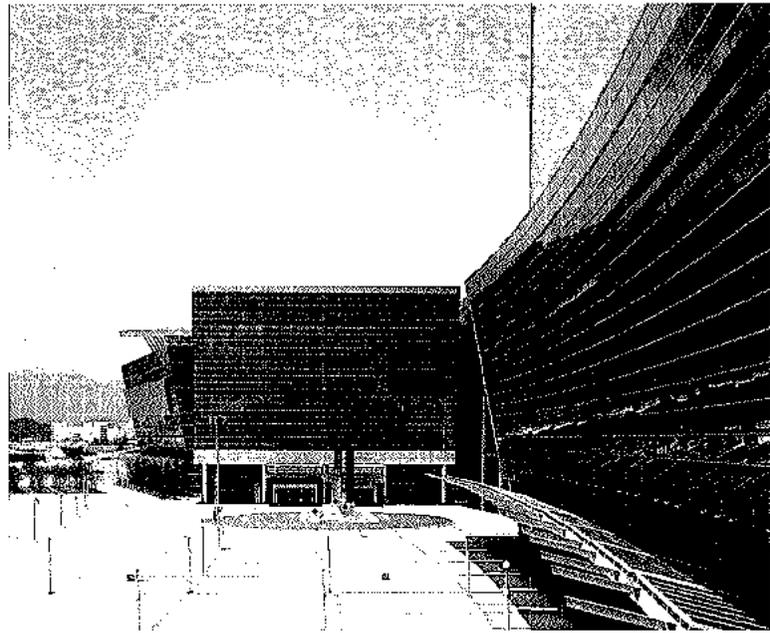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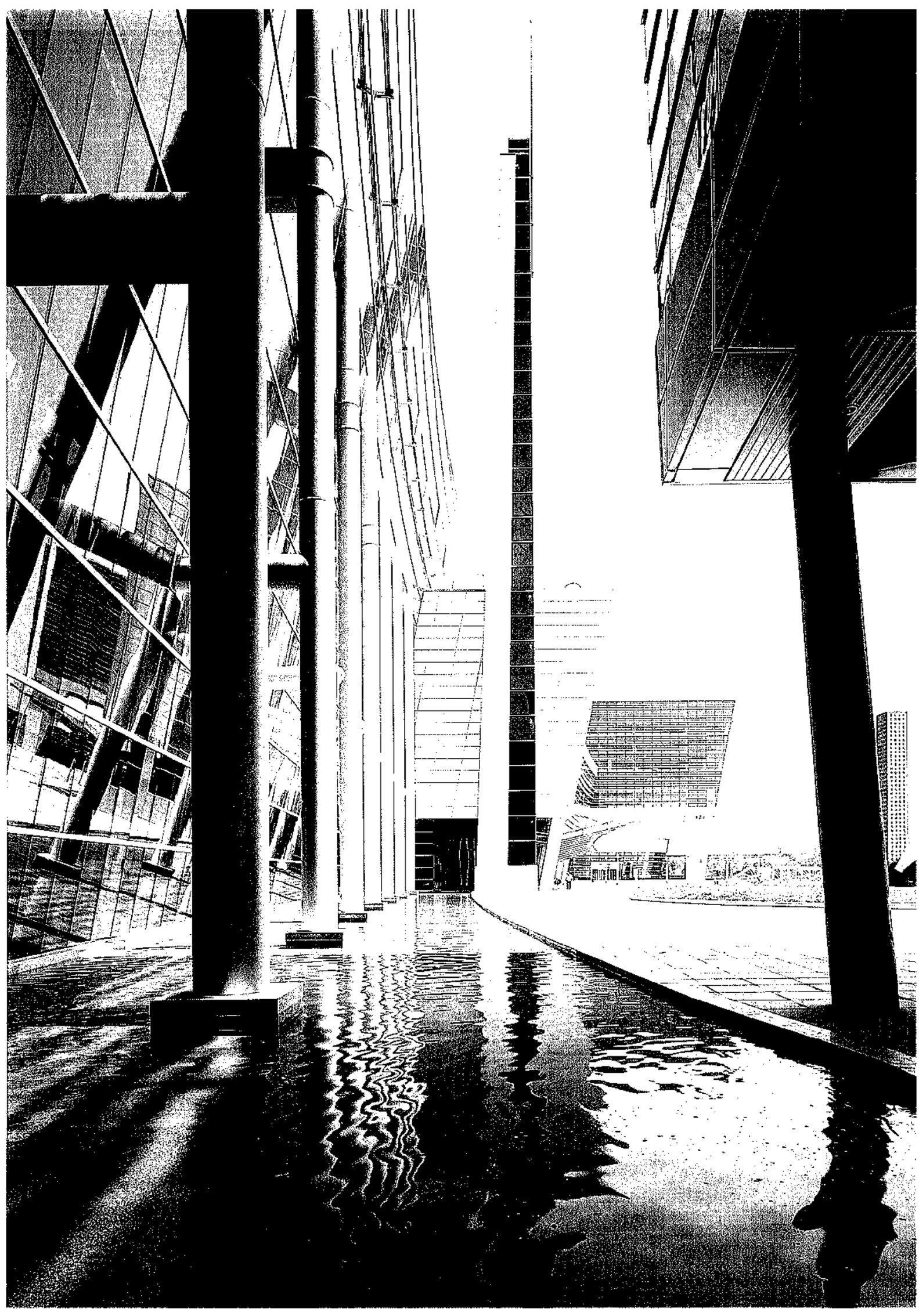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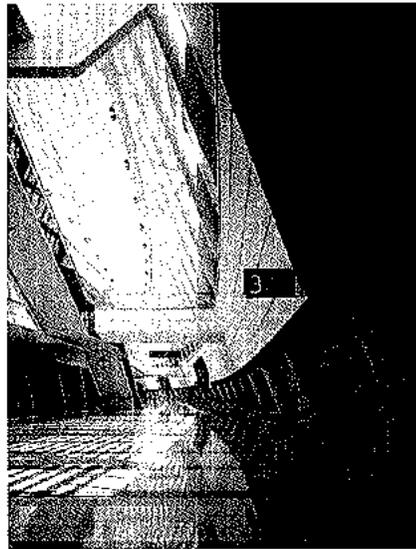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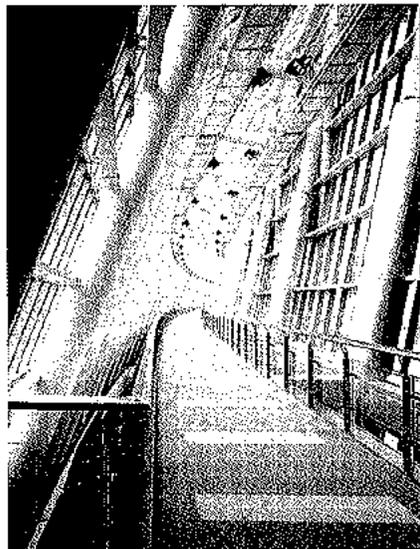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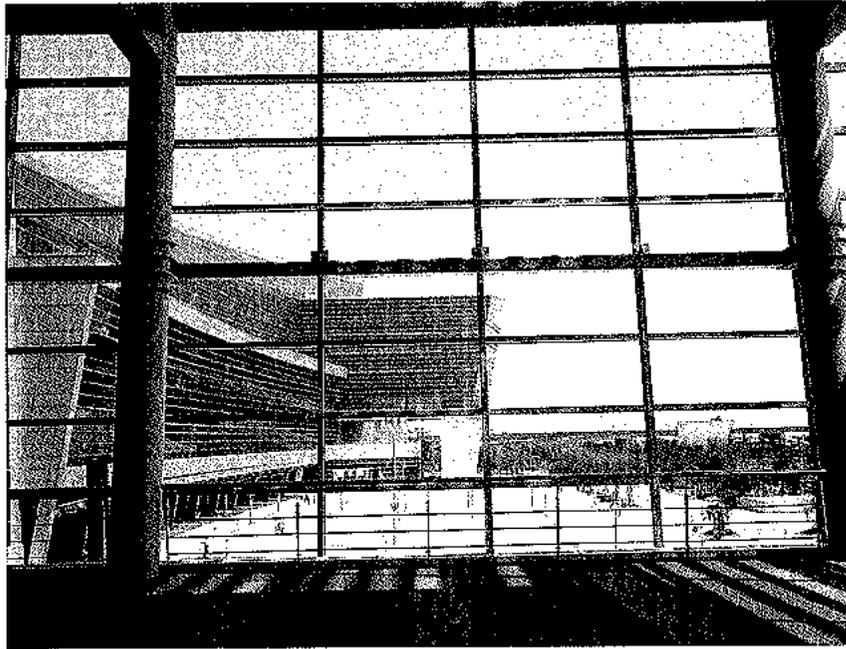
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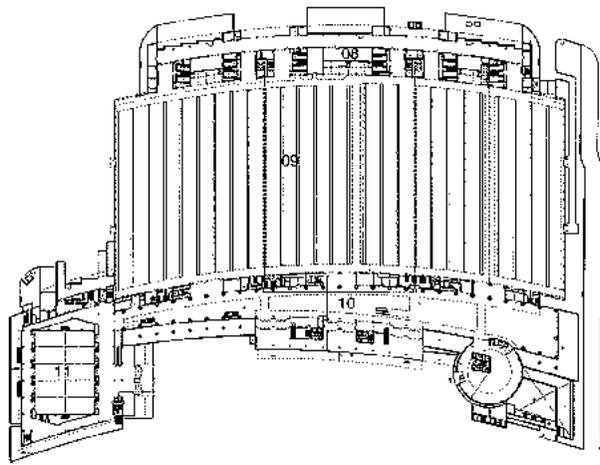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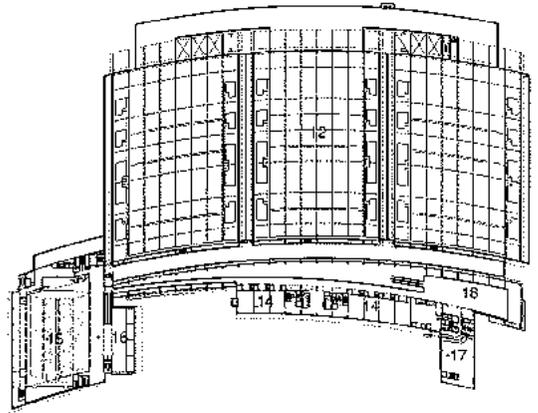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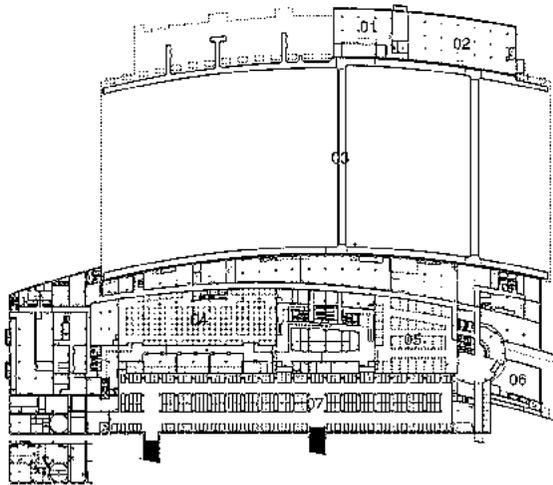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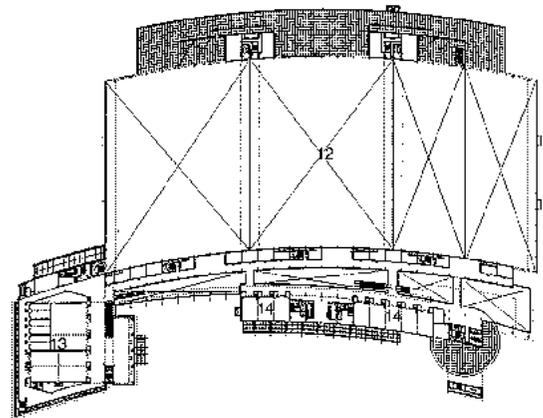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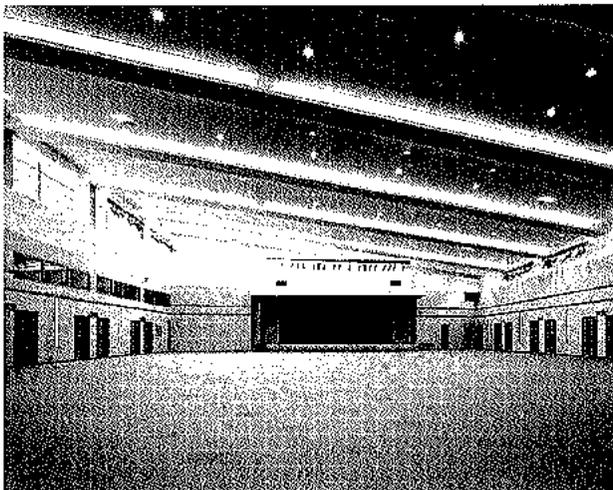
- |          |               |             |        |
|----------|---------------|-------------|--------|
| 01 전기실   | 06 선반         | 11 회의실      | 16 홀   |
| 02 기계실   | 07 주차장        | 12 종합전시장 상부 | 17 사무실 |
| 03 공동구   | 08 해양관련무속실    | 13 전시관람실    | 16 식당  |
| 04 상설전시장 | 09 종합전시장      | 14 소전시실     |        |
| 05 소풍물   | 10 Glass Hall | 15 복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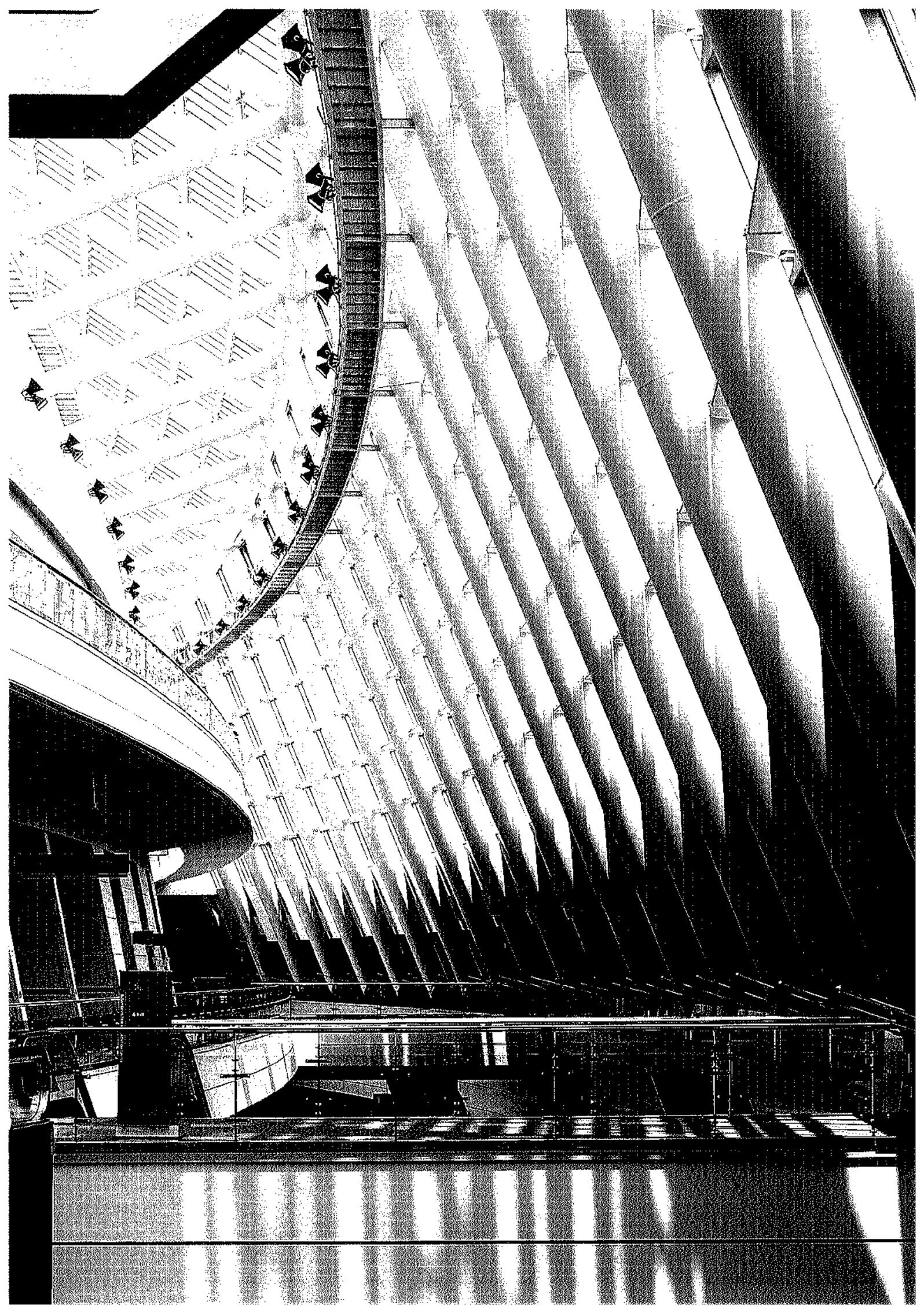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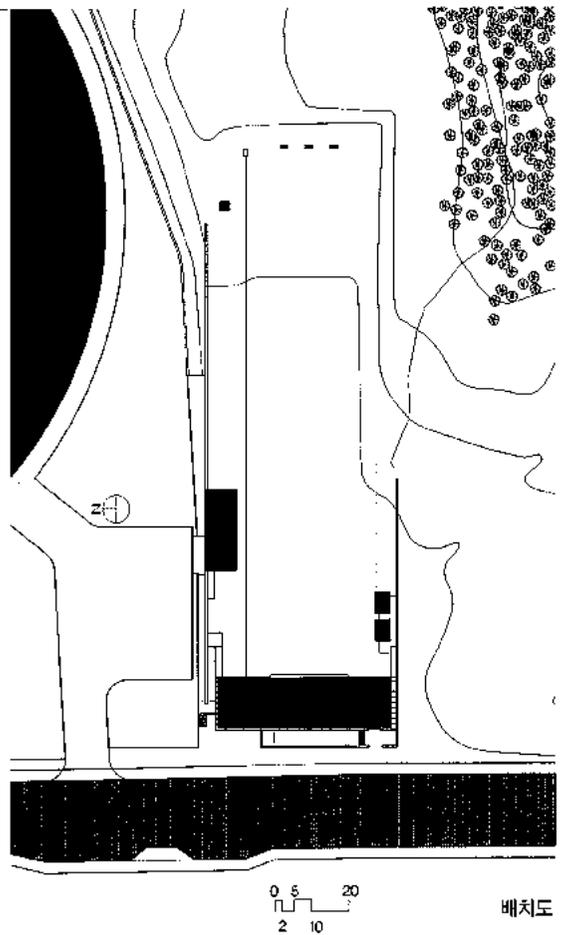
# 부천시 국궁장

## Bucheon Korean Archery Range

김승희 · 강원필 / 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ung-Hoy & Kang Won-Phil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8-3외 8필지
대지면적	9,57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건축면적	971.65㎡
연면적	1,026.20㎡
건폐율	10.1%
용적률	10.7%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마감	외장-노출콘크리트, 전벽돌, 마천석 버너구이 내장-비닐페인트, 오크무늬목, 석기질타일, 적삼목
설계담당	김주경, 김주애, 전보림
모형	전보림
구조	하우구조 신홍식
설비	기한엔지니어링
전기	새한설계 조재금
시공	대하종합건설 정정현, 김기운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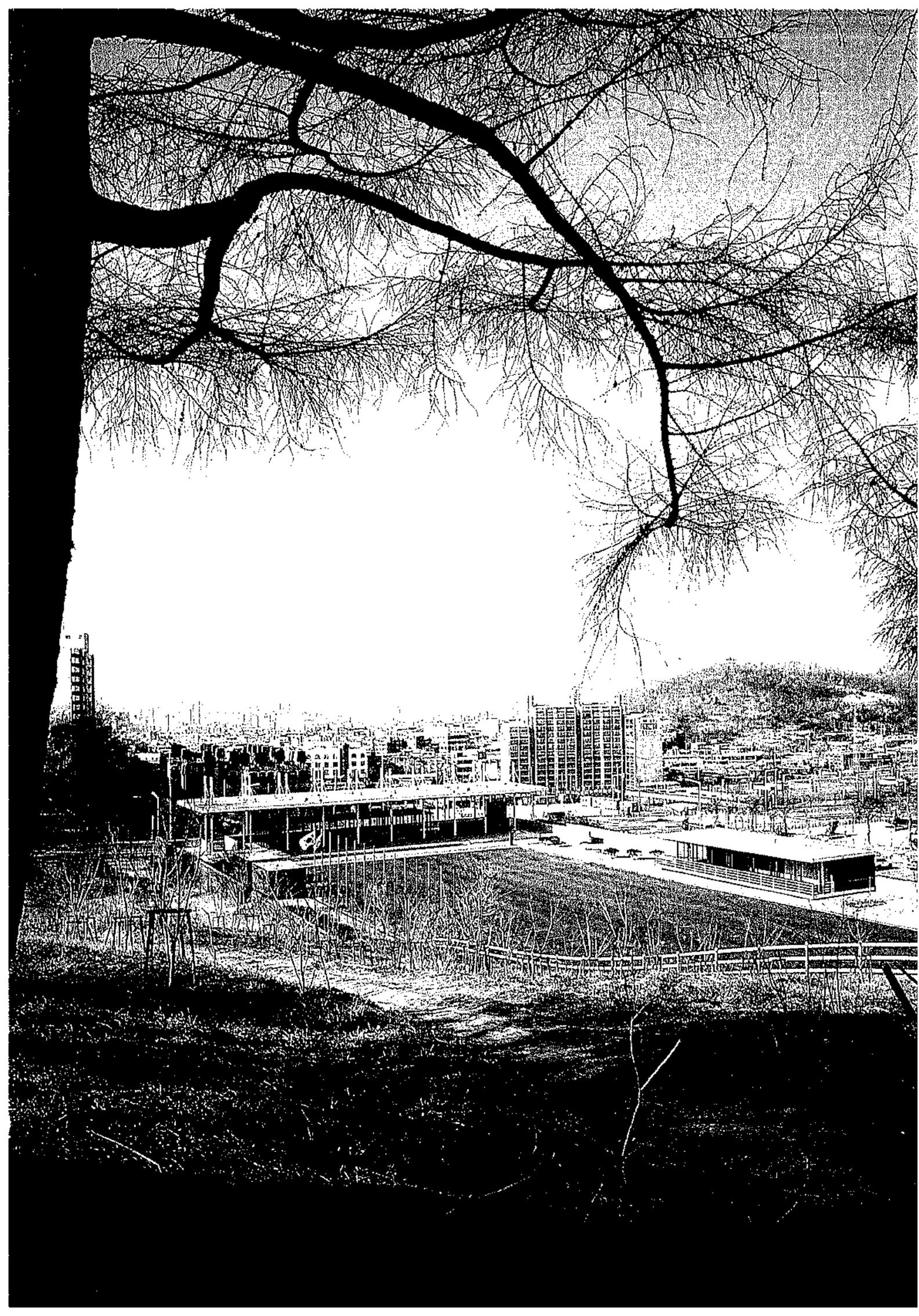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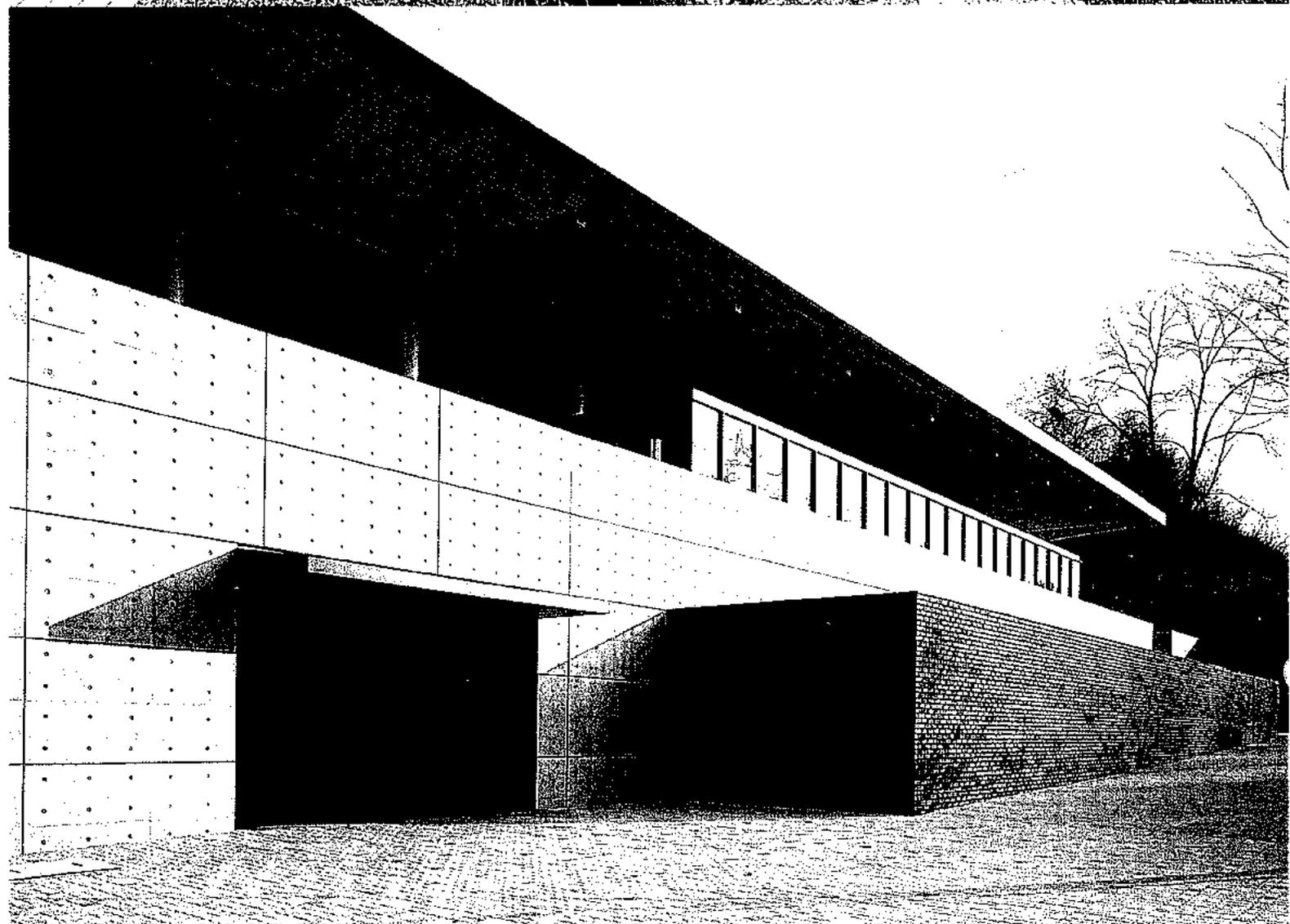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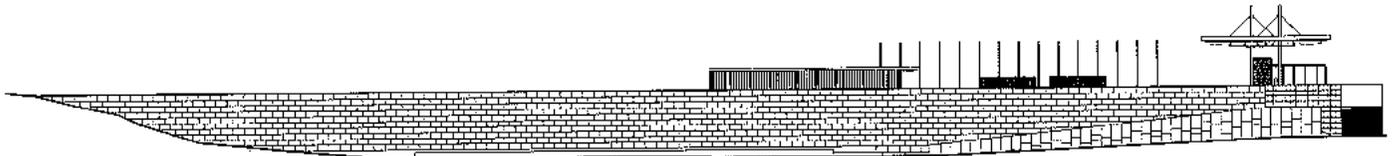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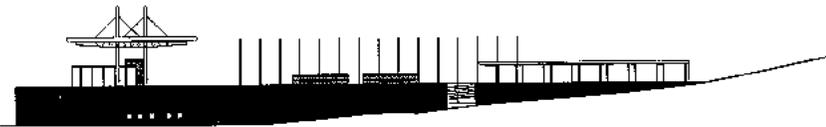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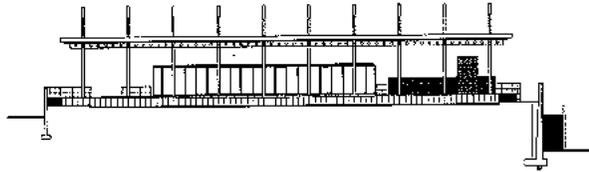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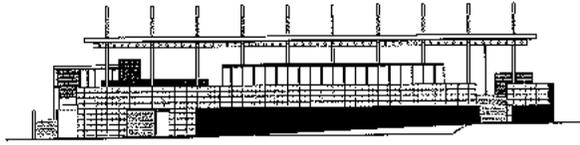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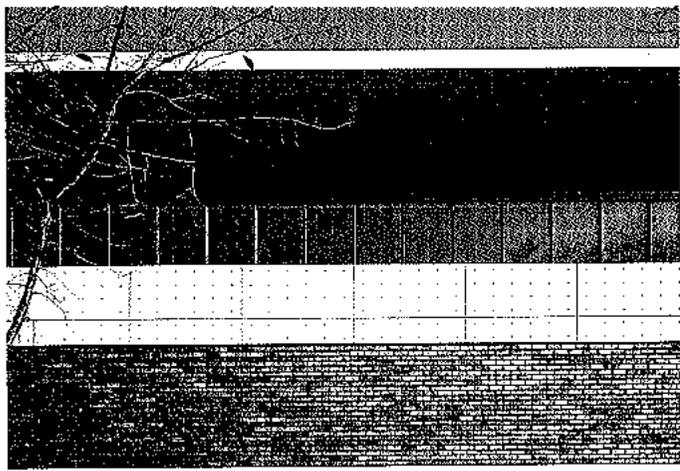
평소에 활쓰는 일을 건축하는 일과 비교하기를 즐기기도 했고, '그물을 뚫고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제목의 건축에세이까지 발표한 적이 있지만 막상 국궁장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왠지 막막한 느낌이었다. 140미터가 넘는 화살의 궤적이 필연적으로 날게 할 큰 스케일과 2미터도 안 되는 사람의 스케일이 빚어낼 패러독스, 그리고 한적한 자리에 놓여있는 어느 국궁장과는 달리 거대한 스타디움과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천시 국궁장의 입지는 건축가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 그 막막하기만 한 느낌은 일이 진행되면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게 했고, 그러나 중국에는 그러한 조건들은 국궁장의 틀을 갖추게 하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대운동장에 대응하기 위한 150미터의 긴 벽이 만들어내는 힘찬 선, 간선도로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중첩된 벽과 담, 자연과 만나는 나즈막한 경계... 이 모든 장치들은 대지의 조건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집을 이루게 한 생성의 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상반된 스케일을 완충시키기 위해 150미터의 잔디 위에 배치된 건축적 장치들, 사로 위로 살짝 들려있는 테마카페터, 전벽돌로 마감된 별동의 화장실, 열주와 같은 깃대들, 그 밖의 많은 장치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도 두가지 스케일의 합주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국궁장설계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은 활을 쓰는 것의 의미였다. 그것은 긴장과 이완이라는 소주제로 펼쳐지면서 공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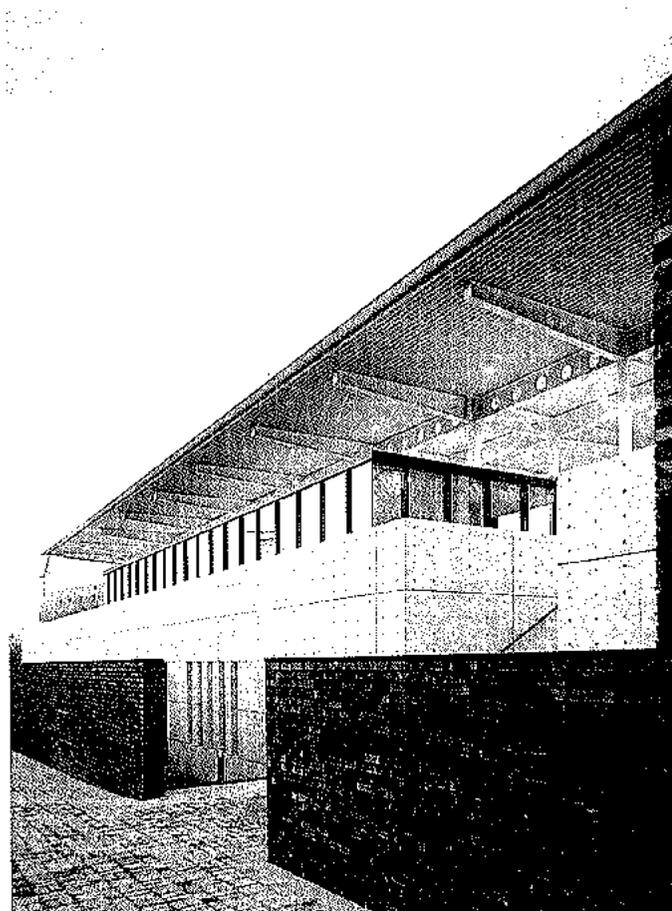
0 2 5 10 20

입면도

재료의 성격을 탐구하게 했다. 집의 스케일과 각 건물들의 배치, 부재의 크기와 울림 등, 팽팽한 긴장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계산과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의 공간은 이완의 공간과의 대비를 통해 보다 선명해질 수 있었다. 담과 벽으로 마련된 작은 마당들, 건물들 사이의 공간들은 단지 부속된 여유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닌 소중한 매력으로 빛나는 장소가 되었다. 활 시위의 팽팽한 긴장과 이완은 구별되는 것이거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기대는 관계이듯이 집의 주공간과 나머지 공간도 역시 그럴 것이며 우리 삶의 빛나는 순간과 일상의 지루한 반복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부천시 국공장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 늘 바라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그 도시가 보다 좋은 환경으로 변모하는 것과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어쩔 수없이 갖게 되는 모뉴멘탈리티를 긍정하고 그것을 파시즘의 상징이나 상업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이자 긍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시 국공장의 경우는 이런 평소의 바람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공장의 포즈는 간선도로에서는 하나의 오브제로, 운동장 입구의 마당에서는 뚜렷한 경계면으로 남쪽 동산에서는 매력적인 접근로가 되어 그 땅이 본래 지녀야 하는 성격을 분명히 성취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공원의 동산과 스포츠 단지가 이루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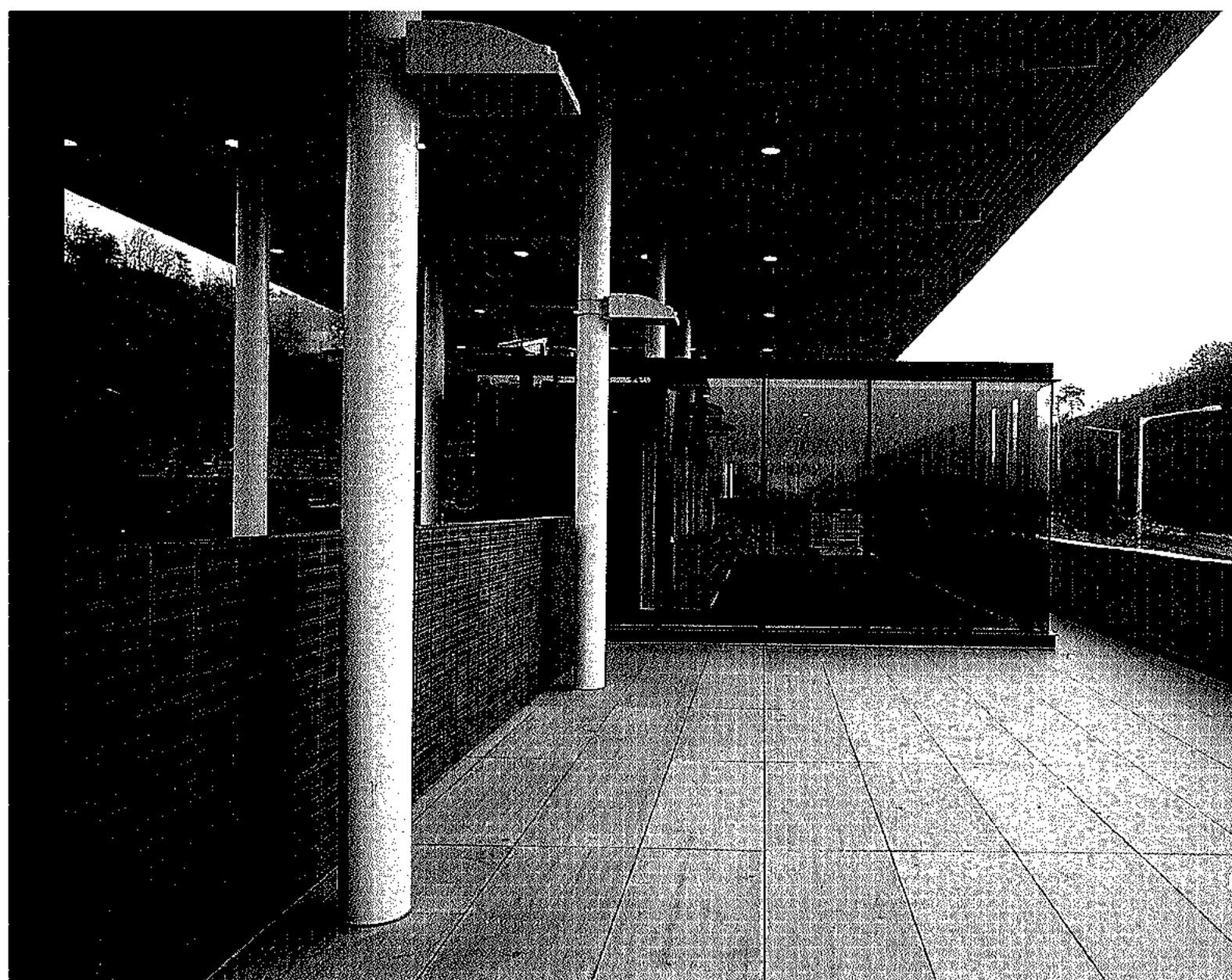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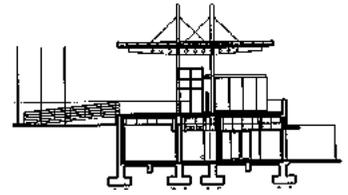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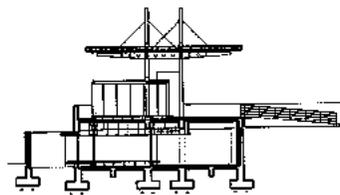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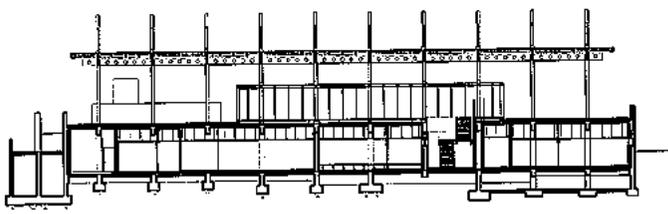
보행자의 네트워크와 160미터 잔디 사리가 만들어낼 공간의 가변성은 미래의 희망을 예감하게 한다.

구조의 균형이 만들어낸 들려있는 커다란 지붕과 그 아래 놓여진 오밀조밀한 건축적 장치들은 도시와 자연과의 적절한 관계맺기와 긴장된 비례와 이완된 공간의 풍성함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형태와 공간의 관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도 새로운 모뉴멘탈리티를 획득한다. 국공장이 활쓰는 장소 일 뿐 아니라 차를 마시고 산책길에 들르는 장소로, 결혼식이 거행되고 백일장이 개최되는 장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을 가능하게 함

으로서, 모든 시민의 장소임을 증명하면서 스스로 모뉴멘탈리티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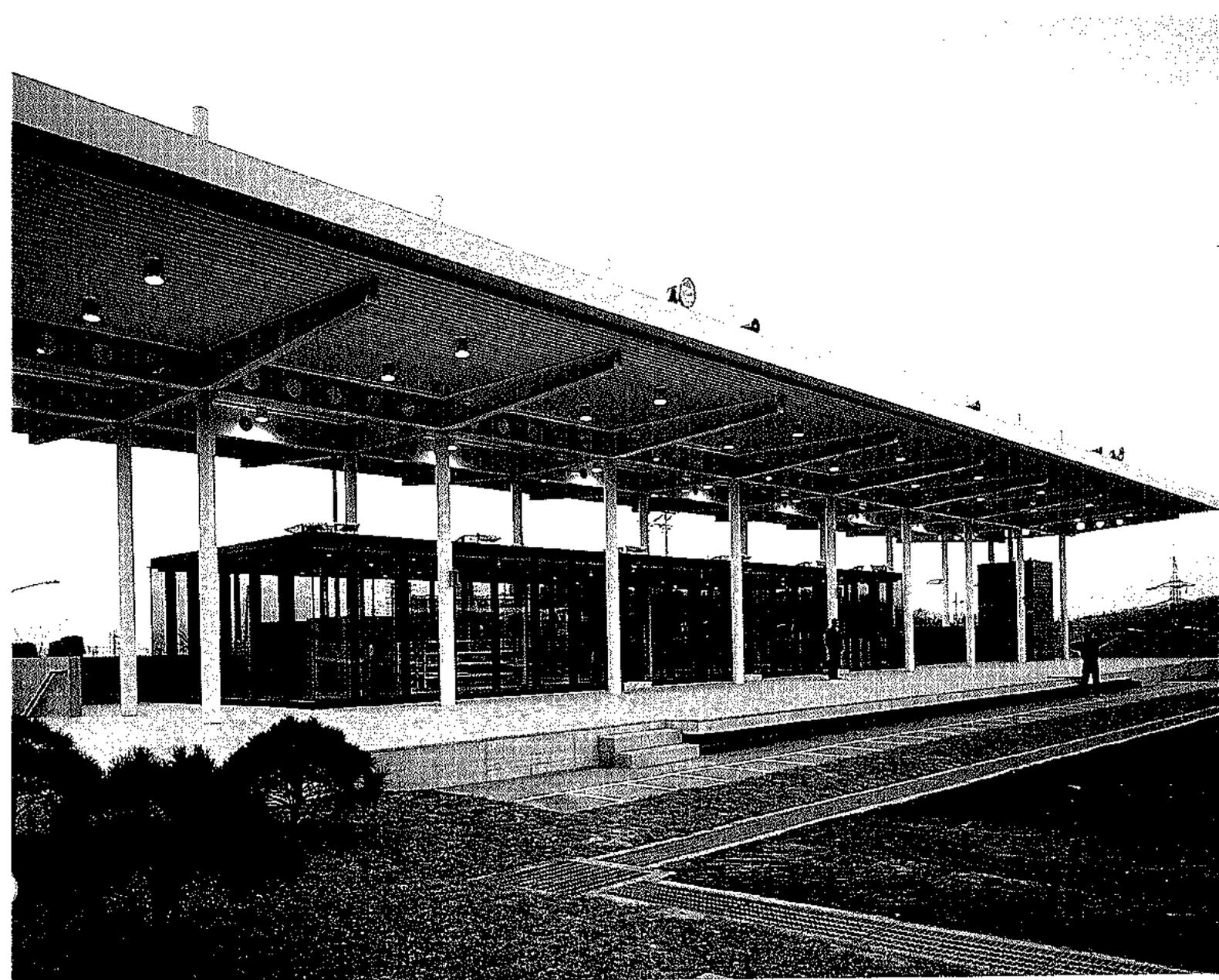
부천시 국공장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도시와 건축에 부여된 어려운 한계들이 결국에는 집을 생성하는 문법을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시에 대한 절망이 먼저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삶의 조건이 부여하는 무게만큼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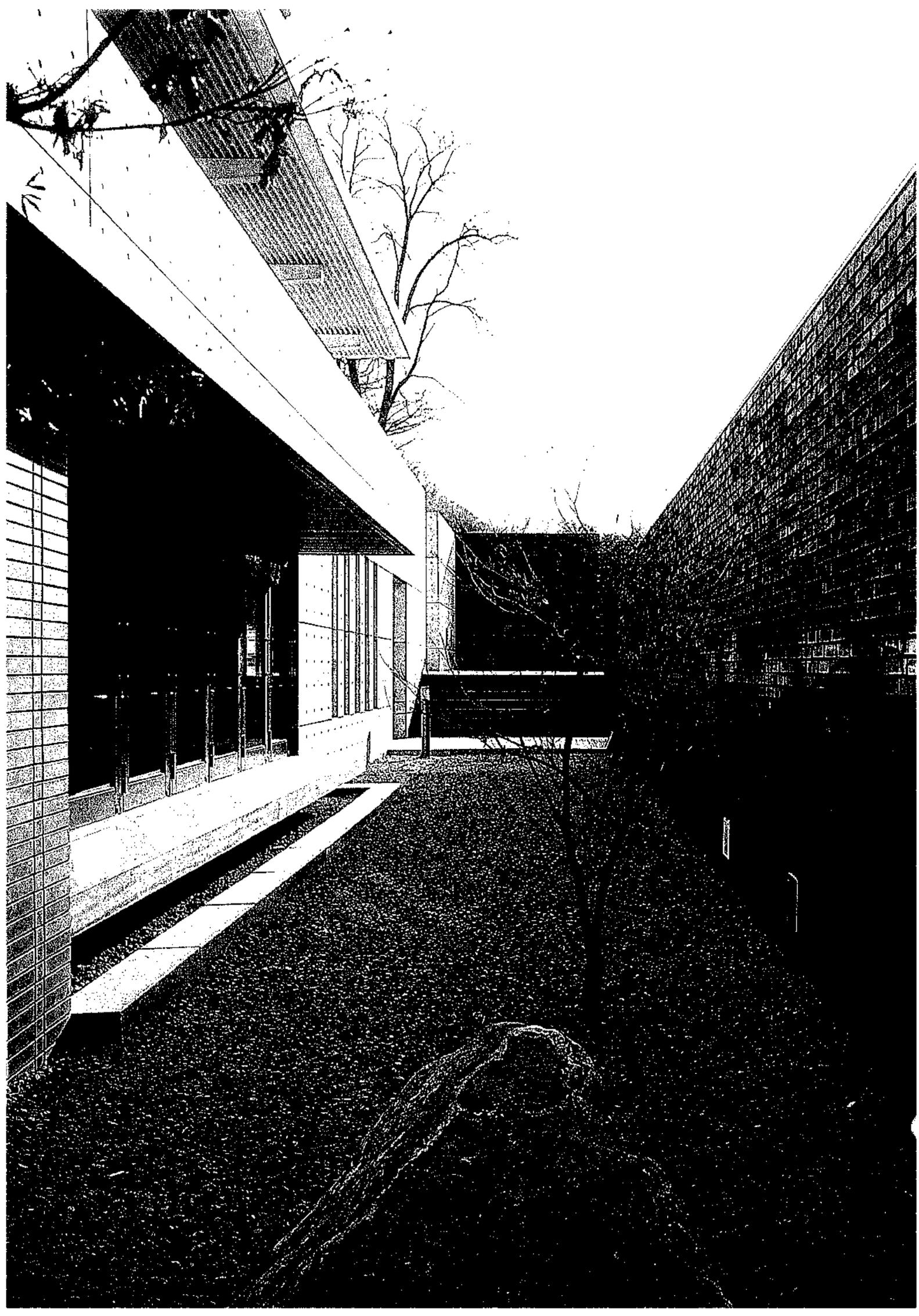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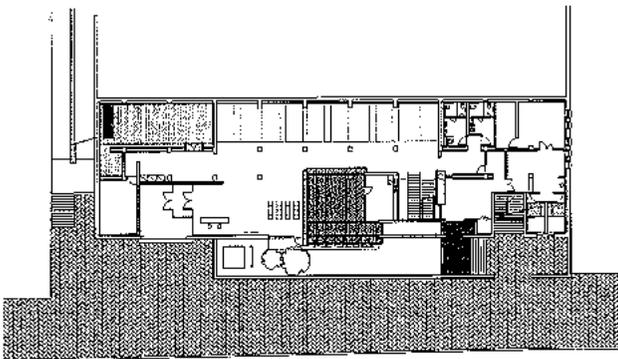


0 1 2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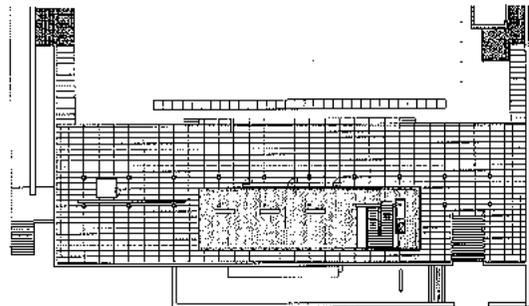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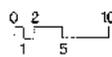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The Social Role of the Architect

소록도 자원봉사센터  
Social Service Center, Sorokdo

안길원 · 서학조 / 무영건축  
by Ahn Gil-Won & Suh Hak-Jo

전남 고흥의 소록도는 그 섬의 아름다움보다,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더 유명하다. 1916년부터 이곳은 국내 한센병 환자들의 역사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관심의 흔적들이 이 섬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2001년 11월 자원봉사자들의 숙식과 교육을 위한 센터가 완공되었으며, 무영건축은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였다. 대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좀처럼 진행하기 힘든 외딴 섬에 위치한 연면적 1,300㎡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건물을 만드는 일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었다.

건축가의 작업은 마쳤으나 이제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모으는 일이 남아있으며, 이 글을 통하여 한센병과 소록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건립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주)



## 나병이란

나병은 한센병(Hansen's disease)이라고도 한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A.G.H. 한센이 나환자의 나결절의 조직에서 결핵균 비슷한 세균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여, 1874년 *Vacillus leprae*라 명명함으로써 유래하였다.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가라(痲癩), 풍병(風病), 대풍(大風癩)라 하였고, 치료가 불가능했던 시대에는 문둥병 또는 천형병(天形病)이라 하였다.

나병은 일종의 피부과 영역의 질병으로서 특별하게 취급되는데 이는 나균이 지역·기후·인종·성별과는 특별한 관계없이 신경을 특이하게 침범함으로써 신경손상에 따른 불구를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만성적으로 세대증식을 하며, 장기간의 잠복기와, 시험관 내 인공배양이 어려워 나병 퇴치의학적 발전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나균은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매체에 의하여 균을 옮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염경로 추적에 거의 불가능하여 역학적 관리로서 임상적인 환자 추적에만 국한되어 있다. 병의 경과나 증세, 치료 등은 인간의 면역과 나균의 상관관계에 따라 좌우되는데, 자연치유되는 경우에서부터 몸의 일부에 국한되는 경우, 전신에 퍼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나병은 질병 자체 외에 사회학적·정신과적 질환으로서 사회공동생활의 융화문제를 안고 있다.



치료본관 개관(1987. 5. 15.) 새로 도입되는 현대식 의료장비들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 치료본관을 신축함.

1953년 마드리드에서는 제6회 국제나병회의(國際癩會議)가 열려 나병을 2형과 2군으로 병형을 분류하였다. 나중형(癩腫型: lepromatous type)은 L형이라고도 한다. 이 형은 나균에 대해 전혀 저항력이 없어 병원균이 온몸에 퍼진다. 특히 얼굴과 손발에 분포하는 말초신경·피부·눈에 침입하여 증세를 나타낸다. 말초신경에 병변(病變)이 생기면 피부의 지각이 없어지고, 땀이 나지 않고, 털이 빠지는 증세를 보인다. 또한 나중이라는 축이 생기며 때로는 내장에도 침입한다. 결핵양형(tuberculoid type)은 T형이라고도 한다. 나균에 대해 다소 저항력을 나타내므로 병원균이 온몸에 퍼지지 않고 일부에 증세가 나타난다. 경계가 선명한 유결핵반문(斑紋: 얼룩무늬)이 주된 증세이며, 말초신경장애가 심한 병형이다. 중간군(borderline group)은 B형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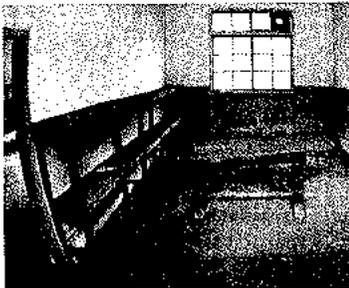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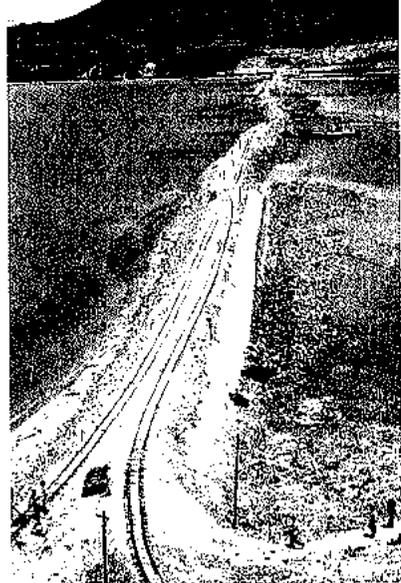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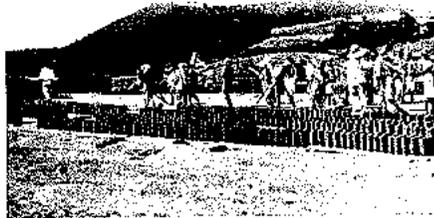
02



03



04



05

01\_ 최초의 자혜의원(1916. 5. 17.) 이곳에서 치료와 시무를 보았으며, 1933년 치료 본관이 신축된 이후에는 사생리 치료실로 사용됨.

02\_ 제2차 확장공사(1936. 12. ~ 1937. 11.) 제1차 확장공사 이후 나환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수용되는 나환자의 수가 증가하자 다시 제2차 확장공사를 단행하여 원생들을 강제로 수용함.

03\_ 모임을 갖주기 시작한 방조제 흙으로 개워진 방조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고갈, 분배, 무미, 오동 등의 내 실이 육지의 아산으로 변하여 고흥반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04\_ 단종술(斷種術)시행 1927년 3월 일본생리학회에서 단종술이 강력히 지지되어 개원 이래 폐거제를 실시하였으나 남녀간의 윤치가 발생함

05\_ 피라카 정관수술필증을 제출해야만 부부 동거를 허가함.

05\_ 벽돌공장(1933. 12.) 1933년 소록도를 세계제일의 나요양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수호(周防正季)가, 원장으로 부임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연간 140만정 생산규모의 벽돌공장을 완성함.



교황 요한 바오로 2 소록도 방문(1984. 5. 4.)  
교황이 소록도를 방문하여 환생들을 위로하고 성공과 실자기를 기증하였다. 병원에서서는 이종저기 기념비를 세우는 한편, 일반인들과 차별되는 부분을 없애기 시작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민소록도 병원은 환자의 복지는 물론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여, 환자의주의 한센병 전문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음.

병의 퍼짐이 L형과 T형의 중간이 되는 병형으로, 신체 각 부위에 흩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특이한 생체반응을 반복하여 나종형으로 된다 미정형군(indeterminate group)은 I형이라고도 한다. 초기의 증세라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병형으로 전이될지 알 수 없는 시기이다.

임상적으로는 사지에 광범위하게 또는 반점상에 국한된 지각마비의 증세가 있거나, 신경간(神經幹)의 비후(肥厚) 또는 통증이 있거나, 특징적인 피부 병변의 증후가 있는 것 등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임상증세를 결합하여 세균을 검출할 수 있으면 나병이라 할 수 있다. 나병은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후유증 없이 완치시킬 수 있으나,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병의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병의 진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구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는, 항라제의 사용, 나반응치료, 눈이나 손발의 불구 예방치료, 이미 불구가 된 부위의 교정수술이 있다.

예방관리는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환자를 격리함으로써 나병의 전염원이 차단된다고 생

각했던 시대에는 나환자 전원을 격리 수용하였다. 그러나 전체 나환자 중 극히 일부의 미관리하에 있는 환자만이 전염원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오늘날에는, 나환자로 확인이 되어 약제 투여가 시작된 후에는 전염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 피부질환자와 같이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진료관리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병형 분류를 바탕으로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환자가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나병이 만성적으로 경과하는 장기질 환인 데다 치료의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방과 복약이 나태해져 치료가 불규칙해지고 약제내성을 발전시키는데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나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국민적 이해와 참여에 의해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임한다면 나병관리를 위한 특수시설이나 기관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 소록도의 역사

하늘에서 본 섬의 형상이 작은 사슴의 형상



01

01\_ 전국 나환자들의 꿈이고, 희망인 오마도 사당지는 계속 생겨나고 사기는 떨어졌지만 환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룬다는 기대로 험거운 공사에도 신명나게 작업을 하였다.



02

02\_ 영아원 변회 부모들은 아이를 귀나러 갈 수는 있었지만 민저보거나 간아 볼 수는 없었다.



03

03\_ 월례 정기 면회 직원지대에 있는 미감아 보육소 아동과 병사지대의 부모는 한 달에 단 한 번 도로 앞 옆으로 갈라선 채 일정한 거리를 주고 인사는 것이 허용됨.

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소록도(小鹿島)는 1916년 일제의 나환자 격리수용정책에서 그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이곳에 일제는 전국을 배회하는 나환자들을 이곳에 격리 수용하였다. 초기에 일제는 송치되어온 나환자들에 대해서 일본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였다. 또한 빈틈없이 짜여진 일과표에 의하여 하루 두차례의 인원 점호, 야간의 통행 금지, 요양소 내에서 환자들이 지켜야 할 27개 사항을 적은 심독서 암송 등으로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한편 1927년 3월 일본 생리학회에서는 나병자 절멸책에 있어서 제일 지름길은 거세를 하여 유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 하여 나환자에 대한 민중술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하였다. 2대 원장 하나가 부임하면서 생활이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나, 1930년대 다시 일제의 군국주의화는 나환자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시켰고,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전국 나환자 일제 검속을 실시하여 소록도로 송치하였으며, 일단 수용된 환자는 나환자 통치 정책의 기본인 '평생 격리원칙'에 의하여 퇴원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일제는 증가하는 나환자의 근절을 위해 평생 격리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요양소를 여러 곳에 세우기보다는 소록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나환자들을 노동의 수단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하였다.

1934년에 시작된 제1차 확장공사는 1만여 평의 규모에 사무 본관, 치료 본관, 직원 관사 등 총 501동의 건물과 1천명을 더 수용할 동생리, 중앙리 병사가 세워졌다. 이후 소록도에 수용되는 나환자의 수가 매년 천명 이상씩 증가하였다. 이는 소록도 갯생원에서의 처우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환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수용 환자의 급증으로, 1936년 제2차 대규모의 확장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1년 간의 확장공사로 직원 관사, 물품창고가 완성되었고, 특히 1938년 1월에는 십자봉 도로를 개설하여 소록도 일주도로가 완성되었다. 이 일주도로는 한 겨울 꽁꽁 언 산길 4km를 맨 손으로 단 20일 만에 완성한 것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중 야심에 가득찬 수호가 부임하여 다시 3차 확장공사가 시작되었다. 3차에 걸친 나요양소 확장사업에 강제로 동원된 노역으로 원생들 대부분은 병세가 악화되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수호는 개의치 않았다. 완전히 노예상태가 된 원생들은 항거할 기력도 잃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중앙공원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원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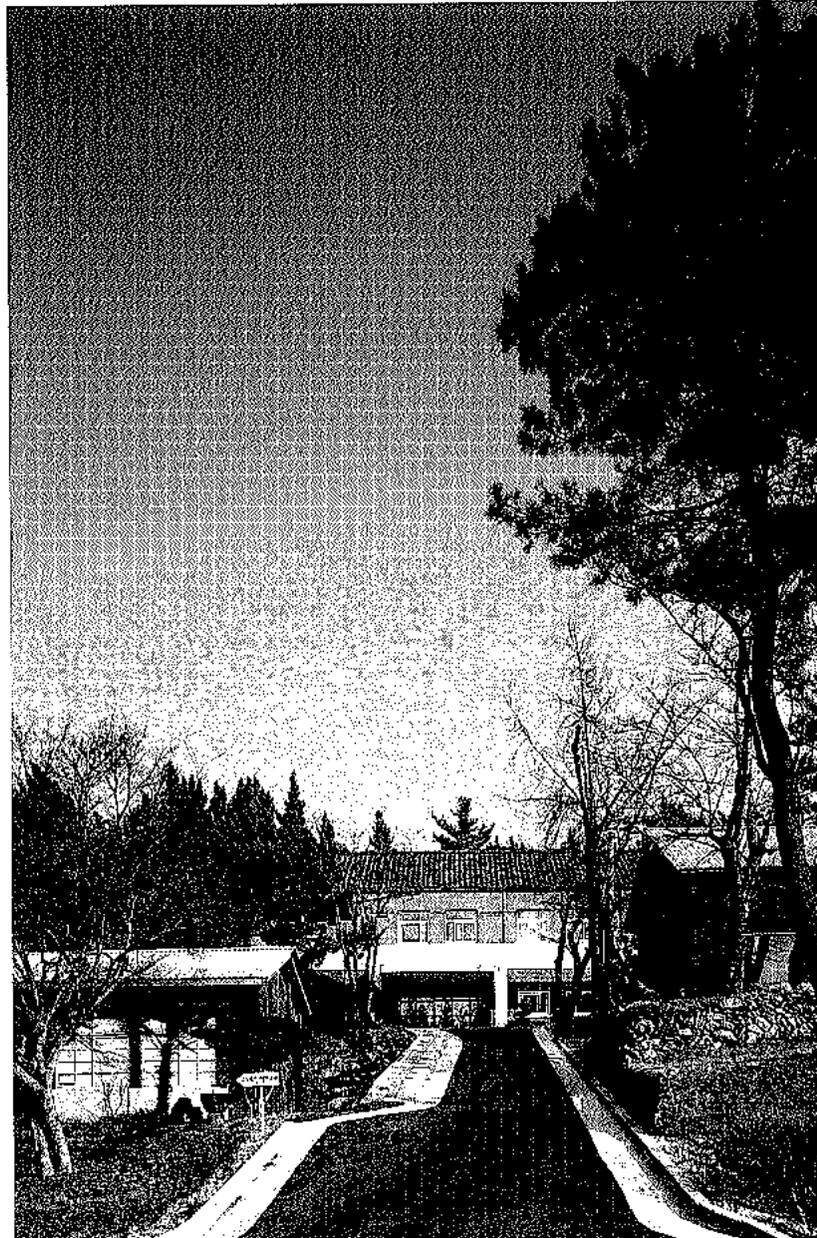
광복을 맞아 온돈 생활을 하거나, 각 요양소에 수용되었던 많은 나환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소록도에서 만도 그 해 말까지 300여명이 넘는 원생들이 탈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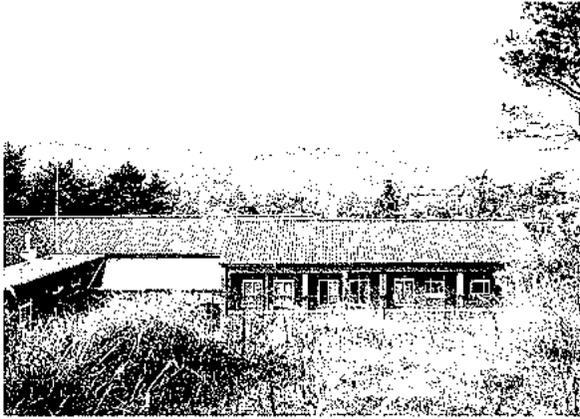
나갔다. 한편 소록도 내에서는 원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의사와 사무직원 간, 원생과 직원 간의 대립으로 혼란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 의해 84명의 원생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런 혼돈 속에 1945년 9월에 처음으로 한국인 원장이 부임하여 원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6.25전쟁중에는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직원 등이 무참히 살해 당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직원과 원생들은 큰 분열없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였다..

1962년에는 고흥출신 국회의원 손문경의 '환자 자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계기가 되어 오마도와 오동도를 연결하는 총 길이 2,753m에 1천 점보의 농토와 5만석의 양곡을 생산하고, 음성치유자 1천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오마도 간척공사가 실시되었다. 원생들은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꿈꾸며 신명나게 공사에 임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갖지못한 깊은 상처와 체념뿐이었다.

자원봉사센터 전입로와 소나무





횃등산에서 바라본 자은봉사센터 지붕과 소록도 전경

원에서는 '미소 소록도' 선발대회와 경로 잔치 등을 열어 위로하고 일상생활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생들도 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다.

1963년, 니한자의 강제 격리 규정이 폐지되어 강제 격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도민증이 발급되고, 호적을 부활시켜 선거 등 각종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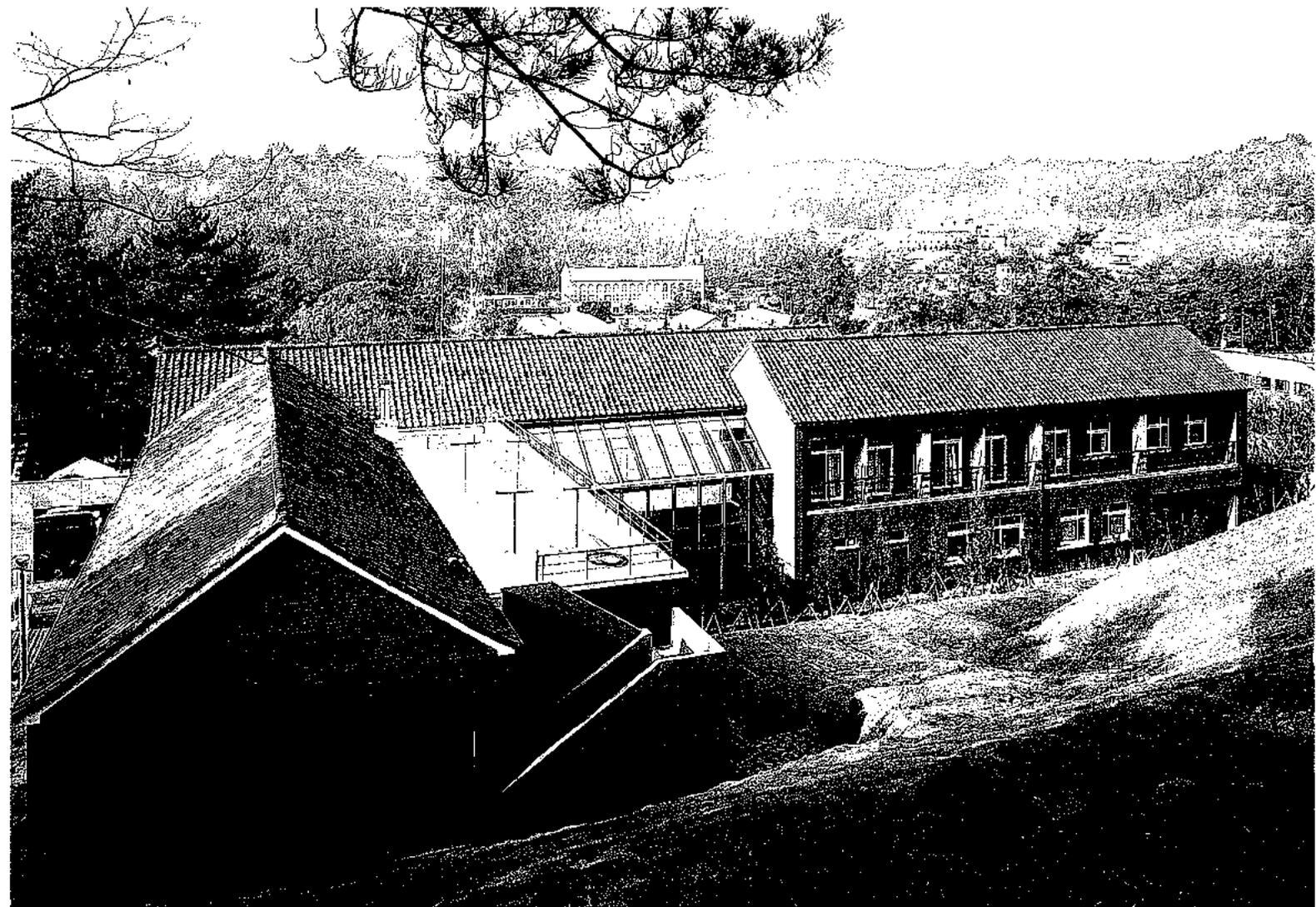
1966년에 반세기를 맞은 국립소록도 병원은 개원기념 행사를 원생 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명절에 고향을 찾듯 정착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구경꾼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같은 해 정부는 벨기에의 자선단체인 다미안 재단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구라사업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있던 소록도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물리치료실과 입원실 마련, 정형수술 등으로 원생들에게는 많은 의료 혜택을 주었다. 또한 아무 거리낌없이 환자들을 대하여 직원들에게는 나병의 전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없애는 데도 기여하였다.

1966년에 정부는 국립소록도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나양소를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소록도병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나관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립의산병원, 국립부평병원을 폐쇄하였으나, 의료시설의 현대화, 사회 복귀 기능자의 퇴원조치 및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등의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74년 병원의 질서와 면모를 일신하고 효율적인 나병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구걸, 부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입원 절차의 간소화, 면회자의 양성 환자와 동숙 금지, 그리고 원장의 재량권을 늘리는 것

횃등산에서 바라본 자은봉사센터 지붕과 소록도 전경



등이었다.

기존의 정착장으로 퇴원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지만, 거의 정원이 차 있어 마땅히 퇴원할 곳이 없었다. 이런 원생들을 위하여 1976년 전남 승주군 외서면에 새로운 정착장인 '한동농장'을 만들고 99명의 원생을 이주, 자립하게 하였다.

원생 자녀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던 당시 김정희 약사와 송정희 간호원은 각각 성금을 기탁하여 진학을 돕고자 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태어 기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원생들은 두 사람의 성씨 첫 글자를 따 '금송장학회'라 이름짓고 1983년부터 원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금송장학회는 이후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여 기금이 늘어나자 1984년 8월 '금송복지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하여 원생들에게 용돈도 지급하고 있다.

#### <소록도 연혁>

##### 일제시대(1916~1945)

1916. 5. 17. 소록도 『자혜의원』개원

1916. 7.~1921. 6. 초대 아리가와 원장

1934. 3.~1935. 9. 제1차 확장공사 (사무본관, 치료본관, 직원관사, 병사)

1936. 12~1937. 11. 제2차 확장공사 (소록도 일주도로, 물품창고, 직원관사)

1939. 1.~1939. 11. 제3차 확장공사 (동생리 선창)

1939. 12.~1940. 4. 중앙공원 조성

##### 광복이후(1945~1981)

1945. 9 제6대 김형태 원장 (한국인 최초 부임)

1962.~1970. 영아원, 보육소 운영

##### 6.25전쟁과 그 이후

1962. 오마도 간척공사(오마도와 오동도 연결공사)

1966. 4. 15. 다미안 재단과의 협정 조인

##### 국립소록도병원(1982~현재)

1982. 12. 국립소록도병원 개칭

1984. 5. 교황 요한바오르Ⅱ 소록도 방문

1987. 5. 치료본관 개관

1995. 4. 자원봉사자의 집 개관

1996. 10. 제26대 김윤일 원장 취임

2001. 11. 국립 소록도 자원봉사회관 개관

자원봉사센터 정면 : 빅공영터 지붕과 적벽돌은 주린한영피 조차림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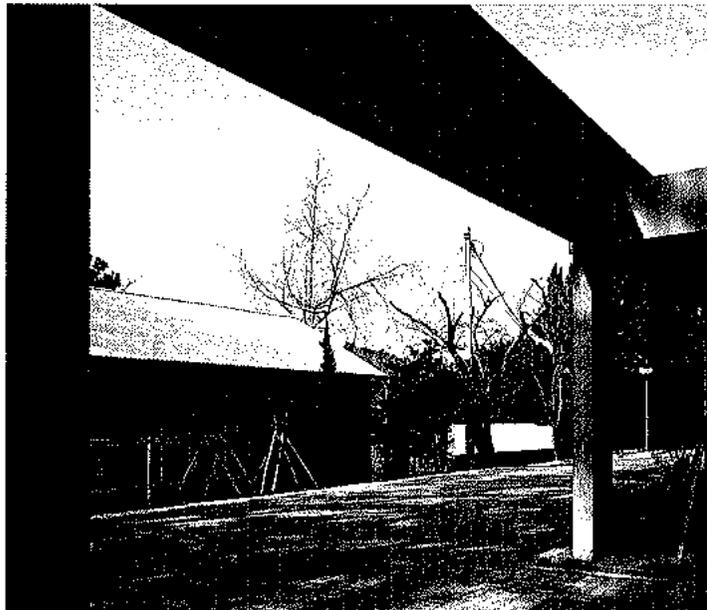




건물 입구



아트리움의 유리창에서 바라 본 뒤편의 자연 풍경



앞다닥

## 자원봉사센터 건립

한센병 환자의 노령화 및 불구도 심화와 치매, 정신질환 등 중증, 중복 질환으로 인한 자력생활(대소변, 목욕, 식사, 외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간병 및 생활조력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 환자로서 자체 검진 및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타 병원 입원 진료가 필요하나,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주어도 간병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인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원생들의 장애 정도 및 연령 특성상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하루 70~80명 정도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많은 자원봉사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1999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일 봉사이고 1주일 이상 중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이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다행히 정부의 자원봉사 권장 등 복지사

회 구현정책 추진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학생은 물론 각 종교, 사회단체와 일반인의 자원봉사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숙식과 휴식을 제공할 시설이 부족하여 수용원생의 숙소를 임시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2000년 5월 대통령 영부인의 소록도 방문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노력하였다. MBC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을 통해 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지원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총괄을 담당하였으며, 설계와 감리는 무영건축, 시공은 삼승건설이 수행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에 세워진 소록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숙식과 휴식할 공간을 제공해주고, 현장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센병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의 메카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 일정>**

- 2000. 5. 25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소록도 방문
- 2000. 8. 1 MBC "청찬합시다" 프로그램 방송(2회) - 상금 5억원 모금
- 2000. 8. 3 소록도자원봉사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대한주택공사 사업총괄
- 2000. 10. 16. 삼성 10억원 기탁
- 2000. 11.~12. 무영건축 설계
- 2001. 1.~9 삼성건설 시공
- 2001. 11. 준공

**설계소요**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212번지 외 4필지
- 건축면적 : 901㎡
- 연 면 적 : 1,309㎡
- 규 모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설계책임 : 안길원, 서학조
- 설계담당 : 최효선, 유창우, 심상철, 문택준
- 협력업체 : 정일구조, 우원설비, 지화기술단, 한림조경, 유경기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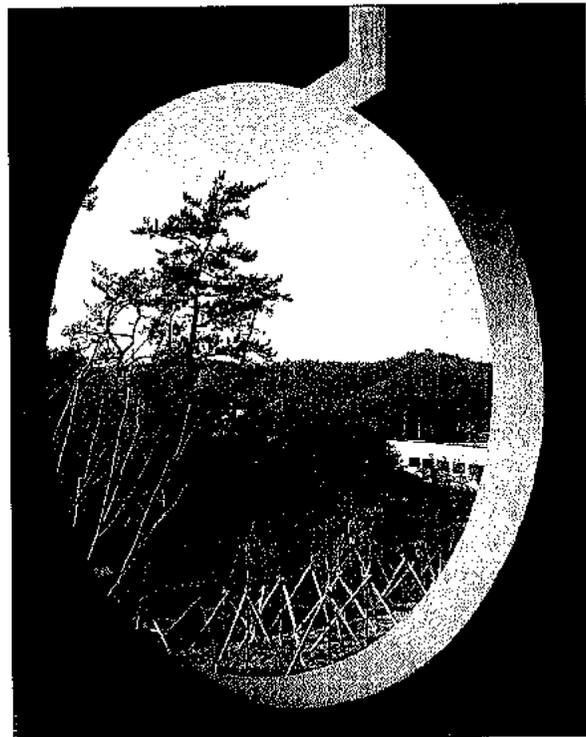
소록도는 사슴의 모양을 닮은 섬이라는 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반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기후가 따뜻하다. 이처럼 따뜻한 기후와 육지에서 가까운 거리는 이 섬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 되었다. 소록도에는 일곱 개 부락이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그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그 삶의 형태가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면적 특성이 있다. 이는 건축물들의 형태가 과거의 것을 유지하거나 불뚫없는 형태로 수선하여 사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섬 전체에 조성된 조경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 섬의 단일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박공 형태 지붕과 2층의 낮은 층고, 형태보다는 기능이 강조된 설계개념을 설정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병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체험교육이며, 나머지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들의 숙식을 위한 시설이다. 이를 고려하여 대강당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숙소로 쓸 수 있도록 온돌바닥으로 설계하였고, 강사실들은 때에 따라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름문으로 계획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기존의 대지형태에 순응한 것으로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향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또한 주변의 오래된 건물 및 조경시설과 조화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재료인 적벽돌을 주요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1층에는 교육 및 관리시설을, 2층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편안하고 인락한 숙소를 두어 수직적인 구성을 하였으며, 1층 입구부의 아트리움은 하늘로 열린 창으로 수직적으로 빛이 투과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아트리움의 유리창을 통해 뒤편의 자연적인 풍경을 내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즉, 이 공간은 사용자들이 건물 내부에서 머물 수 있는 빛과 자연으로 충만한 공간이 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끝으로 소록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공공의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건축가로서 진정 의미있는 일이었으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



계단에서 바라본 소록도 풍경



자원봉사센터 진입로 주변의 숲밭

## 건축가의 선비정신

### Noblesse Oblige of Architect

서보광 / (주)동성건축사 사무소  
by Suh Bo-Kwang

아다시피 몇 년 전부터 선비정신이나 선비에찬론이니 하는 것이 심심찮게 저널리즘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적 인간상이란 나라나 시대마다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선비가 우리 사회의 이상상(理想像)이었던 것은 그 당시 양반 신분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유럽에 기사도가 있고 일본에 무사도가 생긴 것도 제각기 중세의 봉건제가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한 인간상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이처럼 전 시대적 인간상인 선비가 오늘날 왜 새삼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예찬까지 받게 되었을까?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하고있는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의무(Oblige)'를 다해야만 '명예(Noblesse)'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유럽의 기사도 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귀족 사회의 전통적 모럴은 근대의 1,2차 세계대전이나 가까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왕족이나 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선비 또한 중세 유럽의 기사도나 일본의 무사도처럼 조선왕조 5백 년간 양반들의 이상적 지식인상이었다. 선비란 단순히 비민중적이면서 비세속적이고 공리 공론(公理空論)을 일삼는 관념적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나라가 위태로우면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싸우는 등 충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선비정신이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에서 귀족이나 어떤 특권층을 지키려는 일종의 지구책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층이나 특권층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며 일반 민중에 앞서서 숭선 수범하려는 자세는 국민정신을 결집시키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급사회도 중세도 아닌 지금, 필자 또한 귀족이나 선비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왜 선비정신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어려모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때일수록 권력을 가진 권력층은 물론이고 각계 지식층에게 그런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여러 문제들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축계의 문제만 봐도 그렇다. 너무 어렵고 흐트러져 있다. 여러 매체들에서 올해의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이나 상승 중이나 하면서 떠들 어대지만 아직까지도 피부에 느껴지는 경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그런 매체들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건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인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건축계 전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설계사무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황을 겪고있는 많은 설계사무소들은 장래에 대한 어떤 준비나 기대도 없이 아예 일손을 놓고 있거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건축가들의 사정은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근년 들어 양산된 많은 건축사들의 경우는 더 심한 환경에 처해있다. 일다운 일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은 경비에도 못 미치는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일만 준다면 이리저리 물려다니고 있다. 그들에게 일의 성격이나 참다운 건축이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난개발이건 아니건 그저 개발은 일감의 창출이라는 복덕방적인 사고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설계비는 보장받게 하는 내부적인 장치나 룰이 존재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장치도 룰도 사라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비가 판을 치는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설계경기에 정력을 낭비하거나 최소한의 경비도 보상받지 못한 채 텅핍으로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건축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하나도 아닌 건축단체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득권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만 힘을 쏟을 뿐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경까지 왔으니 건축가를 노동자로 분류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이나 복덕방업자나 집장사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개화기에 조선을 찾아온 유럽의 선교사나 여행자들은 조선 선비들의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면서도 빈궁 속에서도 그 태연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차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도 있다.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가의 정신까지 요구한다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현실 역시 우리 건축가들이 자초하고 있는 일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말을 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건축전문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야 하는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도 오랜 동안 실무와 이론교육을 터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 시대의 공간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뚝뚝하게 펴고 건축을 문화적인 행위로 이해시키고 건축가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

의약분업사태에서 보여준 의사나 약사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들은 사회에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시켰고 인정받고 있지만, 건축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도를 넘은 주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말은 해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인인 건축가들의 선비 정신이 아닐까.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다음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건축에 첫발을 띄며 가졌던 생각이 그림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세상이 힘들다하여 세속에 찌들지 않으며, 겸허한 자세로 역량을 키우며 묵묵히 일하는 건축가. 잘못된 건축계에 대하여 당당히 얘기하고 실천하는 건축가. 그런 건축가가 정말 선비같은 건축가가 아닐까? **■**

## 지구단위계획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건축과 도시의 간극

### Rift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Revealed in Discussions on Urban Planning

김상길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Gil

우리의 도시는 실로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커져왔다. 이러한 우리의 도시를 수년간만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놀란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어떻게 이처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놀라고 그리고는 이내 어찌면 모두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의아해 한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숨 가쁘게 짓고 또 지어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건축은 바쁘게 이루어져왔다. 건축가들은 끝없이 채워져 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저렇게 다 채워지고 나면 과연 내가 설계할 땅이 남아날까 걱정하고, 둘째는 이러한 건설의 프로세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가이다. 거의 다 채워진 우리의 도시를 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도시에서 아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도시인은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그 평수에서 혹은 장소에서 조금 다를 뿐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형태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의 아파트는 가장 기능적이고 반 브르쥬아적이어서 아주 싼값에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발달된 교통수단은 이러한 아파트 단지와 직장, 학교, 백화점까지 효율적으로 연결하였다. 1929년에 개최된 제2회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서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은 서민에게 주거공간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는데, 바로 우리의 도시가 그 규범을 가장 모범적으로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됐다. 르 꼬르뷔지에가 주장했던 기능적 도시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도시에서 재현된 것이다. 그러나 거장 르 꼬르뷔지에의 주장은 이 제안을 발표한지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유럽에서부터 젊은 건축가 그룹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현대 건축가들은 그러한 기능적 모더니스트그룹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능적인 주택들이 모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지워지고 가장 잘 팔리는 건축물이다.

우리의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은 성격이 실용적이고 담백해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닭장같은 아파트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내부공간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걸모습은 노출 콘크리트에 수성 페인트를 칠한 건물이 자신의 체면이나 권위에 아무런 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남향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다.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향이나 서향집에 들어간다. 우리도시의 아파트는 북향집은 절대 없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 동향이나 서향집이 전체 세대수에 10%를 넘으면 그 비율만큼 평가점수에서 감점된다. 우리의 도시에서는 동네 이름은 아파트를 공사한 건설회사의 이름에 따라 불려진다. 현대1차, 우성3차 등. 그 안의 각 동들은 건물의 형태나 건축적 성격으로는 도저히 서로를 구분할 수 없어서 숫자로 각 집들을 구분한다. 그래도 우리의 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항상 잘 팔리기 때문에 시행자(자본가)에게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 준다. 더 지을 땅이 없는 것이 한이다. 웬만큼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아파트들은 다시 짓자고 부추긴다. 다시 지으면 집주인도 돈벌고 건설사도 돈버는 소위 윈윈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는 기본설계만 하면 다음 설계는 할 필요도 없다. 다른 단지에 썼던 도면을 복사만 하면 끝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축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그러한 제안 중에 가장 중심에 있다.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건축형식에 있어서 물개성적 도시풍경의 극복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의 도시건축이 무미건조한 원인이 건축의 양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근대건축의 거장들에게 보내는 찬사는 그들의 건축의 저변에 깔려있는 치열한 사고의 밀도와 끊임없이 드러나는 천재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 때문이다. 새로운 양식을 제시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축가는 하나도 없다.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 모양이 된 것은 근대 기능주의적 건축양식을 만들어 낸 그들 때문이 아니고 싼 집을 대량으로 지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것에 편승한 건축가와 그것을 너무나 잘 받아주고 잘 살아주고 있는 우리 도시인의 문화수준에 기인한 것이다. 미스 반 데 로에의 판스위스 주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전율을 느낄 만큼 내 가슴 깊숙이 박혀있다. 그 집은 안도 다다오의 표현에 의하면 폭력성과 광기를 간직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였다. 그 집은 산다는 것 자체가 경이라고 해야만 한다.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의 힘겨운 사고의 궤적은 세계의 모든 건축가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

했다. 그러나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를 보면서 많은 건축가들은 코웃음을 쳤다. 미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적어도 필립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축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건축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건축의 역사 안에 가장 지적이고 가장 열정적인 한 흐름이었을 뿐이다. 근대건축이 우리의 도시를 책임질 아무런 근거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원화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에 살고 있다. 엄청나게 넘쳐나는 정보와 극단으로 치닫는 모든 분야의 현상들은 우리를 더 이상 안정적인 패러다임에 묶어 놓지 않는다. 현대건축은 전통건축 혹은 과거의 건축과 아무런 의미론적 연속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불연속성을 없애기 위해 노스텔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고전건축이나 자중해 주변의 오밀조밀한 이태리의 마을을 본 딸 수도 없는 것이고, 유형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분석하여 건축의 타이포로지를 찾아낸 들 어느 건축가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의 건축을 그것에 맞추려 하겠는가. 우리 도시의 물개성적인 풍경은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묶는 건축양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건축가의 치밀한 사고와 풍부한 아이디어의 부재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건축주에 기인한다. 오사카의 서민적인 전통가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마을에 연면적19.6평의 스미요시 나가 아라는 주택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는 그 주택에 담겨있는 치열한 사고를 인정한 전 세계의 수많은 건축가들로부터 주목받는 건축가가 됐다. 이 집의 겉으로 드러나는 파사드는 폭3.6m 높이6.3m의 노출콘크리트 면에 외딴문 현관 하나 뿐이다. 주변의 벽돌벽 기와지붕과는 혹은 일본건축의 전통적 문화적 논리와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 그러해도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형적인 일본건축이 되어있다. 안도가 우주라고 표현한 중정은 이 집에 대한 사고의 집약체이다. 방에서 화장실을 갈 때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통과해야 하는 이 중정이 일본의 주택의 유형론적 원리, 혹은 일본적인 전통이나 문화로 설명될 수 있는가.

우리의 도시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는 보호되고 이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취사선택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쓰다가 어느 날 해체시켜 버렸다. 정치적 논리이든 문화적 논리이든 항상 옛것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진실로 그것이 보존되고 가꾸어져야 할 대상이라면, 그 방법에 있어서 주변이 그것을 향해 존경심을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건축가가 그것을 건축적으로 닮은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방법인가. 오히려 자신의 건축 안에 그것에 대한 존경과 의식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가 그 시대를 담아내는 방법일 것이다. 건물에는 건축가가 그 주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집에 살 사람은 어떻게 이웃과 대화하고, 비와 눈 따뜻한 햇볕과 바람, 달과 별과 경관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고민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완벽한가에 따라 그 건축의 수준이 나타날 뿐이다. 우리 도시에서의 문제는 지어지는 건물이 너무나 개성적이거나 너무나 몰개성적인 건축이어서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와 양식의 문제 이전에 건축의 결과 생겨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배제된 결과이며, 너무 크게 지어야만 하는 그래서 아무런 장소적 배려가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더 앞선 문제이다. 이 때 바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도시가 좋은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택지의 문제와 미시적인 지구단위의 문제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건축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제어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을 앞서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넉넉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아름다운 전원을 보존하고 최대한 아낄 것인가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도시를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그린벨트나 논 경지, 그리고 아름다운 산야에 집을 지어야만 하는데 이때야말로 지역별 장소별 건축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합의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불도저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혹은 기존의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만일 주변의 전원을 보존하려 한다면 도시의 허용 밀도를 훨씬 높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별 지구별 연구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환경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거시적인 합의가 좋은 건축 좋은 도시의 선행조건이 된다. 예컨대 택지는 텅없이 모자란데 용적률만 낮추어서는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것이며, 부족한 용적률은 지하에서든 편법으로든 찾아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팔리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론에 있어서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이 보장되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기령 어떤 지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비우고 어디

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건축보다는 도시적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치밀한 논리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건축을 만들 것인가는 건축가의 통찰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자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열정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인(건축주를 포함한) 요구와 평가가 있어야만 건축가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찾아낸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장려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도시와 건축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틈 역시 건축가의 노력으로 메꿔져야 하는 대상이다.

이 논의는 최근 여러 건축저널에 소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담과 논문들을 읽고 이에 대해 실무건축가로서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에 대한 반성은 건축가에 의해서 더 많이 고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 역시 건축가의 생각이 중요하다. 더 많은 생각과 검토를 거쳐 다시 정리하고자 하며, 여러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시행

### The Implementation of Green Building Validation Program

이용락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장  
by Lee Yong-Rak

####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시대 최고의 패러다임은 '환경'이다.

개발산업시대가 지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채택되는 등 CO<sub>2</sub>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일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일련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모색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주거환경우수주택지정제도와 그린빌딩시범인증제도를 통합·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친 건축의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 인증제도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건교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증제도의 시행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방침

### 1. 통합 인증제도 추진경위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1992년 기후협약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함에 따라 99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00년 5월부터 두 제도를 통합하기로 하고, 양부처가 공동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였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제도의 명칭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결정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200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표 1〉 통합전 인증제도

시행기관	인증제도의 명칭	시행기간	내 용
환경부	그린빌딩 시범인증	'99. 10 ~2000. 10	- 시범인증기관 : (주)능률협회인증원 - 대상 : 17개 공동주택
건교부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00. 4 ~2000. 12	- 시범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대상 : 8개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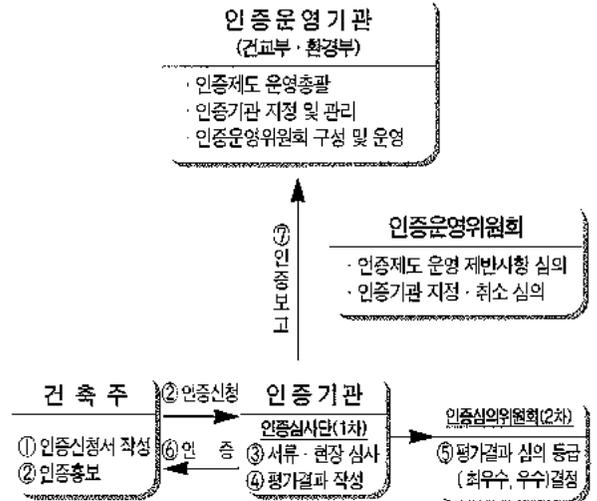
### 2. 인증제도 운영체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운영기관으로서 총괄적으로 공동관리한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준의 제·개정 등 주요정책의 결정은 운영기관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 인증제도시행지침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제정·공고하며, 이 지침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명의로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기관들간의 인증시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증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심사결과는 타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

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현재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지만 점차 주상복합건축물과 사무소 건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 운영기관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은 건교부와 환경부로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수립·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2)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는 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대표기구로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상호협의하여 인증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며, 10~15인의 인증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 안건의 심의기능과 인증기관의 지정과 감독기능을 갖는다.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 인증제도와 평가모델에 대한 보완 및 개선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 올해의 최우수 인증 수여단지에 대한 수상 등

#### 3)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을 평가하여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건축물의 사후관리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01. 12. 13.~12. 27일까지 5개 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02. 1. 15에 열린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3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 3.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 1) 대상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시행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그리고 시행초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건물 등 일반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2) 신청방법

##### ① 인증신청방법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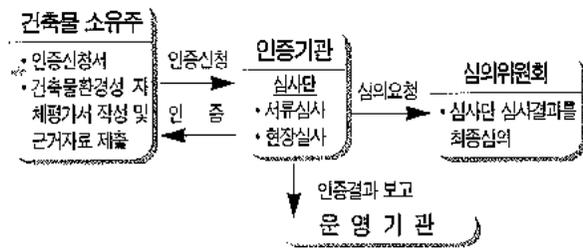
##### ② 인증심사 절차

인증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통해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구 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 증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수여	인증연장신청 ↓ 인증심사 ↓ 1차인증연장
예비인증 부터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신청 ↓ 인증심사 ↓ 예비인증수여	인증전환신청 ↓ 인증심사 ↓ 인증수여	2차인증연장 신청
비 고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 인증서 및 인증 현판 발급 - 건축물에 부착 • 인증유효기간 - 5년	• 1차인증연장은 인증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 • 2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동일

- 인증심사단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



##### ③ 인증 심사내용

인증심사는 4개분야 (토지이용·교통, 에너지·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증점수는 100점만점에 추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결과 85점이상은 최우수인증, 65점은 우수인증을 수여한다. 심사항목은 객관적인 심사와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명료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인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심사결과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등 외부전문가 4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 가. 심사분야 및 항목

•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 나. 심사방법 및 인증기준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 등급별 인증기준

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우 수	65점 이상	(추가 20점)

##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완)

###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청도시(靑島市)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동수 / 한양대 건축디자인 대학원 조교수  
by Han Dong-Soo

- I. 중국 청도의 도시와 건축
- II. 무영건축의 경험 (1)
- III. 무영건축의 경험 (2)
- IV.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1993년 중국과의 극고정상화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대가를 적지 않게 지불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미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어도 잘못 끼운 첫단추의 부담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숙제로서 남겨져 있다. 특히 손상된 민족의 자존심은 경제적인 실리를 떠나서 제2의 조공시대를 방불케하는 신사대주주의 한중관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최근 들어 IMF 이후 주춤했던 중국을 향한 건축계의 막연한 기대가 2008년 북경의 올림픽 유치확정을 계기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는 벌써부터 앞으로 발주될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시장경기를 들먹이며 우리의 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울질하는 웃자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욕과 열정을 무조건 갖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나친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과욕과 과열이라는 쓰러린 경험을 남기기 십상이다. (필자 주)

## 서언

주지하고 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경기는 엄청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과열된 양상을 낳고 있는게 사실이다(표1 참조)<sup>1)</sup>. 한 예로 중국 국가 통계국은 2001년 8월 중 부동산 개발 경기지수가 전월 대비 25%가 증가한 16.2억달러, 총투자항목은 683개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건설부 정일군(鄭一軍) 부부장은 최근에 개최된 전국건설시스템 정보화 업무회의 때 향후 5년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교환 및 서비스를 위해 각급 정부의 전자정보시스템을 건설하고 2002년 7월 1일까지 기업자질의 성과 및 직원자격을 공개하는 “중국 프로젝트 건설 및 건축업 정보네트워크”, “중국 주택 및 부동산 정보네트워크”의 건설을 완공하려고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게다가 최근 북경의 2008년 올림픽 유치의 성공은 건설경기를 더욱더 부채질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은 대내적으로 중국 건축계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축계의 중국을 무대로 한 활동은 일견 보라빛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도 다가서기에 멀게만 느껴진다. 그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의 중국건축계 정서에 대한 이해도와 대외적인 지명도, 건설회사의 대외 경쟁력(특히 가격에서 중국 건설업체와의 경쟁력, 기술에서 선진건설업체와의 경쟁력)과 다양한 접근방식(구체적으로는 건설사업 그 자체를 넘어서는 사업기획 및 부동산 개발, 분양, 관리, 보수 등의 분야)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 건설업계의 시장구조와 정보가 대단히 단편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건설시장의 동향과 WTO 가입 이후 건설시장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0대 건축의 선정과정을 통해 본 건축개념의 변화

2001년 5월 15일, 8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50년대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활동지표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1~6월	비 고
대중교역	수출	292억불	141.1억불	홍콩포함
	수입	141억불	68.2억불	
	수지	151억불	72.9억불	
환승인적교류	한국→중국	1,345,000명	549,089명	대만, 홍콩 인은 제외
	중국→한국	212,272명	225,530명	
고정자산투자	기본건설		4,685억원(인민폐)	
	개조투자	32,619억원(인민폐)	1,776억원(인민폐)	
	부동산투자		2,123억원(인민폐)	
부동산 개발 판매 동향	용도	주택투자	3,319억원(인민폐)	1,057억원(인민폐)
		상업용투자	840억원(인민폐)	245억원(인민폐)
		기타투자	743억원(인민폐)	233억원(인민폐)
	토지	구매면적	15,267만㎡	4,913만㎡
		개발면적	10,301만㎡	2,624만㎡
	주택	시공면적	63,529만㎡	44,394만㎡
완공면적		23,028만㎡	3,434만㎡	
판매면적		16,984만㎡	3,795만㎡	
부동산투자총액		4,901억원(인민폐)	1,535억원(인민폐)	

북경의 10대 건축”, “8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의 뒤를 이은 세 번째의 일로서 앞서 두 번에 걸친 10대 건축의 탄생과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50년대에 선정된 10대 건축은 완전히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결정된 결과였다. 전국의 인력, 물력, 재력, 지력을 총체적으로 집중시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신중국(여기서의 신중국은 1949년 공산 혁명 이후 탄생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함)의 새로운 면모와 실력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개인의 역량과 창조적 개념보다는 집단적인 창작의 조화와 지혜를 택함으로써 개성있는 작품의 선택의 여지를 무참히 좌절시켰다. 다만 국내외의 선진 건축기술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계기가 되어 건축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 뒤를 이어 “8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의 선정은 개혁개방 이후 첫 10년 간의 성과를 회고하는 것으로서 1980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 기간에 준공 작품을 대상으로 하되 선정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적용, 경제, 미관”의 설계원칙과 현대적이고 민족적이며 중국인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건축계의 전문가에 의한 1차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다시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보다 진일보된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개혁개방의 영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설계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사상관념과 사회환경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이러

1) 1998년 현재 중국에서 항진(滯滯) 이상의 도시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2278.9만명이고 세계적인 대규모 건설기업 225개 가운데 30개가 중국건설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업이 24위를 기록할 뿐 대부분의 순위는 뒤져져 있고 이들 30개 기업의 생산총액은 225개 기업의 총 생산액 가운데 4.3%에 불과하다.

한 방식의 채택은 "북경의 10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건축풍격(風格)이 북경 각지는 물론 범 중국적인 차원에서 건축문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90년대는 중국건축의 문화가 개방되어 서구의 신건축 관념이 붓물처럼 밀려들어와 중국의 건축가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시기이다. 물론 80년대에도 이러한 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그 정도가 거의 동시 발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을 선정하는 기준은 건축면적 10,000미터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8월 30일 사이에 준공된 대형 공공건축(아파트와 주거건축은 제외)을 중심으로 "적용, 경제, 미관"의 설계원칙에 부합하고 "민족전통, 지방특색,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 뛰어난 시공수준, 선진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 선정된 "90년대 북경의 10대 건축"은 역사의 존중, 전통의 반영, 예술형식과 기능의 결합, 첨단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선정된 건축물로는 청화대학 도서관 신관, 북경 항기중심(恒基中心), 북경 신세계 중심, 외국어 교학연구 출판사 사옥, 북경식물원 전람온실, 신동안시장,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타워, 북경국제금융빌딩, 수도도서관 신관, 국가 올림픽 체육중심 및 아시아선수촌 등을 들 수 있다.

## 건설부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십오계획(十五計劃)

십오계획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의 항목을 중심으로 두고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존하여 건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건설업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질서있는 발전을 꾀하는 성진건설(城鎮建設)의 새로운 메카니즘 형성, 성진건설과 생태환경의 상호협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턴 구축, 사회화·시장화된 주택의 공급·분배·관리 서비스 시스템 건립, 성진주택의 새로운 체제 확립, 건설관련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직 정비를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지역구조, 농촌과 도시의 공간배치구조를 포괄하며 산업구조, 생산구조, 기업소유구조 등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배치조정 및 성진화의 급격한 추진과정 속에서 농촌과 도시의 과학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에 치중하여 농촌과 도

시의 계획이 구조조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민생활수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개인의 주택소비시장에 대한 시공수준의 확보, 서비스 및 운영조직 체계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의 농촌과 도시의 계획은 이 양자가 일체화된 새로운 국면을 꾀하였다.

그리고 건설시공회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대기업은 경쟁력이 약하고 중소기업은 전문성이 없으며 건설 인력의 질이 낮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은 시공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십오계획 기간 동안에는 경제와 법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기업이 사업의 주요 과정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패턴을 갖추려고 한다.

다음으로 주택과 부동산 부분은 투자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에 치중하는 동시에 물자관리와 주택 및 임대시장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성진건설에서는 도로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교통체계를 원활하게 정비하는 한편, 품질의 개량을 통한 녹화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부문과 부동산 교역시장의 서비스 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건설사업에서 추구하려는 개혁의 방향은 성진계획의 관리제도개혁, 건설체제개혁의 심화(深化), 성진주택제도의 개혁, 시장 메카니즘에 입각한 공공사업의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성진주택제도의 개혁은 안정되고 규범화된 주택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주택의 화폐화 분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는 성진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십오계획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또하나의 항목은 건설사업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업체들의 위법사태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은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재산관계, 신용관계, 계약관계를 재정비, 규범화하고 행정업무의 공개원칙을 핵심으로 삼아 사회와 대중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할 것은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 북경시 정부는 2008년을 건설업의 역사적이 호기로 여기고 첫째 도시의 토지자원과 수자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도시의 환경과 인구의 적정성 문제를 연구, 둘째 수도의 경제구조 조정을 통하여 대형 전시장, 물류센터, 소매업체의 건설을 도시총체계획에 수렴, 셋째 더 큰 공간규모에서 수도의

발전과 배치를 연구, 넷째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도시건설을 원만하게 처리, 다섯째 도시의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여섯째 도심부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 하는 등의 계획설계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설계시장을 전면적으로 외국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건축설계 입찰방식의 변화

중국 도시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건축설계도 날로 왕성한 시장의 수요를 보이고 있다. 향후 5년간 중국내 건축설계 인테리어의 공정량은 3,000억원(인민폐)에 이르게 되어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 개발 총투자는 3,580억원(인민폐), 고속도로에 대한 총투자는 5,000억원(인민폐), 철도 총투자는 2,450억원(인민폐), 수리 및 도시 기반시설 총투자는 1,200억원(인민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부의 계획목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조원(인민폐) 이상이 될 것이며 건축업은 국민경제의 진정한 주축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현재 법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건설회사 225개 가운데 140개 업체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B+H, 미국의 JY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설계사무소 등이 중국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건축설계시장은 2001년부터 입찰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입찰공고와 입찰방식은 설계기관과 입찰공고 기관 사이의 불평등 교역으로서 설계기관의 지적재산(도면, 모형, 아이디어 등)은 입찰공고자가 한꺼번에 싸잡아 무상으로 독점하게 되므로 대다수 설계기관의 설계비는 수포로 돌아가야했고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낙후된 입찰방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국가계획위원회는 10여년의 노력 끝에 새로운 방식을 비준하였다. 이 비준안에는 입찰기관은 입찰공고자에게 개념설계안만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와 일대일의 접촉으로 어느 한 회사의 제안을 채택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들어 하나의 사업에 7개의 회사가 입찰하여 입찰공고자와 첫 번째 회사 사이에 이야기가 성사되었다면 나머지 6개의 회사는 접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원래의 최대 설계비가 공사비의 2% 정도였던 것을 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관리부문은 사사로운 설계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의 건축가는 입찰방식의 불공정

이외에도 업주의 인지도 부족과 행위의 비합리성, 판단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한 모순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겠다.

## WTO의 가입과 중국건설업의 전망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로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인데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투자를 더욱 증대시켜 보다 확대된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건설업은 중국국민경제의 주요한 지주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더 많은 기간산업의 건설을 유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표명하여 세계경제체계에 융합되고 투자환경과 시장수요에 자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건설시장의 대외적인 개방은 더욱 많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한 중국건설산업구조와 경영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중국건설업체는 외국의 업체와 비교하여 관리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정부의 국내시장에 대한 정책변화와 시장분할로 중국건설업체는 자본의 재편성을 피할 수 없고 강력한 시장경쟁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과거 국민정서의 관례에 따라 제정된 관리체계가 국내의 시장의 장기적인 격리를 가져왔고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존한 저렴한 건설단가 등은 더 이상 경쟁력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등한 환경 속에서의 경쟁에 미숙한 중국의 기업으로서 냉혹한 시장경제 하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건설업 전반에 걸친 기회와 도전이다. 비록 어느 정도의 시장충격은 당연하지만 법률제도의 정비와 시장체제의 규범화를 가져올 것이며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자본결합, 기업간의 협력은 시장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활성화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 맺음말 : 무영의 경험이 전해주는 교훈

필자는 지난 몇 해동안 무영건축설계사무소의 청도지사 건립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앞으로 중

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설계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자체적으로 중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확보 또는 기질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워낙 열악한 인적 자원을 가진 우리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재발굴과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절실하다 하겠다. 북경에서 유학할 때 경험했던 하나의 일화는 아마도 인재투자의 방법을 어떻게 찾고 회사의 소유주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방기기 회사인 H사의 사장이 취한 방법이었다. 중국에는 좋은 학교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시 H 주방기기 회사의 사장은 주요 대학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한 졸업생을 일일이 직접 면접하고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어 대학원에 진학시켜 중국시장의 조사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쓰게 하는 한편, 한국어 강사를 구해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다시 한국 또는 중국지사에 근무토록 함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선견지명을 가진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무영의 경우를 포함해서 중국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이 심각하고 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나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방법일 것이다. 무영의 경우를 보면 천태건설의 경영자가 보여준 한국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 반대로 무영의 경영자가 중국 파트너에 인식시킨 확고한 협력의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상적인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이용이 아니라 서로의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다. 천태건설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설계분야였고, 무영의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통로였다. 이것이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보다 앞서 디딤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큰 그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솔직하게 할 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또 자기의 회사가 무엇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턱대고 남들이 가고 시장이 크다는 것 때문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시장에 대한 대상을 국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건축의 유형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장 자신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부분의 중국 취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는 아주 이국적이든지 아니면 중국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갖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국제적인 지명도가 낮은 우리의 설계사무실 현실에서 중국 건축계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상공모전에 부단히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출판계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및 주요 대학을 발판으로 한 학술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일 것이다. 공모전의 경우는 우리 처럼 막후의 변수가 크기는 하지만 외국의 유명 설계사무소 또는 중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통한 참여는 중국설계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학습의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학술지원의 경우는 중국건축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건축관련 고위관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적절한 주제로는 주거문제, 단지계획, 신도시 계획을 비롯하여 한중 건축계 관련료들의 정책 워크샵, 전통의 현대화 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후원자 자신의 설계작품에 대한 전시를 겸해서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단체의 협력 추진하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건축계의 성과를 중국내 주요 도시와 대학 건축과에 알리는 순회전시회의 개최도 우리 건축계의 실력을 알리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취해야 최선의 방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국 건축시장에 대한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기탄없이 모아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의 필요 유무에 따라 상대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두 세 사람의 역량을 모으고 더 나가 집단의 힘으로 대항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필자는 이미 90년대 초반 학계의 결속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접근을 누누히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 만일 당시 작지만 어떤 조직의 힘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하려는 의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적어도 동아시아의 건축과 도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질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때를 놓쳤다. 남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중국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

건축계소식 / 91

현상설계경기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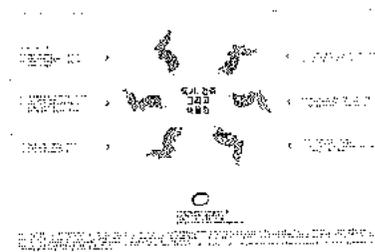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 110

세무안내 / 116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봄건축강좌

3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민족건축인협의회에서는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과 함께 문예아카데미 건축강좌를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강좌로 진행하는데, 이번 봄 건축강좌는 '도시, 건축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주 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민예총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3만원(신입회원 1만원 별도).

문의: 02-749-6854

www.mingunhyup.org

- ▷ 3월 30일 집합과 혼재의 모자이크 도시 - 부산 / 강혁(경성대 건축학과)
- ▷ 4월 6일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컨벤션센터 / 정태복(일신설계)
- ▷ 4월 13일 전통과 현대의 이중적구조 도시 - 전주 / 진정(전북대 건축과)
- ▷ 4월 20일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 민승렬(한빛종합건축)  
건축기행 / 양상현(순천향대 건축학과)
- ▷ 4월 27일 섬, 고립이 만들어낸 지역성 - 제주 / 양상호(탐라대 건축학과)
- ▷ 5월 4일 강정교회 / 김재관(무회건축)

- ▷ 5월 11일 중심지향적인 도시(밀라노 프로젝트) - 대구 / 김영대(영남대 조경학과)
- ▷ 5월 18일 한국패션센터 / 박진(AI건축)
- ▷ 5월 25일 국토개발의 첨병, 신항공업도시 - 포항 / 구자문(한동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 ▷ 6월 1일 포항시 남구보건소 / 김승희(경영위차건축)
- ▷ 6월 8일 새로운 도시 - 파주출판도시 /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 ▷ 6월 15일 The 9th sector & Barunson card project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제9회 건축사진아카데미

4월 27일 마감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에서는 제9회 건축사진강좌를 2002년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12주간 개최한다.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험촬영, 고건축촬영, 인테리어촬영, 흑백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임정의 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건축답사를 하며 실습지도할 예정이다.

-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 ▷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 ▷ 참가인원: 12명
- ▷ 참가비용: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 신청방법: 온라인 입금후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됨
- ▷ 접수마감: 2002년 4월 27일까지
- ▷ 일정 및 내용  
5월 1일 - 건축을 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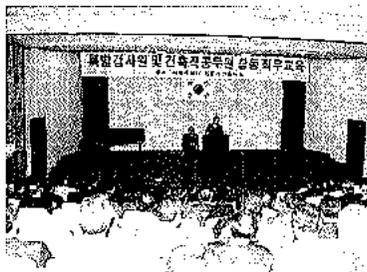
- 5월 8일 -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5월 15일 - 빛과 공간의 이해
- 5월 22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 5월 25일 -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3시-8시)
- 5월 29일 -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 6월 5일 - 각종 모형촬영이론과 실습
- 6월 8-9일 - 건축답사 촬영실기 (1박2일)
- 6월 12일 - 흑백사진의 표현방법
- 6월 19일 - 흑백사진 테크닉 실습-1
- 6월 26일 - 흑백사진 테크닉 실습-2
- 7월 3일 - 포트폴리오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 5/25 현대건축촬영과, 6/12-13 건축답사 장소는 추후결정

▷ 문의: 청암건축사진연구소(임정의)  
 (우)143-230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청암빌딩1층)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전화 02-444-7088  
 팩스 02-444-5807  
 이메일 imfoto@hanmail.net  
 홈페이지 www.foto.co.kr  
 카페 www.freechal.com/imfoto

## 서울건축사회, 제3기 특별검사원 발족

지난 3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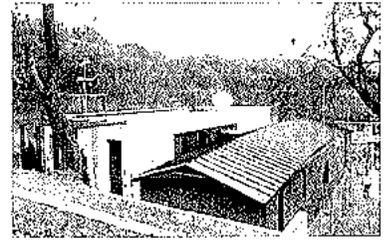
서울건축사회가 서울의 위법,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검

사원제도가 제3기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3월 5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제3기 특별검사원으로 선발된 282명과 25개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단식을 갖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제24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발표

금포동주택 등 7작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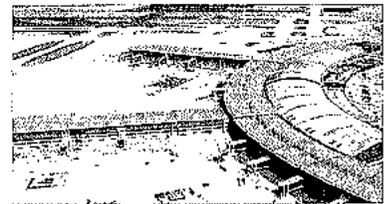
제24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결과가 발표됐다. 2002년도 건축가협회 상에는 금포동주택(이타미 준 + 최문규/가이건축사사무소), 서울예술대학안산캠퍼스(조재원, 유태용/테제건축사사무소), 울산프라우메디병원(김영준/이로재김영준도시건축), 원당성당(정림건축),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KBHJW콘소시엄(까치건축, 범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원도시건축) + FENTRESS & BRADBURN + McClier), 제주월드컵경기장(홍일인/일건건축사사무소), 한솔집(허서구/영건축+이준복/건축사사무소EUN)이 선정됐다. 업덕문건축상에는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M.A.R.U.의 카이스갤러리가 차지했으며, 초평건축상에는 윤승중(원도시건축)씨가 선정됐다. 한편, 아천건축상 부문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심사는 김 원(위원장,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도창환(경기대 건축학부 총괄 디렉터), 유원재(다건축), 이성관(한솔건축), 최동규(서인건축)씨가 맡았다. 지난 2월 26일 LG아트센터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금포동 주택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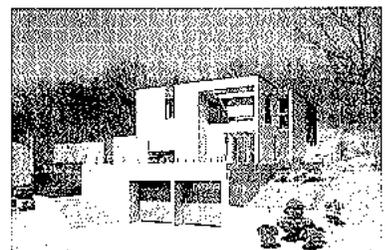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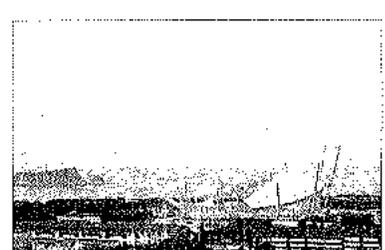
울산프라우메디 병원



원당성당



한솔집



제주 월드컵 경기장

## 제11회 김태수 해외건축 여행 장학제

5월 20일 마감

김태수 건축 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 미화 \$10,000를 제공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 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의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 자격요건

- 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포트폴리오 심사후 에션 통과자 선정  
- 에션당선자는 여행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 후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함

▷ 포트폴리오 접수처 (접수마감: 2002년 5월 20일까지)

주소: Tai Soo Kim Partners  
285 Farmington Avenue  
Hartford, CT 06105  
USA

전화: 860-547-1970  
팩스: 860-249-0695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TSKF.ORG 를 참조.

## 2002 광주비엔날레

6월 29일까지

2002 광주비엔날레가 3월 29일부터 6

월 29일까지 「멈춤, P\_A\_U\_S\_E, 止」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중외공원 일원 5·18자유공원, 광주시내 폐선철도 부지 등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네 개의 프로젝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로젝트1은 '멈춤(PAUSE)', 프로젝트2는 '자기:이산의 땅', 프로젝트3은 '집행유예(Stay of Execution)', 프로젝트4는 '접속(Connection)'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비엔날레보다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획과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전시공간 연출이 돋보이는 한편 장소성과 소통의 문제, 그리고 도시문제와 공공미술의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건축가로는 창릉희, 김영준, 정기용씨가 참여한다.  
문의: 062-515-4624

##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활엽수 목재 기술 세미나

4월 2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는 4월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내리모델링 및 목재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활엽수 합판 및 단판협회 대표 빌 앨트먼 씨와 미국 위스콘 프레스트 프로젝트사의 존 야콥씨가 「무늬목의 특성, 생산과정 및 시공방법」에 관한 주제 강연을 하며, 미국 Numetic Finishing Crop.사 사장인 데이빗 베일리씨가 「미국산 활엽수의 마감기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310-9680

## 건축디지털컨텐츠 공모전

5월 25일까지 작품접수

독창적인 건축 콘텐츠를 발굴하고 건축 정보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3회 건축디지털컨텐츠 공모전의 요강이 발표됐다.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주)한미파슨스와 (주)한국건축정보기술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예년과 같이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주제로 치러지는데,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하나 특별히 참가 자격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독창성과 디자인 및 표현력, 응용기술력, 실무 공헌도,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공모전의 출품작은 디지털컨텐츠 공모전 홈페이지에 모두 소개하며, CD로 제작, 배포한다. 주최측은 공모전에 앞서 4월 1일 기술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고, 5월 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5월 25일 작품접수를 마감한다.  
문의: 02-3461-6868

www2.digital-architecture.or.kr

## 서울시, 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4월 중순부터 시행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현재 가구당 0.7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3월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4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0.7대

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번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이어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기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문의: 02-3707-9791

## 제2회 서울리모델링페어 개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제2회 서울리모델링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설계시공, 건축자재, 사업개발, 실내외조경, 기타부문이 전시되어 주택에서부터 대형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모델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세미나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711-4546

[www.remodelingseoul.co.kr](http://www.remodelingseoul.co.kr)

## 인하대, 하와이대 건축 조인트 스튜디오

3월 31일까지

인하대학교 개교 50주년 및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인하대학교 설립 및 명칭 “仁荷(仁+하와이)”의 어원이 되었던 미국 하와이의 『University of Hawaii, Manoa』의 학생 및 교수간의 교류를 통한 공동 studio를 구성, 한 학기 동안 공동 주제를 통해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또한 3월 24일부터 31까지 하와이 대학 건축대학 학생들이 방한, 실질적인 학습을 실시하며 한국의 주요 건축물 답사, 작품 전시, 크리틱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동안 인하대학교가 실시해 온 동북아 대학(중국, 러시아)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회를 만듦으로서 앞으로 WTO 체제하의 한국 건축교육 및 건축의 세계참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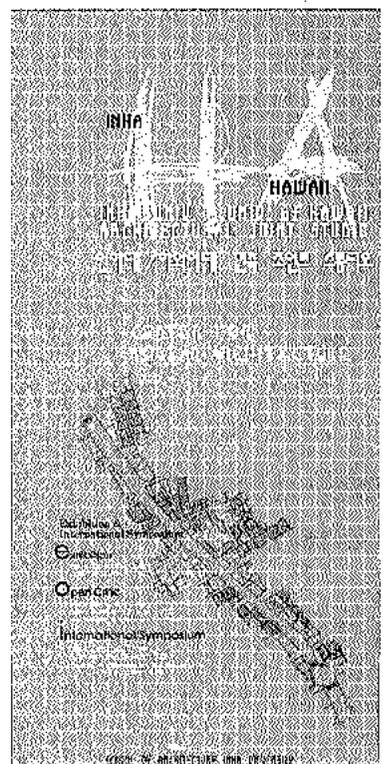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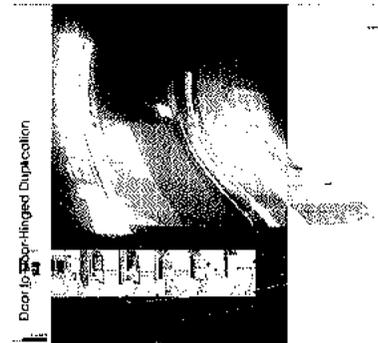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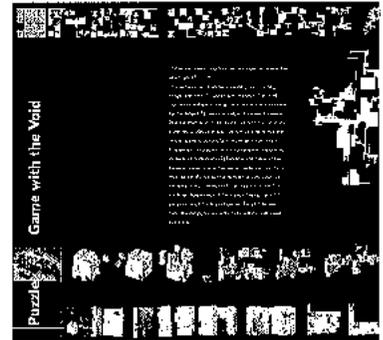
특히 국제 세미나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3개국의 유명 건축가 및 교수들을 초빙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전문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장을 확장, 비야호로 건축 교육의 국제화를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행사 전반의 공동 주제는 “JOINT”이다.

### ▷ 오픈 크리틱

- 장소: 조선일보 갤러리
- 일시: 3월 30일 11:00~16:00
- 크리틱: 조성룡, W H Raymond Yeh, Yamashita Hideyuki

### ▷ 국제심포지엄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 일시: 3월 29일 13:00~17:00
- 스피커: W H Raymond Yeh, Yamashita Hideyuki, 원정수, 송효상, 송인호



## 한겨레문화센터 생태건축 강좌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번 강좌는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한겨레문화센터 신촌교육장에서 개최된다. 건축학도 뿐만아니라 비전공인들과의 친지한 시대적 고민과 생태적 환경과 건축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려는 강좌로 새로운 건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겨레문화센터와 생태건축연구소와의 공동 기획, 운영으로 건축을 통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역할을 찾는 강좌이다. 수강료는 15만원이다.

문의: 02-3272-7675

### 프로그램

- ▷ 생태건축의 개념과 실천방안/이운하 (노동돌건축, 생태건축연구소 공동대표)
- ▷ 생태건축에 있어서의 풍수지리/박시익(풍수지리건축가, 명당건축)
- ▷ 전통마을에 있어서의 생태건축/한필원(한남대학교 건축전공 교수)
- ▷ 외국의 생태주거 유형 소개/이태구(세명대학교 건축공학전공 교수)
- ▷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생태건축기술/이정재(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생태개념을 이용한조경계획/조동길(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연구실 책임연구원)
- ▷ 생태공동체 만들기/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 목구조와 나무로 집짓기 사례/조남호(솔토건축)
- ▷ 휴과 휴집 짓기의 이해/김영도(공간세라믹 기술연구소),이운하
- ▷ 현장답사(무주 푸른곰 고등학교 일대)/이운하

## 도올건축 채일석회원, 러시아연방건축가 면허취득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재외 공관 중 가장 큰 규모인 모스크바 주재 신축 한국대사관의 설계자인 채일석회원(46, ㈜도올건축 대표이사)이 지난 3월 4일 아시아지역 인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연방 건축가 면허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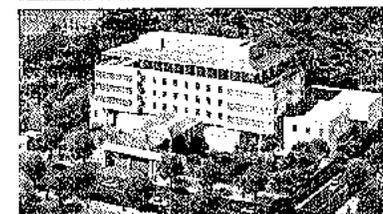
러시아에는 1만2천여명의 연방건축가가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다. 러시아연방건축가 면허를 수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채일석회원이 신축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신축설계국제공모 당선자로서 한국전통건축과 러시아건축의 요소를 훌륭하게 조화시킨 신축대사관의 작품성이 현지 건축계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모스크바 현지에 상당기간 체류하며 이 작품에 대한 모스크바시 건축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시 현지 건축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Presentation을 하면서 현지 건축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하는 등 한국 건축가로서 현지 건축계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평가받아 모스크바시 건축위원회 위원장(Mr. Kuzumin) 등 많은 현지 원로 건축가들의 추천을 받아 1차적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작품활동에 대한 심사, 2차적으로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최종 인터뷰를 거쳐 취득하게 되었다.

또한 신축 한국대사관의 현지관련 업무(설계, 조사, 인허가업무 등)를 ㈜도올건축이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접 수행하는 등 현지의 건축환경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되었다.

㈜도올건축은 대사관 설계기간 동안 서울의 설계팀을 현지에 파견, 모스크바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자재, 공법, 인허가 등 현지의 특수한 건축환경을 서

울의 주(main) 설계팀이 충분히 이해하여 설계 상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지의 규정, 관행 등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지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1998년 10월 주 러시아연방 한국대사관 신축설계 국제공모전에서 당선되어 2000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감리단을 파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채일석회원의 이번 면허취득을 계기로 국내에도 러시아의 건축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회사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어 향후 한국과 러시아 건축가들의 상호교류 및 건축의 이해증진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은 물론 현재 모스크바시 건축위원회 위원장(Mr. Kuzumin), 현지 건축가 및 현지 변호사 등이 도올건축의 자문위원으로서 현지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어 러시아에 진출 또는 제휴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조감도

##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

올 12월 서울에서 국내외 건축 분야별 혁신적 솔루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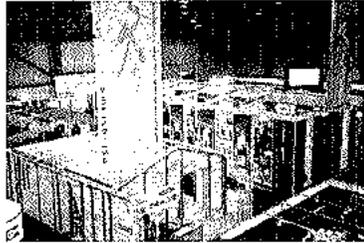
올 12월 서울에서 국내외 건축관련 선두 업체들이 제안하는 설계 / 시공 분야별 혁신적 솔루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2월 4일부터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건축박람회(KIBEX2002: Korea International Building Exposition)에서는 건축산업분야 국내외 200여 업체가 참가하여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실증적인 아이디어를 분야별 컨셉관의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국내의 낙후되고 관행화된 건설시스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도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자재, 공법, 서비스 등이 출품되며 이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이 주로 방문할 예정이다.

컨셉관에서 다루어질 주요 아이템들은 욕실 / 마감재 컨셉관, 더블스킨시스템을 사용한 외장재 분야와 선조립 철근 분야, 거푸집 대응제품에 타설 장비 및 One-Stop 마감을 결합한 분야 등이며 학계와 주요 국내기관, 설계사무소가 공동 기획하고 메이저 시공 / 자재 업체들이 참여하여 업계의 최신 경향과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제안하게 된다. 그 외 건축산업 전 분야에서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여 세계 건축산업계의 최신동향과 신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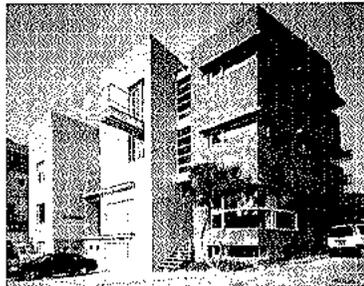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국내 건축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인들에게 분야별로 전시된 국내외 건축 관련 자재, 공법, 서비스 등을 공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출품업체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과 영업상담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KIBEX2002-국제건축박람회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bex.com)를 방문하거나, 박람회 사무국 SBA KOREA (Tel: 02-708-4080 / E-mail: info@kibex.com)로 문의하면 된다.



## 제5회 CRI-ARC AWARD 수상작 발표

권문성의 「현암사 리노베이션」



월간 건축인 POAR(발행인 김철환)가 제정하고 비평가포럼 DAZ(의장 이종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CRI-ARC AWARD'의 제5회 수상작(가)으로 「현암사 리노베이션(권문성 43, 이틀리에 17 소장)이 선정됐다.

이 상은 여타 건축상과 달리 심사자의 구성, 수상후보자 선정 및 발표방식, 투표형식 등에 있어서 차별성을 둔 것으로, 월간 건축인 POAR가 지난 1997년 7월 제정하여 1998년 3월 첫 회 수상작으로 '성북동 210번지 스튜디오 주택(조병수 설계)을 선정한 후 '공간신사옥'(장세양 설계, 제2회 수상작, 1998),

'동우밸브콘크리트공장'(김효만 설계, 제3회 수상작, 1999)으로 이어진 '크리악 어워드'는 매년 경쟁하는 수상 후보작 가운데서도 특히 건축물의 사회성이 각별한 대상작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건축물에 담긴 건축가의 생각이 건축에 대한 대중적 호응 유발이라는 빛을 발할수록 수상의 무게가 실렸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올해 제5회 수상작의 경우에서도 그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크리악 어워드'는 일단의 건축비평가들의 모임체인 비평가포럼 DAZ(의장 이종건,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의 구성원들이 지난 1년간 월간 건축인 POAR에 매월 한 작품씩 수상후보작으로 추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인 POAR의 독자로 구성되는 심사인단의 투표로 최종 수상작가를 가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수상후보작품으로는 POAR 2001년 3월호~12월호 '크리악'에 소개된 10점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추천 비평가로는 김승규, 김정후, 김종현, 박민철, 이공희, 이종건, 이주연, 임석재, 전진삼, 함성호(이상 10인, 비평가포럼 DAZ) 등이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미술작가 인필연 교수에 의해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 수여됨) 및 상장, 상금(당해년도 12월 기준 POAR 정기구독자 구독료 총액의 1%에 해당되는 상금 지급)이 수여된다. 후보작품은 어유지동산 미술(조병수), 현암사 리노베이션(권문성), 제일영광교회(곽재환), 최육스튜디오(최육), 서미갤러리(유태웅), 구인현(정기용), 가나안교회(이충기), 정토사 법당(김개천), 포항시 남구보건소(김승희+강원필), 충청대학 월강기념관(유건) 등이었다.

## 『건축사의 노래』 기사 공모기간 연장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축사간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까지 공모한 『건축사의 노래』 기사공모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아래와 같이 공모기간을 연장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내용 : 『건축사의 노래』  
(2절 이상)

• 공모기간 : 2002년 4월 30일까지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상금 : - 당선작 1편 200만원  
          -佳作 2편 각 50만원  
• 작품제출 : A4 크기로 작성, 응모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명시  
• 제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T.581-5711)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 및佳作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본 협회에 귀속됨.

## 신간

### 건축디자인이하기 - 건축공간구성 및 디자인 이은

이 책은 현대건축의 디자인 예를 통해서 디자인 요소의 뿌리 그리고 그 어휘를 찾아 그의 이해를 돕고 그를 디자인의 도구로 삼아 합리적인 건축 디자인에 활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 책을 통해 전통적,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건축공간 구성과 디자인 이론과 함께 현대건축을 창의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참고가 되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작가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

첫째,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다양한 건축디자인 요소들을 낱어해 하는 것과 각각의 디자인 요소별로 구성된 건축디자인의 예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주요 관련 디자인 요소들을 통하여 디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건축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게 한다.

둘째,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능력은 건축디자인 분석의 이해로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건축디자인 이야기』는 건축공간구성을 쉽게 이끌어내면서 디자인해 나가게 한다.

셋째, 설계과제에 대한 설계이념과 건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하게 비중이 두

어져야 할 건축디자인 요소들의 선정과 그들을 중심으로 뜻하는 건축디자인을 이끌어내게 한다.

넷째, 건축작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디자인 과정에서 아쉽다고 분석되는 건축디자인 요소들의 발견을 통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책의 디자인 요소들이 활용되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충실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원하는 건축디자인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



유뢰준 지음/649쪽/3만8천원/문운당 발행  
(02-762-6010)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경남구건축사회/(51)7-9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 강북구건축사회/(93)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8999 ·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6 ·
- 노원구건축사회/(937)3100 · 도봉구건축사회/(960)9720 ·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6532 ·
- 서초구건축사회/(3474)6700 · 성동구건축사회/(232)3855 ·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 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743 ·
- 영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98)1466 ·
- 종로구건축사회/(725)38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6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94-5645 ·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3130 ·
- 인양지역건축사회/(031)449-268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57-8708 ·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93-509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859 ·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9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3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35 ·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3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무안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3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3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3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888 ·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삼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2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3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643-6090 ·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6-18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933-9779 ·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3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2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0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고양시일산문화센터 / 98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 102

정상의 집 평화센터 / 104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 106

고양시일산문화센터

Ilisan Culture Center

▶ 당선작 / 공간건축(이상림·오섭훈)  
+ 삼우설계(한종률) + 삼성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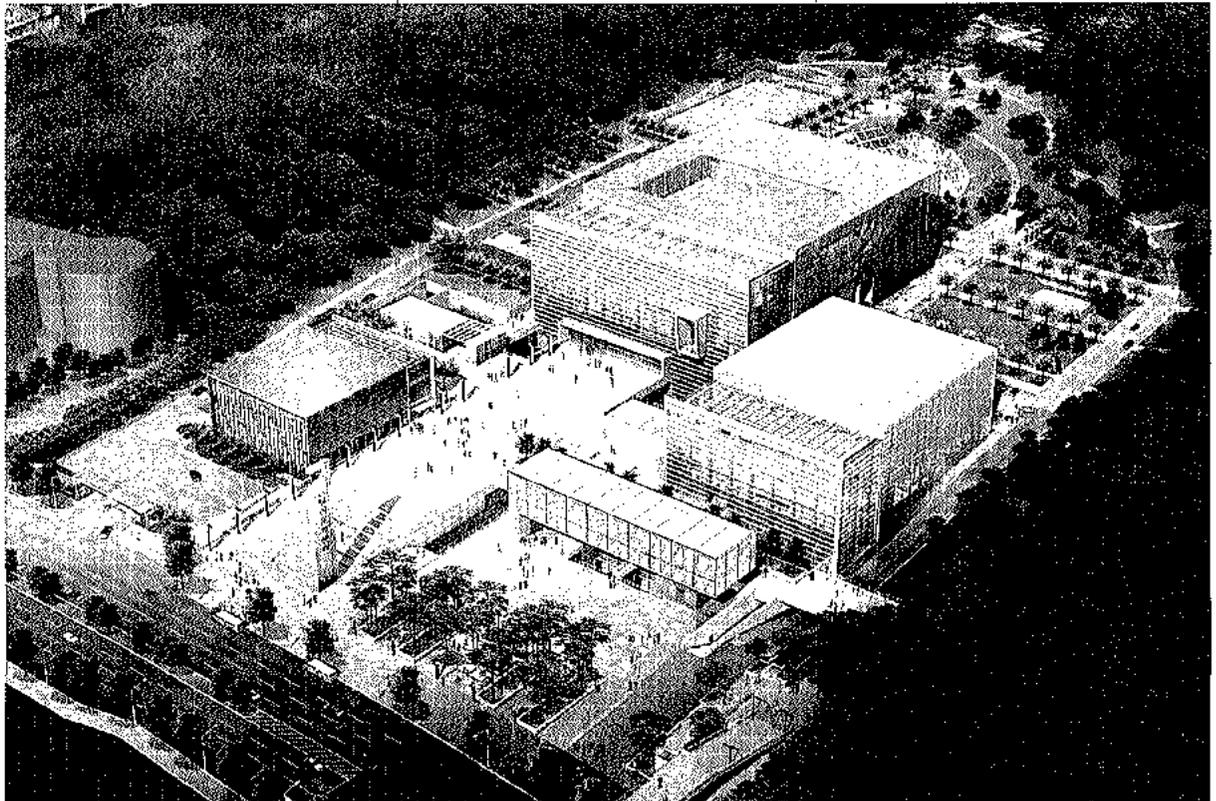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6, 817번지 일원
대지면적	전체 : 54,239.4㎡ 문화시설 : 43,121.6㎡ 도서관 : 11,117.8㎡
건축면적	전체 : 9,321.0㎡ 문화시설 : 8,229.7㎡ 도서관 : 1,091.3㎡
연면적	전체 : 48,341.3㎡ 문화시설 : 43,787.5㎡ 도서관 : 4,553.8㎡
규모	문화시설 : 지하 2층, 지상 4층 도서관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주차대수	법정: 전체 - 198.0대(장애인주차: 7대) 문화시설 - 183.0대(장애인주차: 6대) 도서관 - 15.0대(장애인주차: 1대)
외부마감	외부옹목재루버, THK0.7티타늄 아연판, THK0.5동판 THK1.2스텐레스스틸타공판, THK2.4투명복층유리(로이코팅)
설계팀	김범준, 유욱중, 이현우, 김지형, 이재훈, 박현수, 박영택, 김우영, 김지선

프로젝트 - 전용극장시대

고양시 일산문화센터는 현재 시공 중인 덕양구 성라공원 문화센터와 함께 고양시의 양대 문화거점으로 계획되었다. 국내 대다수의 지자체 문화회관이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문화센터는 2000석의 전용 오페라하우스, 1500석의 전용 콘서트홀로서 계획되어 본격적인 전용극장시대를 여는 의의를 가진다.

대지 및 도시해석-도시와 자연의 접점  
일산문화센터의 대지는 일산의 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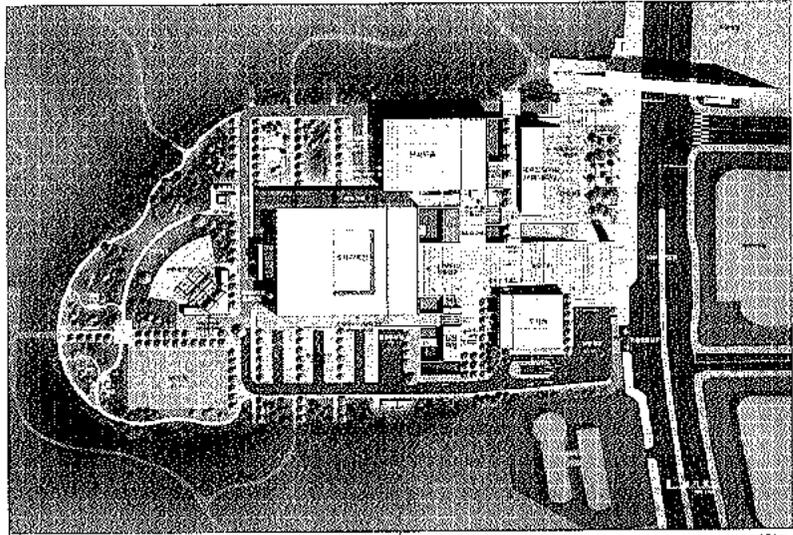


Street인 중앙로에 면하는 동시에 정  
발산 공원이라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건물성격  
에 도심형 문화센터와 공원속의 문화센  
터라는 이중의 요구를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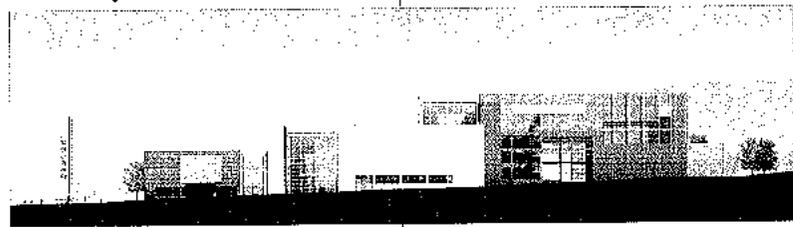
#### 배치 - 도심형 문화센터

극장은 기본적으로 매우 도시적인 시  
설이다. 고대 그리스 아외극장 이후 현  
재까지 성공적인 극장은 대부분 도심  
의 Main Street에 직접 면하여 쉽게  
인지, 접근될 수 있는 도시의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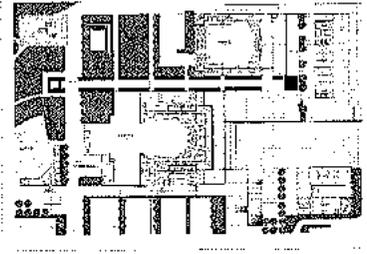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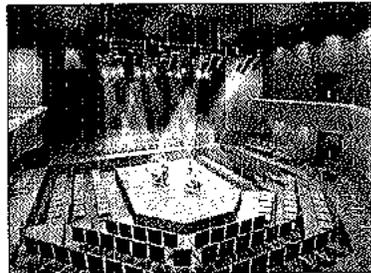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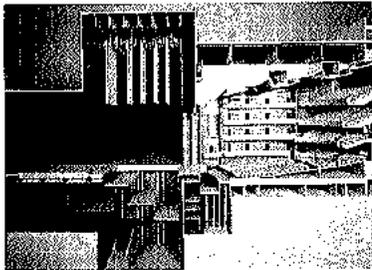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전면도로 및 도시에 대하  
여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함  
으로써 극장이 비일상적인 문화공간이  
아닌 도시의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하  
고, 가로와 도시에 활기를 부여하는 장  
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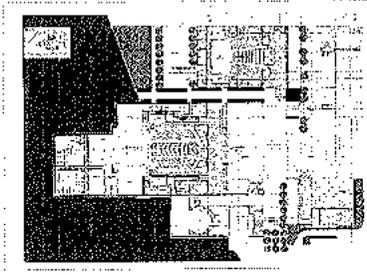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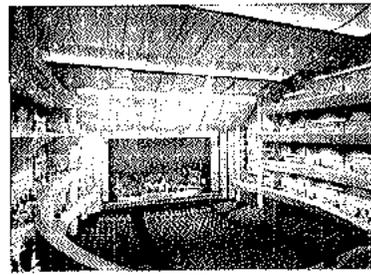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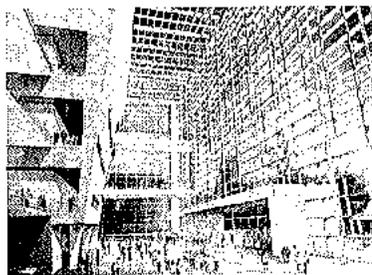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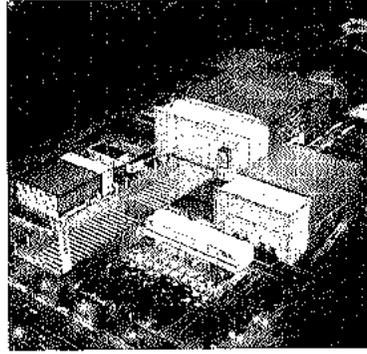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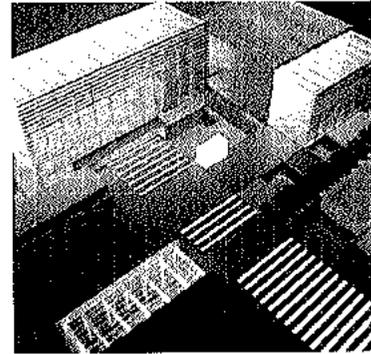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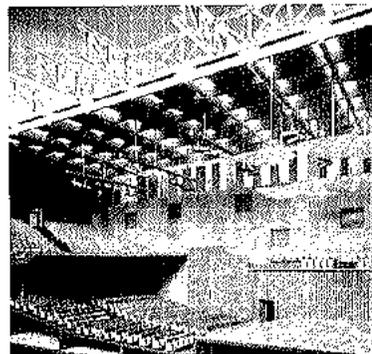
우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이영희·정영균) + (주)  
대우건설

대지면적	54,239.4 m <sup>2</sup> (약 16,407.3평)
건축면적	10,760.37 m <sup>2</sup> (3,255.01평)
연면적	48,153.50m <sup>2</sup> (14,566.43평)
건폐율	19.84%
용적률	33.36%
주차대수	총 700대 - 지하600대(장애인 주차 20대 포함) - 지상 100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외부마감	AL, 복합패널, THK24 파스텔 컬러 북층유리, 화강석
설계팀	류연철, 황금순, 심기수, 정진환, 백봉주, 정낙일, 장은성, 남준우, 김태우, 송주영, 오현석, 이승우, 고재정, 황성재

시민을 위한 자연공원 개념을 적용한 문화센터를 계획하였다.

계획대지는 도시 축 선상의 중심에 호수 공원-미관광장-정발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에 위치한다.

이러한 대지상황을 고려하여 열린 문화 공간이라는 설정 하에 녹지축의 흐름을 수용하여 단지 중심을 광장과 길로 구성한다.

전면광장은 수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각 시설 이용자는 길을 따라가며 건축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자연을 만끽한다.

건축시설물은 공연 전시동과 문화센터/도서관동으로 분리하고 도시 축을 따라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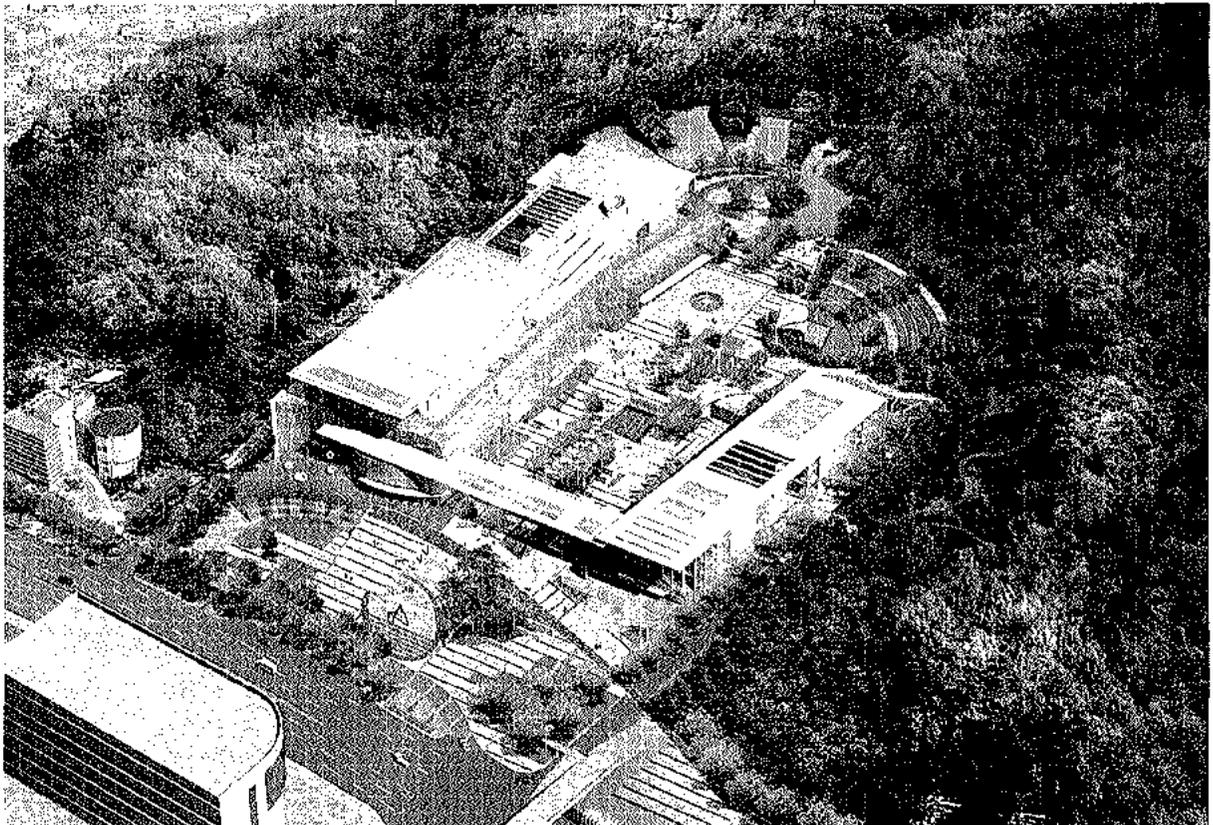
공연 전시동 정면에 오페라 극장을, 콘서트 홀은 지하철 진동과 소음을 고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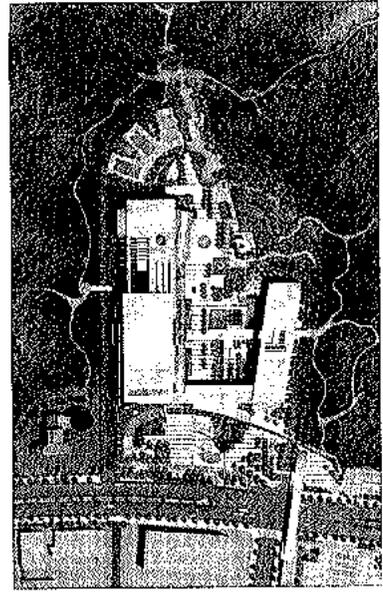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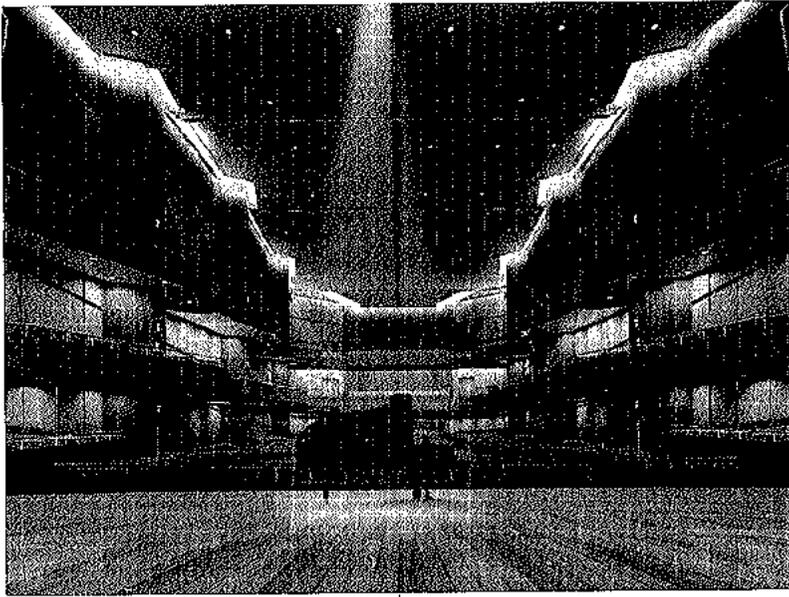
여 후면에 계획하였다.

공연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공연장에 맞춘 최적의 음 환경을 유지토록 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연 시설물은 지상1층에서 진입하도록 하고 로비 중간에 자연정원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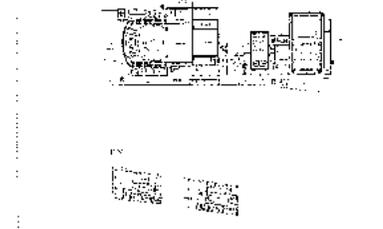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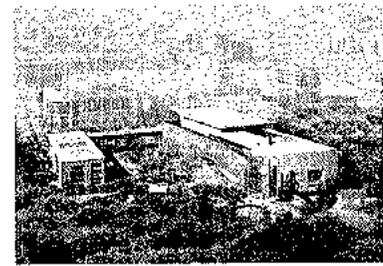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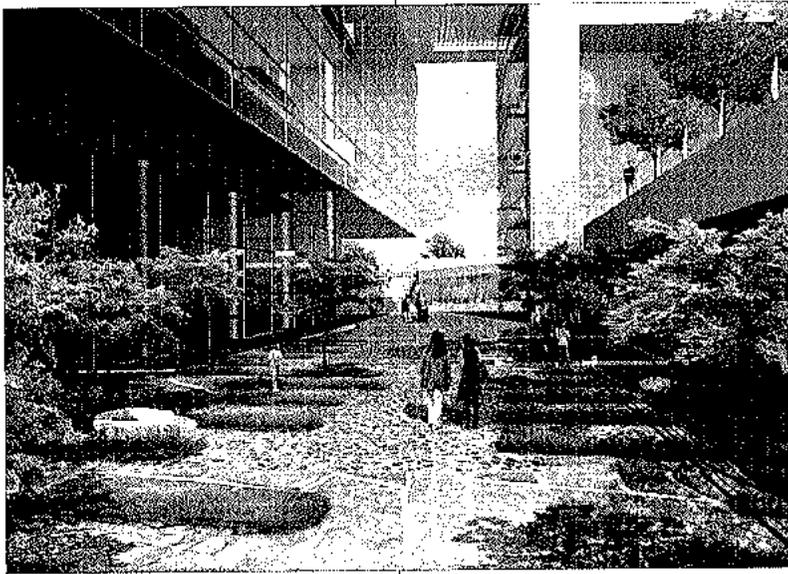
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입부에 배치하고, 전자도서관 개념으로 접근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실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층별 기능분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과 문화, 건축이 어우러지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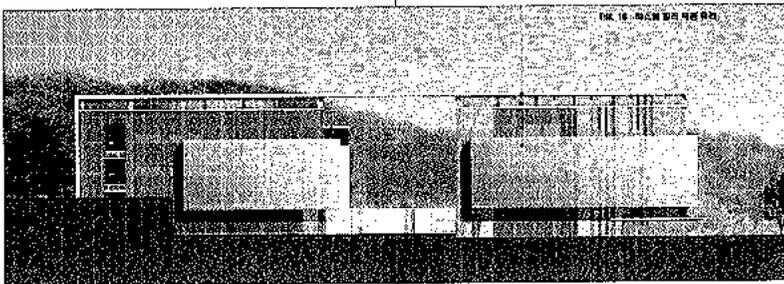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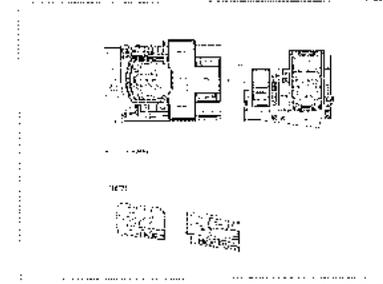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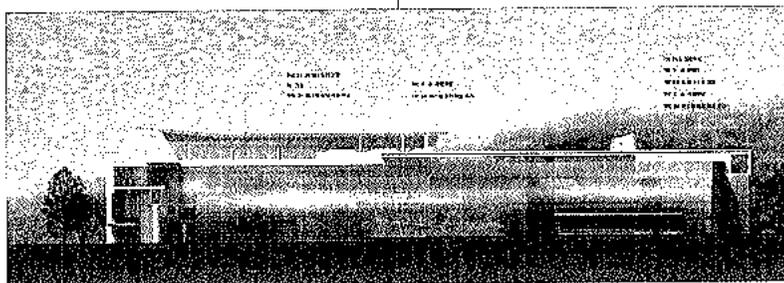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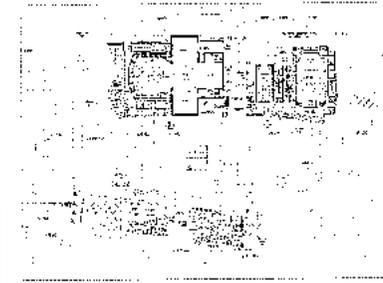
도서관 좌측면도



2층 평면도



공연장 우측면도



1층 평면도

##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Yongin Culture-Welfare Administration Town

###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이상립·박유진) + 현대 건설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산 68-19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36,449㎡ (경찰서부지제외) 사업부지면적 81,849㎡
건축면적	14,596㎡
연면적	76,214㎡
조경면적	28,630㎡
건폐율	17.83%
용적률	58.24%
구조	RC & SRC STRUCTURE
규모	본 청사 : 지하2층, 지상16층 의회청사 : 지하1층, 지상 5층

설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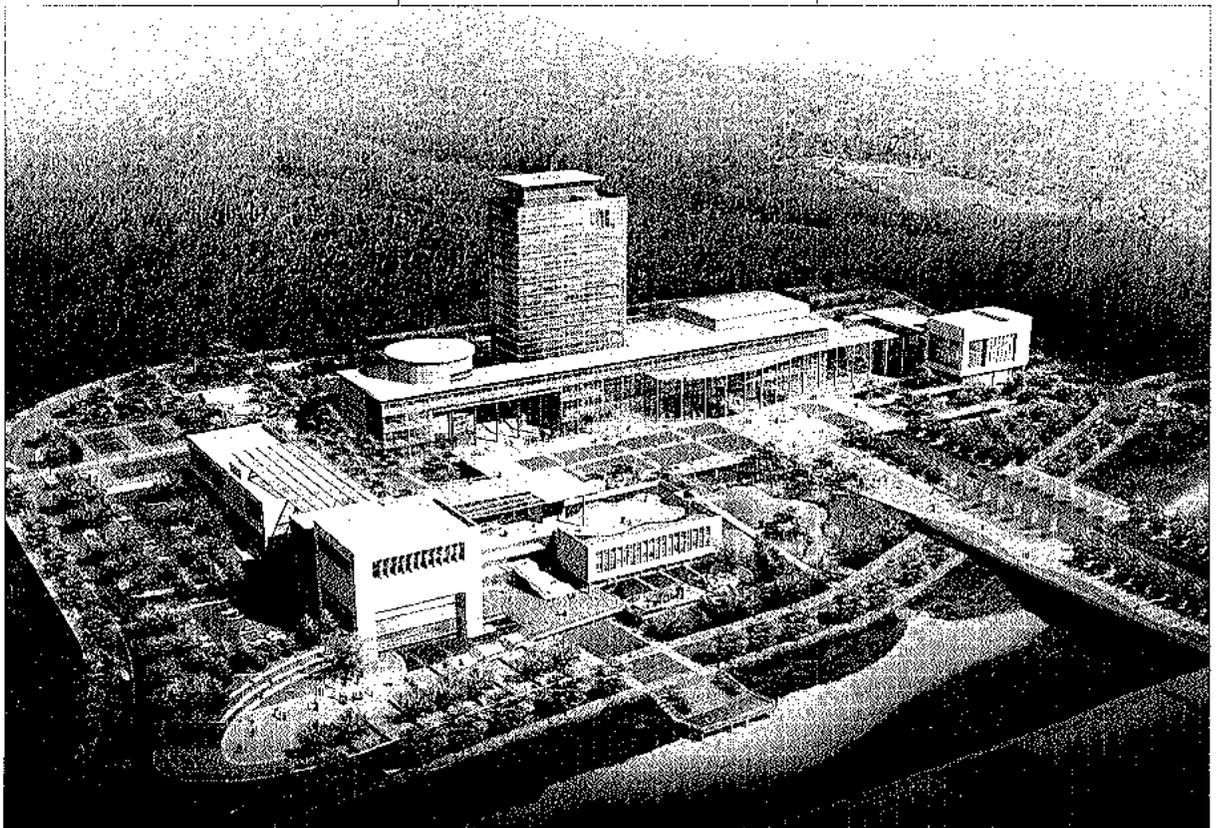
보 건 소 : 지하1층, 지상 3층  
복지센터 : 지하1층, 지상 5층  
문화예술원 : 지하2층, 지상3층  
강희성, 김원영, 송대섭, 김일영,  
박남규, 황정현, 정현주, 권미정,  
최봉열, 배관유, 박현수, 박범진,  
곽승호, 양만규, 허 혁, 조성준

“사람이 사는 곳”, “행위가 있는 곳”, “문화가 있는 곳”

자연과 역사를 가진 구도심과 최근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심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채 성장해 가고 있는 용인시는 부족한 행정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두도심간의 불균형과 지역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는 새로운 복합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청사의 주광장으로 서 다목적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 영역과 자연의 유입으로 치유와 휴식의 성격을 지닌 복지영역, 또한 다양한 행

사 및 이벤트가 가능하여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 대지를 구분하였고 각 영역의 중심에 데크광장을 구성하여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융화되도록 계획하였다. 주진입로인 42번 국도에서 시작하는 주말 가로공원을 따라 향후 계획되어질 경전철역사 앞 교통광장으로부터, 생태공원, 문화마당, 야외극장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문화벨트를 제안함으로써 단지 내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키며 좀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보행자 동선을 우선 고려하여 보행자는 행사마당을 통하여 시민마당으로 이어지며 각 시설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차량동선은 외부순환로에서 각 시설별 주차장과 데크하부로 연결하여 전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본청 및 의회청사는 기단부를 분절하여 서로 독립성을 가지며 그 사이로 자연을 유입시키고 2개층에서 진입하는 민원인과 3개층에 구성된 민원관계실들의 다기



능적 연결은 하나의 민원홀(ATRIUM)로 통합된다. 이는 내부환경의 쾌적성과 민원인들의 인지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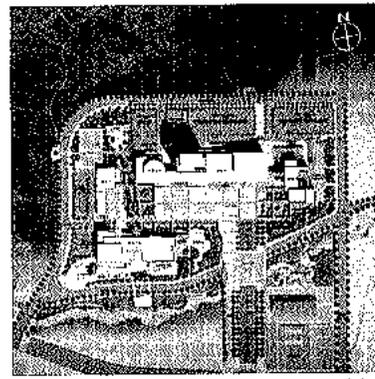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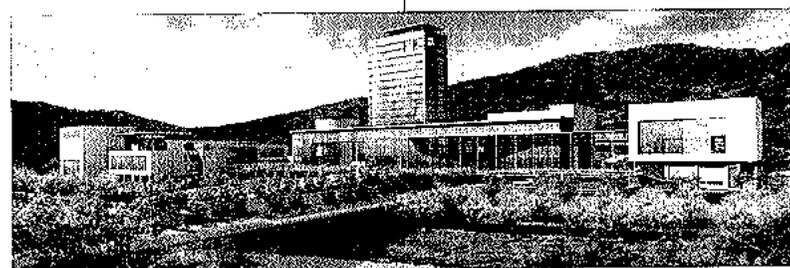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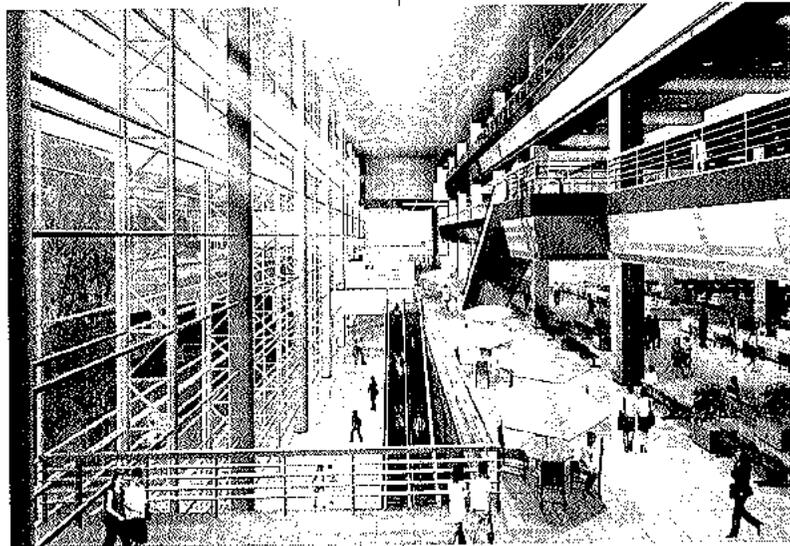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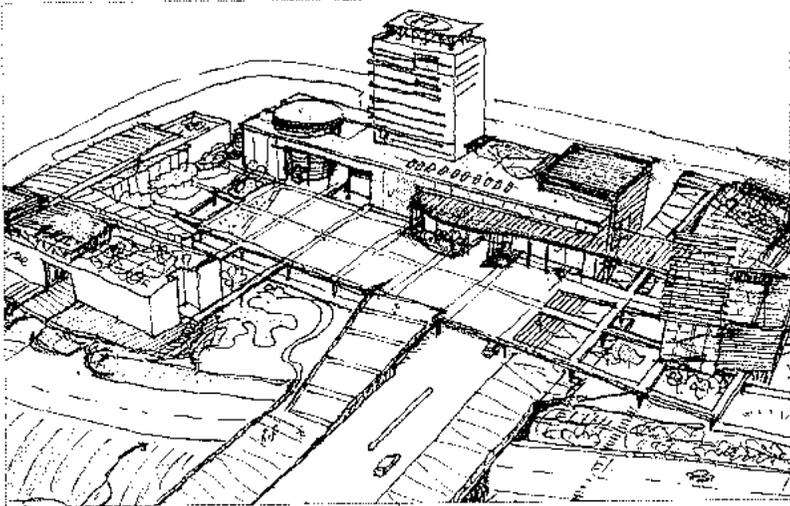
복지센터의 특징은 여러계층의 특성화된 시설과 치유, 건강, 복지 성격의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에 있다.

보건소는 Total Care Program이 가능한 구성을, 체육시설은 적절한 내부공간의 확보와 시각적 공유에 복지시설은 외부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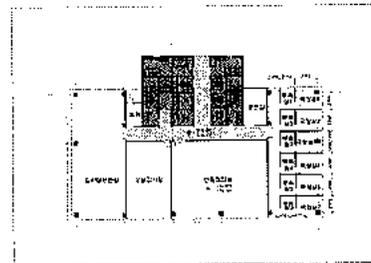
연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다.

아외 갤러리, 데크, 시청홀 등의 각기 다른 층에서 문화예술원의 홀로 진입,이용토록 계획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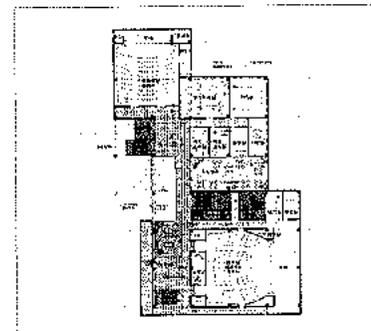
이는 추후 완성될 주변 행정타운의 중심에 문화벨트를 계획함으로써 미래 문화관광 도시 용인시의 이미지를 표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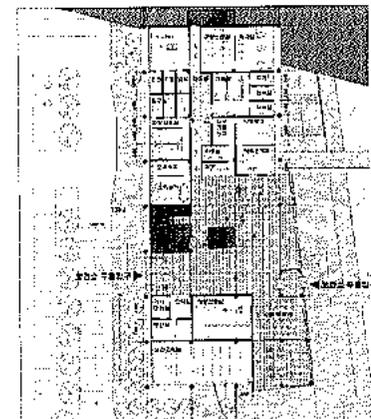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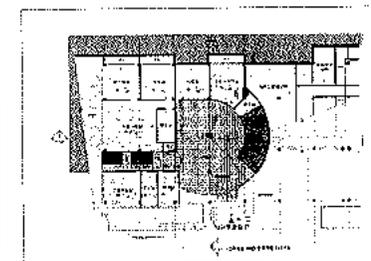
복지 3층 평면도



문화동 2층 평면도



보건동 1층 평면도



체육 1층 평면도

## 정상의 집 평화센터

Peace Center

▶ 당선작 / (주)현신종합건축사  
사무소(김하수) + (주)건우시종합  
건축사사무소(공순구)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번지 외 40필지
지역지구	미지정(대상부지중 일부는 상대 보전지역에 저축)
대지면적	27,881㎡
건축면적	4,449.38㎡
연면적	6,665.4㎡
조경면적	4,286.29㎡(법정: 4,182.15㎡)
건폐율	15.96%(법정: 25%)
용적률	12.5%(법정: 3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48대(법정: 44대)
내부마감	바닥-회강석운양갈기, 벽-지정

회강석, 천장-석고보드/아클릴릭  
페인트

외부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 외단열시스템  
목재판,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이윤석, 허양순, 문종욱, 이승훈,  
정영훈, 문봉호, 박용성, 김동욱,  
박재영

제주도는 1991년 4월 한?소정상회담 이후 세계 10개국 13명의 정상급 인사들의 방문과 2000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세계평화교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이런 제주도의 성격을 살려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를 기념관 화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진흥 및 평화센터의 기능을 통한 세계평화의 심 이미지를 구현 하는데 이 건물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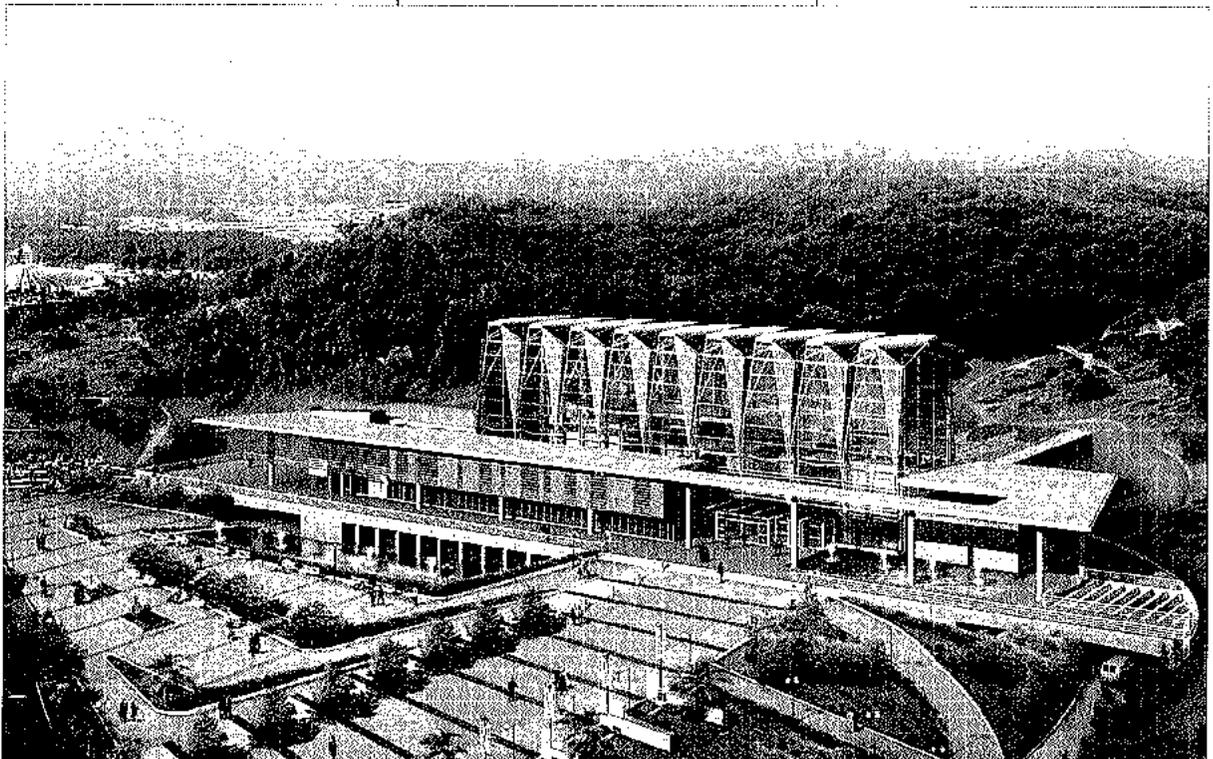
중문관광단지 2차 개발계획 단지내에 위치한 대지는 13%정도의 경사지로 전

면으로 멀리 바다가, 좌측으로는 컨벤션 센터가 보이는 산중턱(성천봉: 해발 95m)에 자리하고 있어 전망이 좋고 인 지성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대지는 서귀포시 경관 고도제한에 의해 높이가 20m이하로 뒤쪽은 8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의 높이를 높 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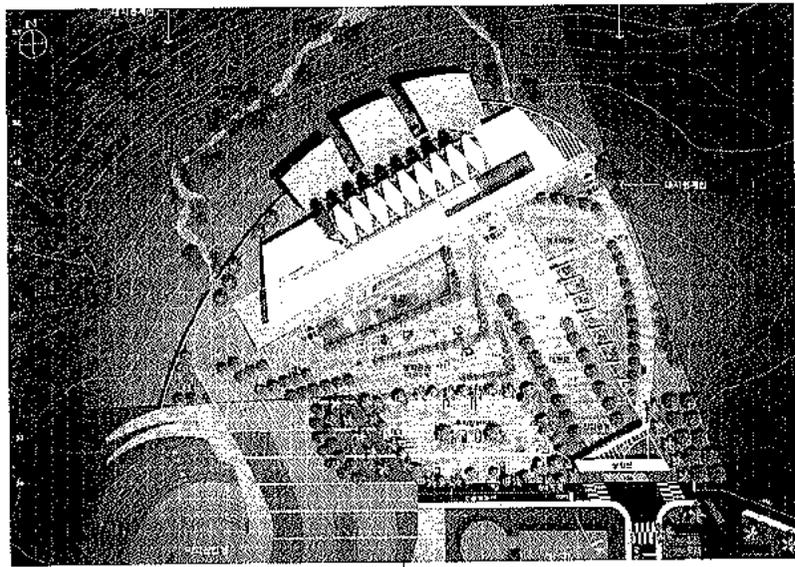
배치는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단면경사를 유지하면서 배치되었고 전면 야외 공연장부지 및 주차장부지와 연계시켰다. 평면은 크게 전시공간, 평화연구공간, 편의? 휴게공간, 사무관리?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건물의 중심에 수직적으로 높게 솟아올라있는 아트리움은 파도와 바람의 풍화에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주상절리를 그 형태적 모티브로 하여 시련을 극복해 온 정상들의 강인함과 의지를 나타내었고 수평의 기단부는 넓고 푸른 대양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갈매기의 평화로운 기상을 나타내는 양양백구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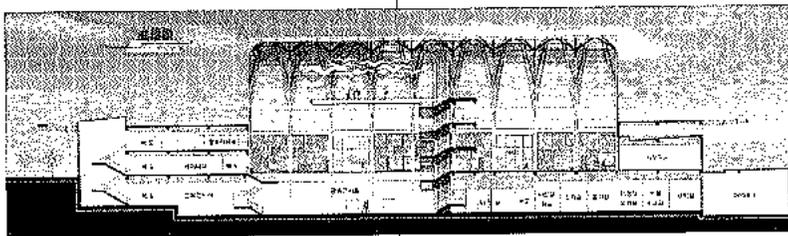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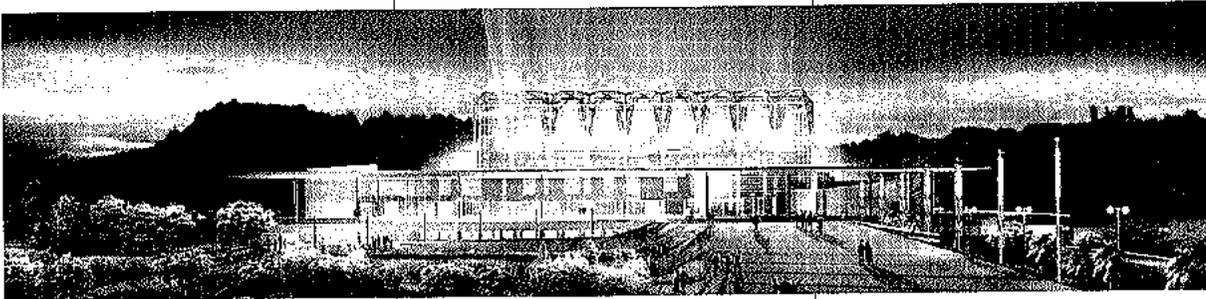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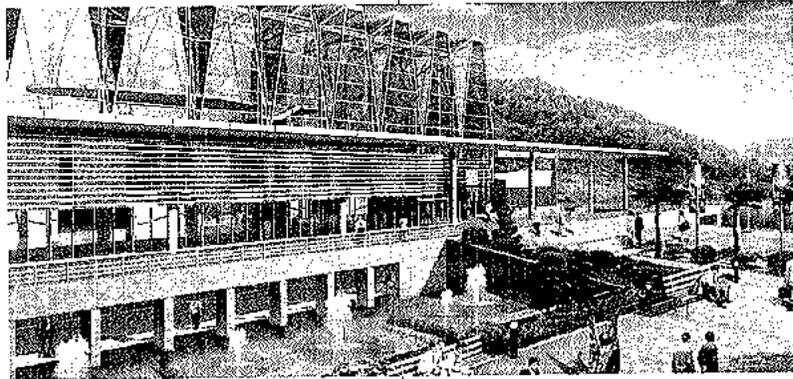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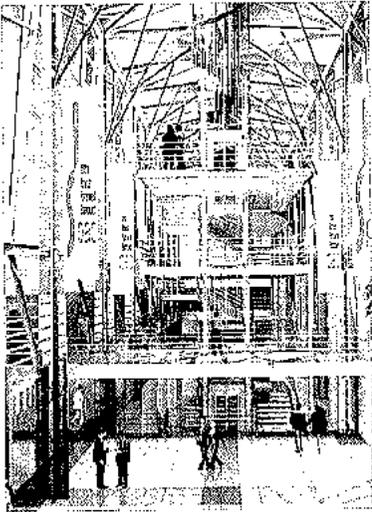


를 형상화하여 상징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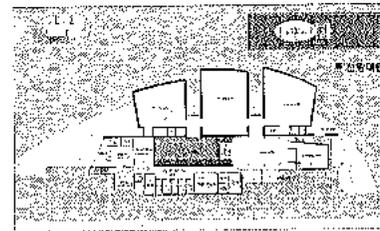
주상절리(柱狀節理)와 양양백구(羊洋白鷗), 수평과 수직, 민중과 정상, 평화와 화합을 디자인의 기본개념으로 하여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정상들의 화합과 평화 실현 의지의 노력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평화센터와 전시장이 되어지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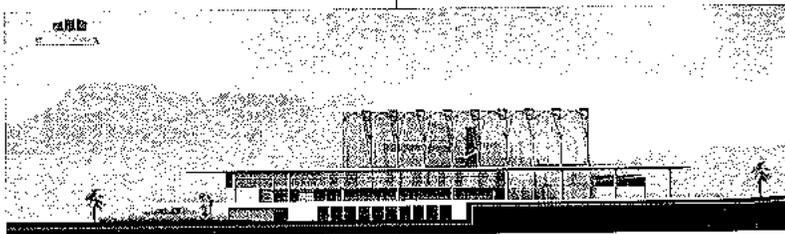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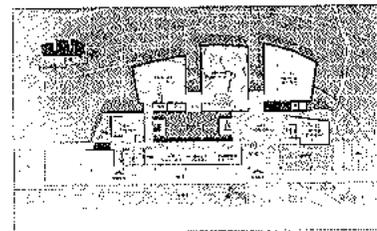
횡단면도



2층평면도



정면도



1층평면도

##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Gimhae Agricultural Wholesale & Distribution Center

▶ 당선작 / DST건축(박금종) + 도우건축(최덕호) + 포스코건설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48-13번지외(김해관광유통단지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67,480㎡
건축면적	18,928.50㎡
연면적	30,486.18㎡
건폐율	28.05%
용적률	33.6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SRC, 사장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총 670대(승용차:423대(장애인주차 12대 포함),

화물차:197대(수출용차량 2대 포함), 직원용:50대	
외부마감	T75우레탄 데크패널(PPR-500), T50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T18그린복층유리
설계팀	김중혁, 박성식, 황환진, 장운영, 조재훈, 박준용(DST건축) 유재유, 김정순(도우건축)

### 계획개념

#### ◀ 관광단지와의 연계성

- 김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향후 건설예정인 김해 관광유통단지과 인접해 있어, 관광유통단지를 고려한 의장계획과 동선을 계획하였다. 또한 관광단지에 면한 부분에 물류반입·출구를 지양하고, 완충녹지공간을 형성,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였다.(입구광장, 이벤트광장, 장터, 미당, 농산물 전시 및 학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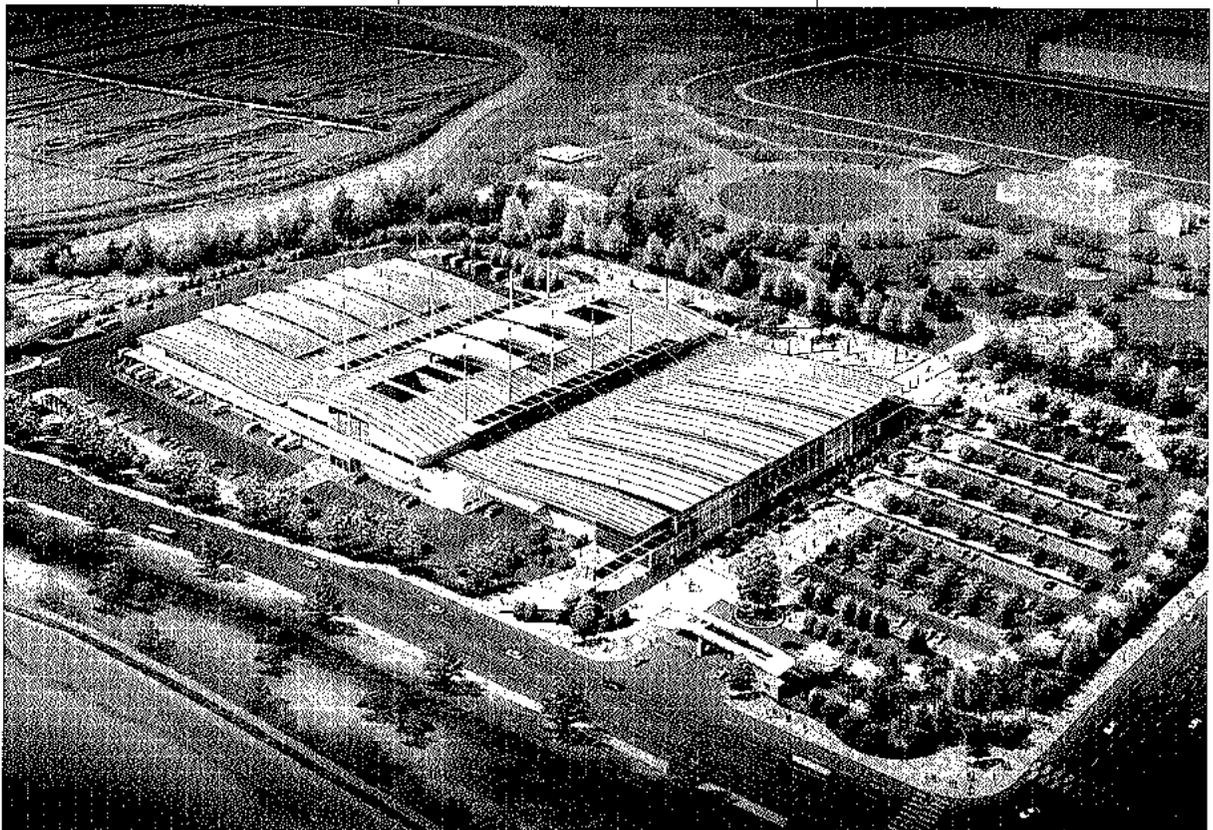
#### ※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물류센터 계획

-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시설의 연계성 및 유연성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첨단화, 진산화에 대비한 물류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였다. 물류 효율 극대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시설 및 Unit Load System 계획하였고, 수출상품의 입출하장과 생산농민들을 위한 농자재코너를 계획하였다.

#### ※ 고객중심의 유통센터 계획

- 활기찬 유통센터를 위하여 스펙코너, 금융시설, 유아방, 택배, 반포코너, 휴게 공간을 설치하였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유통센터(2층 강당의 다양한 활용 고려: 강연, 공연, 예식문화강좌, 육내 이벤트광장)로의 기능도 부여하였다. 우선시 고객을 위한 주차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 주차장의 녹지화 및 카트통행로 확보하였다.

#### ※ 가변적 공간 및 증축 고려



- 직판장의 수평 확장(가변성)을 고려한 집배송장(현장판매부분)과 연계하였으며, 추후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수평증축공간을 확보(관광단지측 일부, 직판장 우측부분)하였다. 건축공법을 채택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 기능별 동선계획

#### ㉮ 반입/반출 동선(화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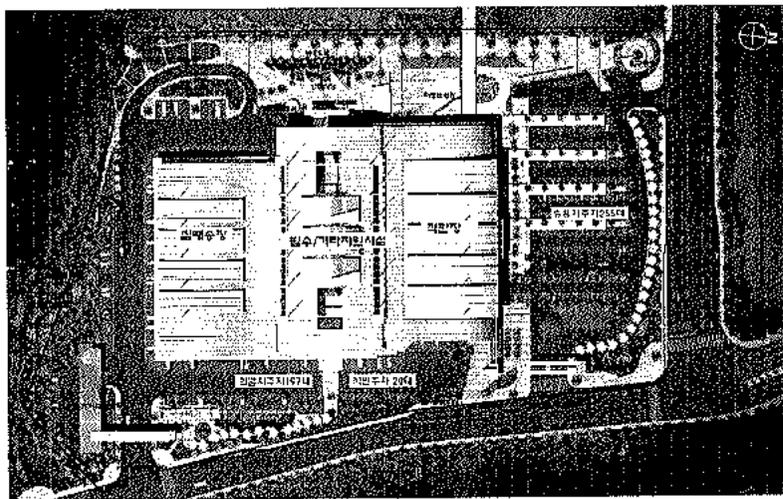
- 물류의 반입은 부지 동측의 20m에서 진입(64m 원화차로 확보2개차선 확보)하고, 반출은 부지 동측의 20m 도로에서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반입/반출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입하장/출하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내 차량 동선이 재순환 할 수 있도록 Loop동선을 계획하였다.

#### ㉮ 일반승용차량 동선(고객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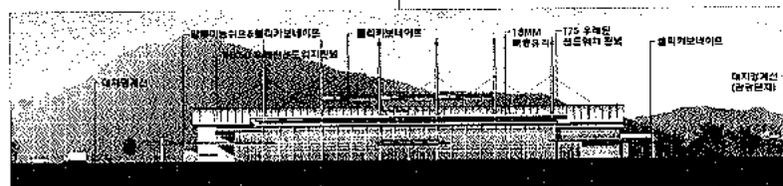
- 일반승용차량의 주진입은 부지 동측의 20m도로(35m 원화차로 2개차선 확보), 부진입은 북측의 30m도로에서(30m 원화차로 확보) 진입, 일반차량의 진출은 부지 북측의 30m 도로에서 진출(145m 원화차로 2개차선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진출입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반통행, 원활한 지하주차를 고려하여 진출입구의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 ㉮ 고개 이용자 동선(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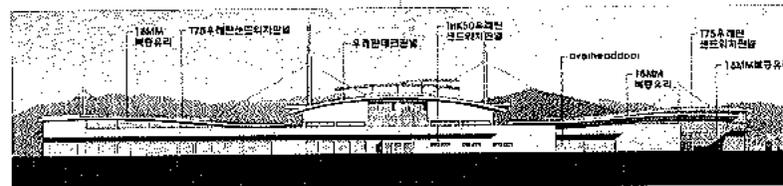
- 향후 개발될 관광유통단지와 연계하여 보행자 동선을 계획하였다. 보행자의 진입관장은 북측에서 30m 도로 및 동측 20m 도로변에 계획하였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동선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주계획방향이다. 고객주차장과 직판장의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과 차량이 국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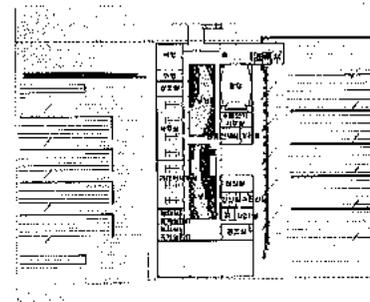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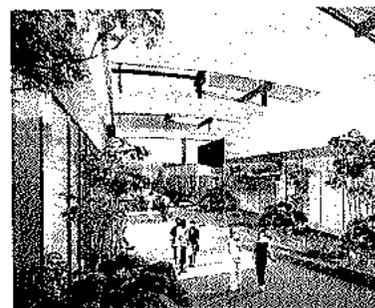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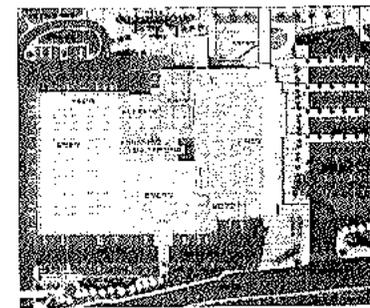
북측면도



동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이상림·박유진)

대지위치	김해시 장유면 산로리 48-13번지 외 일원(김해관광유통단지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 (유통업무설비)
대지면적	67,480㎡ (20,413평)
건축면적	25,477.00㎡ (7,706.8평)
연면적	31,991.88㎡ (9,677.54평)
건폐율	37.75 % (법정 : 80%이하)
용적률	35.20 % (법정 : 100%이하)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종합유통센터)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 철골조 (지상)
주차대수	859대 (승용 367대, 화물 224대)
외장재료	S/W PANEL, 불소수지강판, 복층유리
설계팀	박운석, 윤재석, 장홍만, 박상현, 이재영, 백승훈, 김성한, 김진철, 이종영, 이민선

INTER - ACTION BOX

김해관광유통단지동측에 면한 약2만  
평부지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  
하는 프로젝트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  
과 지침분석, 사례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제를 설  
계주안점을 설정하였다.

그 첫째, 도매와 소매는 본 유통센터가  
갖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도매시  
장과 달리 도매와 소매의 각 특성을 고  
려한 계획, 둘째, 관광과 유통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김해관광 유통  
단지내에 위치한 / 본 SITE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광단지외 본 유통센터와의  
보다 현실적인 연계방안제시,  
셋째, OLD & NEW 는 김해의 역사  
성과 유통시설의 첨단성 측면에서, 지  
역성과, 역사성을 현대적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김해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획.

넷째, 인간과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어

우러지는 보편적인 요구 외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센터로서 요구되는 친환  
경적 시설 계획.

이상 4가지의 주안점을 각기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는  
inter- action box로 통합하여 유통  
센터의 기능성과 김해의 지역성을 최적  
화한 김해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도매와 소매의 어울림 측면에  
서 배치구성은 도매시설인 집배송장을  
주요동동선과 인접시키며, 소매시설인  
직판장은 관광단지의 보행동선과 밀접  
하게 배치하고, 평면구성에서 집배송  
장은 지붕의 분절과, 통로의 위계적 구  
성 등을 이용하여 대공간의 공간 인지  
성을 확보함으로써 분류 및 이동이라  
는 물류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직판장은 다양한 이벤  
트 시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쇼핑  
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관광과 유통의 측면에서 관광단지와의 연계방안으로 배치계획에서는 관광단지 전면의 공개공지, 이벤트광장인 풍요의 마당과 프로그램 주차장인 행사장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이벤트거리, 시장의 거리로 활성화하고, 내부공간계획에서는 관광단지의 특성인 관람과 체험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옥외 이벤트광장, 고객문화센터, 인터넷플라자, 직관장의 관람자 통로, 샘플전시장, 집배송장에 이르는 공간을 유통체계의 관람 및 교육 코스화하였다.

세 번째, old & new 즉, 역사성 표현의 관점에서 오랜 김해의 역사를 과거 지층의 판으로 설정하고 이의 용기와 분화를 통해 역사성을 함축적으로 담은 새로운 조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수로왕의 난생설화를 형상화한 알 형태의 Eco-sphere, 고대 가야의 유통단위인 철정의 모듈화를 차용한 집배

송장, 가야 배 모양 토기를 모티브로하여 역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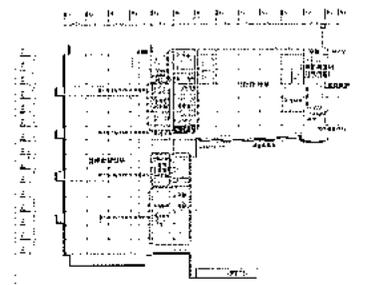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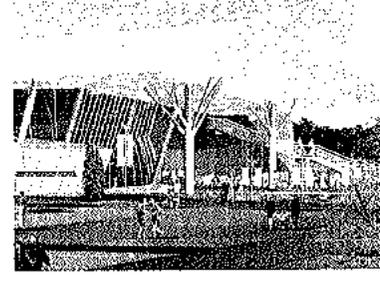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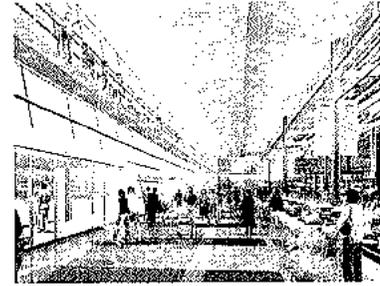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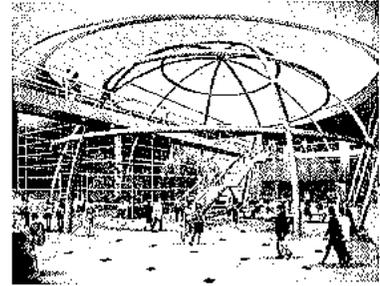
네 번째,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한 친환경계획으로 직관장 진입부에 중정인 Eco-sphere를 설치함으로써 자연의 빛과 바람 그리고 나무가 어울린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집배송장과 직관장의 각기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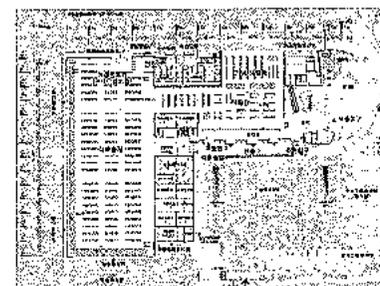
- 집배송장은 원활한 화물차량동선을 고려해 진입 축에 맞게 배치하고 남해지선국도에서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직관장은 교통의 주진입로인 20m 동측 도로 축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주차장에 면하여 정면성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이용자의 인지성과 짧은 고객동선에 의한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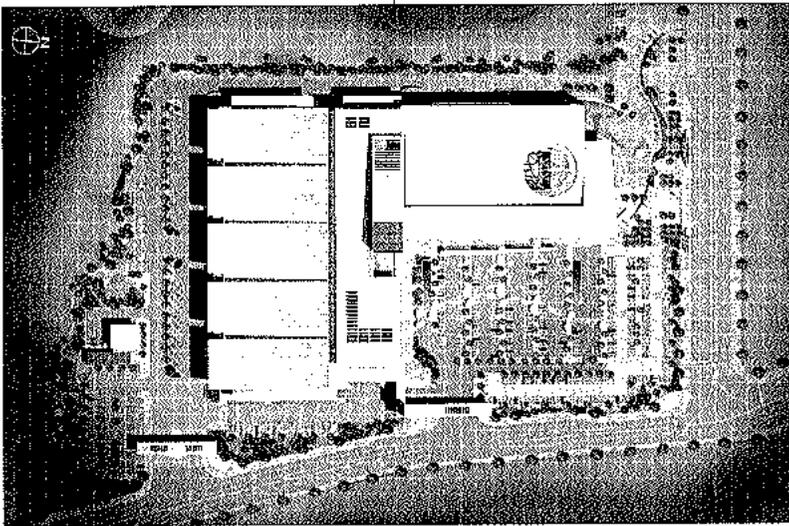
직관장 측면에 이벤트장을 설치하여 보행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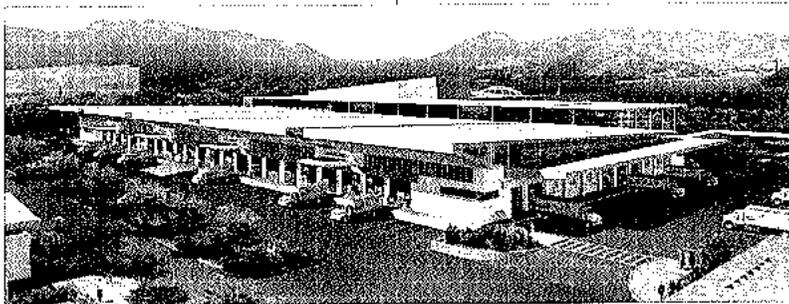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u

신건축

World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a+u

2002년 2월

이번 호에서  
는 특집으로  
'호텔과 스파  
(Hotels &  
Spas)'가 마  
련되었다. 소  
개된 호텔들  
은 전세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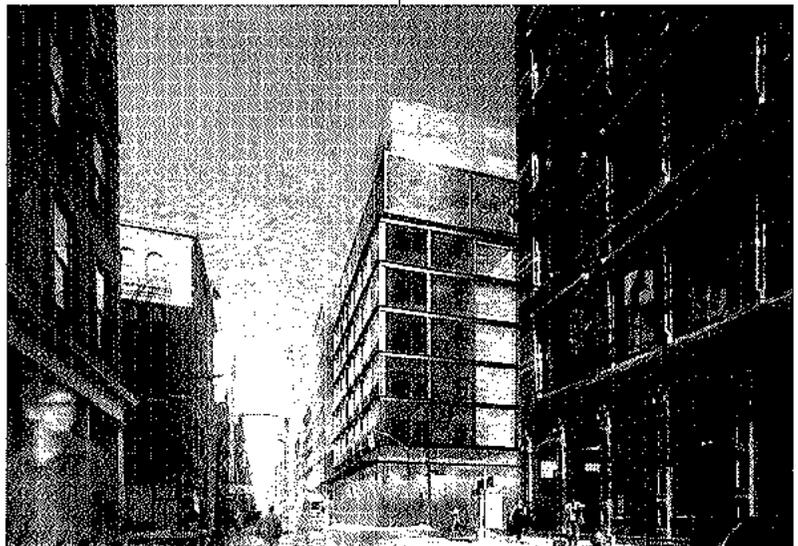


으로 체안을 가진 대규모 호텔들이 아니  
다. 중소규모의 호텔들이 대부분으로, 도  
시의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문제, 기존 건  
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문제 등을  
담고 있고, 소개된 모든 작품에서 건물  
외피의 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의 작가들 중 잘 알려  
진 건축가들은 장 누벨(Jean Nouvel)과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등  
이다. 또한 또 다른 특집으로 아가 칸  
(Aga Khan) 건축상을 다루고 있다.

■ 특집1: 호텔과 스파

▶장 누벨의 호텔 브로드웨이(Hotel  
Broadway): 인접한 건물들과 벽들을  
공유하며 역사적인 건물들이 배곡히 들  
어진 소호 거리, 이곳은 뉴욕에서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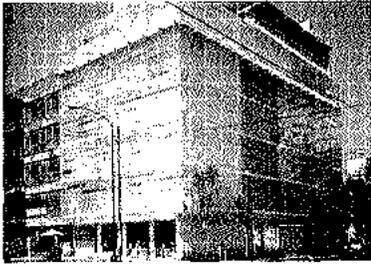
독특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구역이다.  
이곳의 모든 건축계획들은 위원회의 엄  
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호텔이 들어  
설 부지는 블록의 말단부로서 3면이 도  
로를 면해 입면이 구성된다. 장 누벨은  
인접한 건물에서도 호텔건물을 이격시  
켜 계획함으로써 건물을 수직으로 더 쌓  
아올리고, 평면상의 객실 배치를 유리하  
게 함과 동시에 보다 독립적인 구성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주변 건물로부터의 이  
격은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었으나, 이웃건물과 호텔 건물 사이에 연  
못을 만들고 이를 이웃 건물의 벽면에 바  
싹 붙여 계획함으로써 이웃 건물과의 연  
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건물 정면에 만들  
어진 수직방향으로 갈라진 틈은 뉴욕의  
건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계단을  
재해석한 모습이 보여진다. 이 좁은 틈  
사이에 비상 계단이 매달려 건물의 외관  
을 장식할 뿐 만 아니라 이 틈은 건물 매  
스를 분절하여 육중한 느낌을 감소시키  
고 있다. 건물의 파사드는 뉴욕의 마천루  
들의 골격들을 연상시키는 철골과 색유  
리로 구성된다. 이 색유리는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는 외부의 모습이 잘 투영되는 질은 적색  
의 것으로, 소호 거리의 풍경을 조망하면  
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투  
숙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 준다. 이 반 투명의 유리는 호텔과 주



호텔 브로드웨이 (Hotel Broadway)

변 도시가로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융합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텐 아키텍토스(TEN Arquitectos)의 호텔 하비타(Hotel Habita): 장 누벨이



호텔 하비타(Hotel Habita)

사용한 반투명의 유리는 유사한 목적과 형태로 호텔 하비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텔 하비타는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하면서 기존 건물에 새로운 외피를 입혀 입면을 일신하는 역할이 더해진다. 유리의 입면은 기존 건물의 골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입혀졌으며, 이 사이 공간은 새로운 발코니나 통로를 만들어냈다. 유리 입면은 젖빛 유리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장방형 혹은 수평선 모양으로 된 투명한 부분들을 삽입하여 외관의 유일한 장식인 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도시의 광경을 조망할 수 있는 틈새가 되고 있다.

▶도미니코 베로의 컨퍼런스 타워: 건물의 외피에 대한 강조는 도미니코 베로의 컨퍼런스 타워 호텔의 계획에도 나타난다. 건물의 외피를 모두 알루미늄 시트에 작은 원형창을 내어 구성함으로써 마치 펀치드 메탈을 확대하여 건물 전체를

감싼 듯한 인상을 준다. 원형창은 색깔을 각기 달라하여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객실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조망창이 되기도 한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갖는 호텔의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패턴의 외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알루미늄시트는 낮에는 햇빛을 반사하여 바르셀로나시에 박혀진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밤에는 무수히 많은 원형창에서 빛이 흘러 나와 도시를 밝히는 랜턴처럼 건물은 우뚝 서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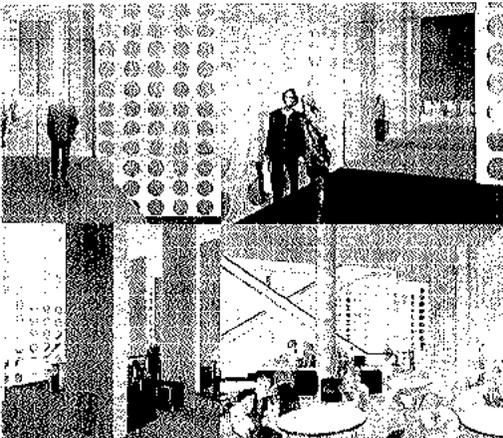
▶더글라스 월레스 아키텍츠 앤 디자이너스(Douglas Wallace Architects and Designers)의 호텔 모리슨(Hotel Morrison): 기존 건물의 활용은 호텔 모리슨에서 호텔 하비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현된다. 보존지구내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호텔 브로드웨이와도 유사한 배경을 갖는다. 건물이 들어설 곳에는 원래 조지안 양식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파사드의 일부분만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건물의 나머지 외관도 복원된 파사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사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유리와 절골로 구성된 최상층은 조지안 양식의 건물에 경쾌함을 더해준다. 도시 불력의 모퉁이 부분에 자리잡은 부지는 그 모서리가 예각을 이루어 건물내에 직교하지 않는 두 개의 축을 발생시켜 내부공간 구성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있다. 건물의 인테리어는 흑과 백이 강한 대조를 이루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 특집2: 아가 칸 건축상(Aga Khan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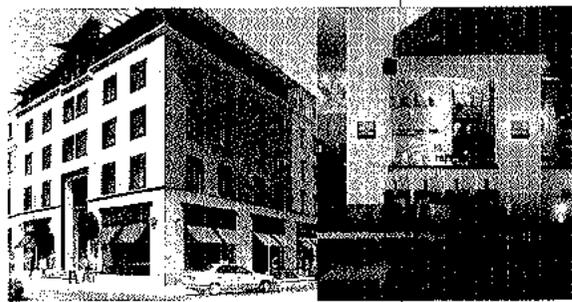
아가 칸 건축상은 건축을 통해 이슬람 문화의 이해와 평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슬람교의 시아(Shia)이슬람파의 제 49대 지도자인 아가 칸에 의해 1977년 설립되었다. 이 상은 현대 디자인, 공동 주택, 커뮤니티시설의 개량이나 개발, 개축, 재정용, 지역적인 보존계획, 나아가 경관계획이나 환경계획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걸출한 건축의 실례들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이다. 또한 이 상은 이슬람교가 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십분 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건축개념을 장려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선고 과정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 문화적, 정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축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산의 재료나 최적인 건축기술을 사용,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낸 계획, 다른 지역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상은 3년 주기의 스케줄로 계획되어 아가 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상금총액 50만달러(건축상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다)는 3년마다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건축작품에게 돌아간다. 1977년이래 수상작의 발표는 제 7회까지 완료되었으며, 이 기간에 세계각국으로부터 수집된 건축계획의 신고자료는 6,000건을 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수상작 75작품의 선정을 마쳤다. 제8회는 1999년에서 2001년까지를 해당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가 칸과의 인터뷰 및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한 '제프리 바와(Geoffrey Bawa)의 전생애 작품들'을 포함한 수상작들이 소개되었다.



컨퍼런스 타워



호텔 모리슨(Hotel Morrison)

## 신건축

200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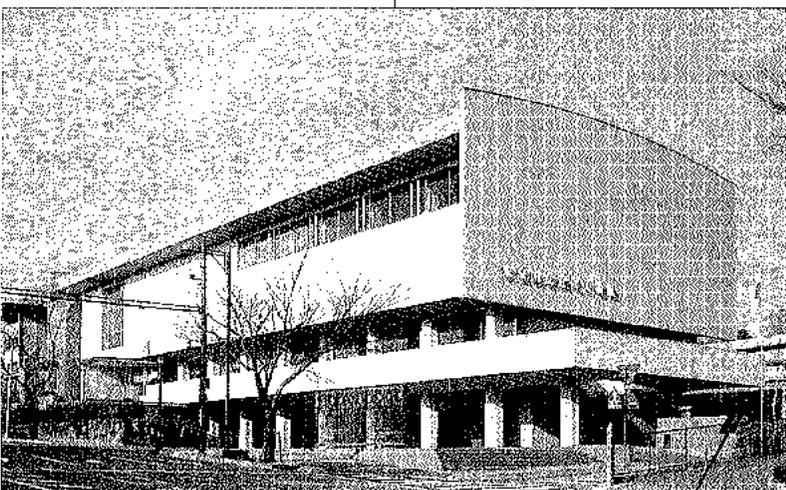
최근 특집을 꾸준히 기획하고 있는 신건축지는 이번 호에도 최신작 품들을 두 개의 특집으로 엮어 소개하고



있다. 특집1은 '건축의 리뉴얼-재생의 디자인'으로 얼마전에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 바 있다.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증개축 안을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특집2는 '의료복지시설의 현장으로부터'로서 양로원, 재활원, 여성 클리닉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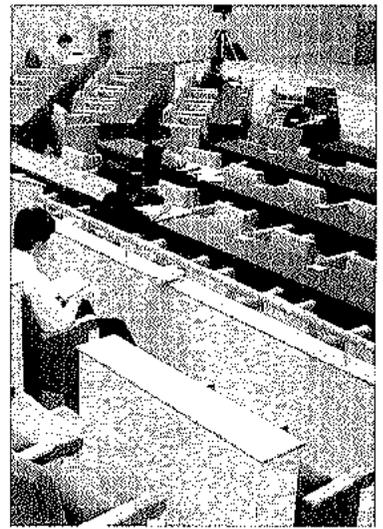
### ■ 특집1: 건축의 리뉴얼-재생의 건축

▶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증개축(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영선부 + 사카구라(坂倉)건축연구소 설계): '동경국립근대미술관'은故 타니구찌요시로(谷口吉郎)의 설계로 1969년에 완성된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建築資産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皇族을 따라 만들어진 제방 길에 의해 펼쳐지는 시퀀스, 물과 녹지와 石壇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매력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都市資産이다. 증개축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으로서 재생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당초의 볼륨의 배치는 3층 높이의 新館을 기존 건물 옆에 증축하는 것이었으나, 이 신관 건물의 증축은 건물의 주요 파사드를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사카구라의 제안인 증축되는 거름은 'L' 자형으로 만들어 건물의 파사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 건물을 감싸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에 부족한 바닥면적은 기존 건물 바닥의 오픈(open) 부분에 슬래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었다. 새로운 건물의 증축과 기존 건물의 내부 공간의 재배치에 의해 새로운 관람동선과 기능 배분을 갖는 미술관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여기에 기존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이 함께 이루어졌다. 새로운 건물은 기존의 외관을 거의 보존한 채 내부에는 새로운 미술관의 신선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원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던 스킵플로어의 전시공간과 거대한 바닥의 오픈 부분에 의해 보여졌던 힘찬 공간감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외관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 내부의 공간 조형을 보존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건축물 자체로서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느냐, 도시의 한 장소로서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증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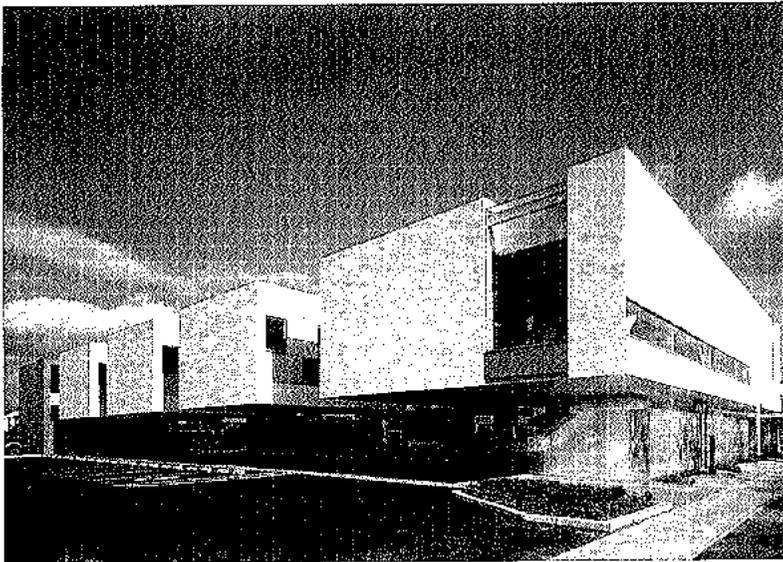
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건축물 자체로서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느냐, 도시의 한 장소로서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 이바라키켄리츠(茨城縣立)도서관(茨城縣토목부영선과 + 나켄세케이(日建設計)설계): 이바라키현립도서관은 본래 이바라키현의회 의사당건물을 도서관으로 리노베이션 한 것이다. 건물의 외관이나 구조의 변경은 거의 없이 리노베이션은 이루어졌다. 원래의 건물은 중앙부에 입구 홀, 대회의실, 의회장 등 대형 공간을 배치하고 그 양측의 좁고 긴 공간을 여럿으로 쪼개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회의실은 폐가서고로, 사무실 공간은 간막이 벽이 모두 제거되어 개가식 서고로 개조되었다. 특이할 만한 부분은 본의회장. 계단식으로 구성된 의회장 공간은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 시청각 홀 및 열람실로 개조되었다. 시청각실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열람실로 사용되는 이 곳은 음식물의 반입이나 사담이 일체 금지되어 매우 엄숙한 가운데 책을 볼 수 있어 과거 입법 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바라키켄리츠(茨城縣立)도서관

▶ 특집2: 의료복지시설의 현장으로부터 특집은 의료복지시설의 전문가들에게 향후 의료복지시설의 계획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록한 것과 최근 완성된 의료복

특집은 의료복지시설의 전문가들에게 향후 의료복지시설의 계획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록한 것과 최근 완성된 의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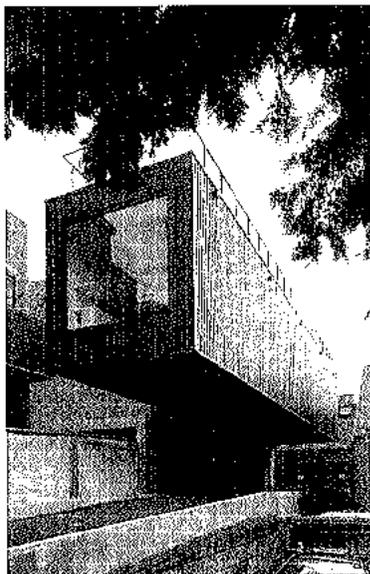
세카이(關井) 레이디스 클리닉

지시설의 예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경대 건축학부 교수인 長澤泰斗로부터 앞으로의 의료복지시설의 방향에 대해 묻고 있다. 長澤泰斗 교수는 앞으로의 의료복지시설은 개별분해화하여 주거생활의 한가운데에 녹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답하고 있다. 이어서 의료경영학과 교수와 건축가 등 4명의 전문가에게 의료복지시설의 경영과 건물의 계획방침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소개된 작품은 '오오타(大田)區특별요양노인홈(니켄세케이 설계)', '고쿠라(小倉)리해빌리테이션(rehabilitation)병원(야스이 마사시로 설계)', '세카이(關井) 레이디스 클리닉(이베 히토시(阿部仁史) 설계)' 등 3작품이다. 오오타구 특별요양노인홈은 아늑한 공간감을 위해 'L' 자 모양의 중정형 배치를 3번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고쿠라병원은 재활병원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이 병원 안에 존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세카이 레이디스 클리닉은 젊은 여성 환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미니멀하고 깔끔한 공간을 분절된 매스들의 연속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 작품소개

이 밖에도 NHK기술개발국, 오오사카

시주택국, 니혼세케이(日本設計), 그리고 시저펠 리가 가세한 설계공동기업체(NCC)의 설계로 이루어진 'NHK오오사카방송회관 및 오오사카역사박물관', 클라인 다이삼(Klein Dytham) 아키텍츠의 'undercover(스튜디오건물)'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 : 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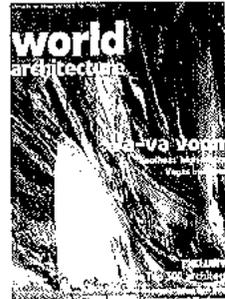


undercover(스튜디오건물)

World Architecture

2002년 1월

매년 World Architecture 에서는 직원 수와 수익에 따라 전세계 설계사무소의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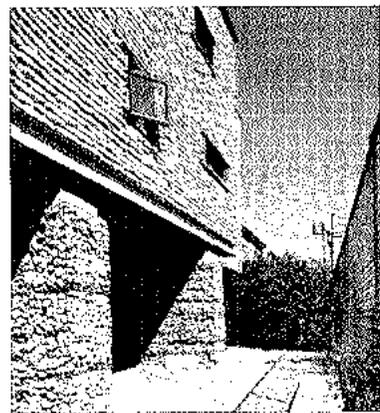
결과가 1월호에 소개되어 있다. Rem Koolhaas, Dominique Perrault, Frank Gehry의 근작들도 다루고 있다.

■ 근작소개

▶ Rem Koolhaas의 Las Vegas Guggenheim & Hermitage Museum Venetian 호텔 시장의 구건하임 미술관 유치 노력에 힘입어, 렘콜하스가 카지노 문화와 고급예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 Sarah Wigglesworth Architect의 런던 주거 겸 오피스

런던 북부의 이 주택은 주거/직장, 도시/시골, 심각함/유회의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주택과 오피스의 두 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 나무 기둥, 지푸라기 등 다양한 자연 재료를 통해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자아낸다. 그러나 기차 소음이 들리는 방향으로는 모래주머니의 벽면을 갖고 있으며, 침실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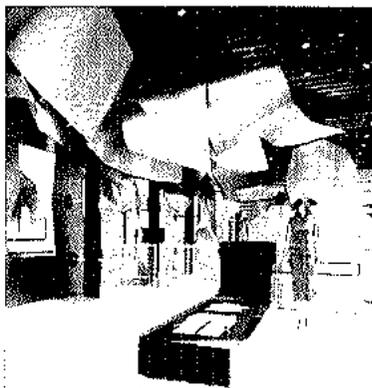
런던 주거 겸 오피스

은 지푸라기를 사용하는 등 재료들을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

▶ Dominique Perrault의 프랑스 Lyon 미디어테크

파리의 국립 도서관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맡게 된 이 프로젝트에서 Perrault는 미니멀리스트 경향의 추상적인 외피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간단하고 명확한 공간 구분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Frank Gehry의 미국 뉴욕 Issey Miyake 상점 인테리어



미국 뉴욕 Issey Miyake 상점 인테리어

인테리어 작품이지만 Gehry가 건축에서 보여주는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물결치는 철판이 상점 천장을 휘감으며 혼돈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동 가능한 스테인레스 진열장들이 내부의 질서를 잡아주고 있다. GTECTS에서 디자인한 스테인레스 서랍장들이 Gehry의 컨셉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 ■ 전세계 300대 설계사무소

World Architecture에서 9년째 실시하고 있는 본 조사에서 1위 Nikken Sekkei에 이어 HOK, Gensler, SOM, NBBJ가 상위 5등을 차지하는 등 거대 설계사무소들이 꾸준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설계사무소들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에 분포하고 있으며, 오스트

레일리아 설계사무소 두 곳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눈에 띄었다. 중국의 대형 설계사무소는 거의 대부분 홍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요 경제대국이 아닌 곳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무소 중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멕시코의 GVA & Associates로, 10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설계사무소들은 300위안에 들지 못했다. 종합 순위와 아울러 지역별, 건물 종류별, 순위도 다루고 있으며, 911테러가 건축계에 미칠 영향 분석을 곁들이고 있다. 이어서 순위 내에 든 설계사무소별로 근작들이 소개되어 있다.

#### ■ 기타

▶ Pod stool로 유명해진 Janos Korbán, Stefanie Flaubert의 디자인 세계, ▶세계 타일 재료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Bologna에서 열린 타일 박람회 소식, ▶뉴욕 MoMA에 작품으로 전시된 Ayse Birsel의 오피스 가구 등을 다루고 있다.

##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1월

Morphosis와 Mechado and Silvetti의 근작을 소개하고 있는 본 호는 건축 드로잉, 신경제와 건축에



관련 에세이도 함께 담고 있다. 건물 타입별 사례 연구에서는 교통 시설 관련 건물을 다루고 있다.

#### ■ 드로잉: 창의적인 연결고리

컴퓨터는 분명 매력적인 도구이다. 전통적인 2차원 도면의 수준에서 벗어나 건축가 각 직접 3차원적 모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펜과 연필을 가지고하는 드로잉은 보다 예리하고 정확한 비례와 축척을 찾기 위해 손과 눈과 뇌를 동원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설계하고 있는 Frank Gehry도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드로잉으로 시작한다. Office dA도 역시 투시도 드로잉을 공간 인지의 한 수단으로 삼고 삼고 작업을 하고 있다. 수채화와 드로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명한 Steven Holl은 건축의 운동성을 그의 드로잉을 통해 전개시킨다. Kelly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미래경제를 움직일 정보 컨설팅에 주력한 스튜디오도 생겨났다. AMO는 Rem Koolhaas와 Dan Wood가 이끄는 연구집단으로서 Universal Studio사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문화와 조직 아이덴티티 아이디어 제시하였다. 큐레이터, 철학자, 교수, 저술가 등의 광범위하면서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Prada, Conde Nast, 하버드 대학등의 고객에

게 일정한 시각에서 분석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 디자인 인텔리전스와 신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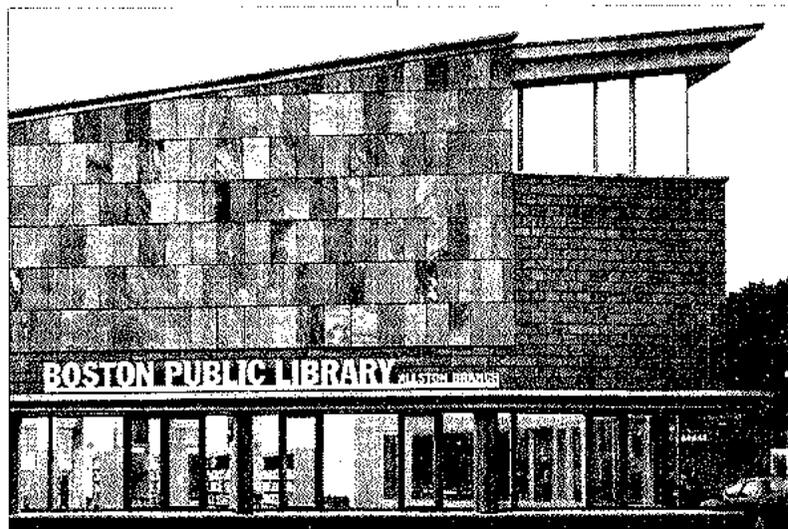
Kevin Kelly의 저서,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에 의하면 신경재는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관계 등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강하게 연계되어, 새로운 형태의 시장과 전자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현상이 건축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990년대에 건축계도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Ben van Berkel 과 Carolin Bos가 이끄는 UN(United Network) studio가 이에 관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들의 저서인 MOVE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상의 건축스튜디오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건축주, 투자자, 기술자문인들의 협력조직에서 디자인 엔지니어, 회계사, 매니지먼트 전문인, 공정관리인,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능했던 것이다.

■ 근작소개

▶ Morphosis의 Toronto 대학, 대학원생 기숙사  
 근대 집합주거 유형을 게이트웨이로서의 대담한 상징과 결합시킨 건축물로서, 토론토 대학 캠퍼스의 외곽에서 입구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리 입면의 복도와 캔틸레버로 지지되는 사인이 정면의 주

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의 면은 모두 다른 재료와 구성으로 처리되었다. 121개의 개실은 내부정원을 향하고 있으며, 건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수공간과 페인팅된 피어와 같은 요소가 드라마틱한 공간의 중정을 형성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중정 측 외벽은 중정으로 들어온 빛을 실 내부 깊숙이 반사시켜 들어오도록 한다.

▶ Mechado and Silveti의 보스턴 공립 도서관



보스턴 공립 도서관

중규모의 목조건물들로 시가지를 형성하는 보스턴, Allston이라는 지역에 상대적으러 거대한 규모로 들어서는 이 건물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건축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주변 상황에 편안하게 어울리는 건물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있으나 마나하거나 구태의연한 모습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건축가는 코르크 바닥, 스틸기둥의 목재마감등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사용이나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Alvar Alto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이라는 시설의 단일한 매스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건축가는 긴 입면을 재료를 바꿔가며 분절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밖에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Eden Project ▶Rem Koolhaas의 라스베이가스 Gugenheim

and Hermitage 미술관이 소개되었다.

■ 사례연구: 교통시설

공항과 주도심들과의 기차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기차는 이미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 고속전철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역사도 새롭게 해석하여 디자인되었다. Paul Andreu의 Paris, Charles de Gaulle 공항의 투명한 유리 역사와 Bothe

Richter의 Frankfurt 공항의 원구 형태의 역사, 그리고 Santiago Calatrava의 낭만주의적 날개 형태의 리옹 공항, Satolas 역사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 기타

▶ 빠르고, 싸고, 우수한 품질로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서 건축가, 시공자, 재료 개발자, 제품생산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것을 제시하며, 그 밖의 건축 제품 생산의 시스템화 및 모듈화를 제안한다.

▶ 디지털 기술로는 기상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 조명 특집으로 스톡홀름 Nordic Light Hotel과 뉴욕시 장난감 쇼펍몰 Toys 'R' Us의 조명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번역 : 전신영)



Toronto 대학, 대학원생 기숙사

## 2002년 법인세 신고 안내

### ◆ 신고대상 법인

- 사업연도가 2001.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 까지 연장

### ◆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금년에 신고하는 2001.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li> <li>-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적용 (8%p 인하)</li> </ul>

#### 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 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다음 하나의 기준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업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 매출액 1,000억원

####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li> </ul>

#### ⑤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출자대상 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 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 ⑦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충충당금.

##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지역사업자 세부담 경감제도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및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지역사업자의 거래자료가 노출되고 과세표준이 크게 양상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법에서는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03.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부담 완화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 동 제도를 절세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POS 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 적용대상자

- ▶ 신용카드가맹 사업자, POS 도입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등세액공제 신청서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자

### ◆ 경감세액

- ▶ 다음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text{세액공제} = \text{신출세액} \times \frac{\text{신용카드등수입증가금액} + \text{총수입증가금액} - \text{적용금액}}{\text{총수입금액}} \times 50\%$$

※ 공제한도액 = 당해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

업장별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text{세액공제} = \text{신출세액} \times \frac{\text{신용카드등 수입금액} \times 20\%}{\text{총수입금액}}$$

- ※ POS 도입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2000. 1. 1 이후 본부등과 연결하여 사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한 자는 ②만 선택 가능

### 《예시》

예를들어, 사업자 무의 연간매출액이 5억원(직전연도 매출액 3억5천만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직전연도 산출세액 1천만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3억원(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 1억원)이라면

$$2\text{천만원} \times \frac{5\text{천만원}(1\text{억원} \times 50\%)}{5\text{억원}} = 2\text{백만원과}$$

$$2\text{천만원} \times \frac{6\text{천만원}(3\text{억원} \times 20\%)}{5\text{억원}} = 2\text{백4십만원중}$$

큰 금액인 2백4십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 중복적용 배제

- ▶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① 또는 ②를 적용.
- ▶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2001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 실시

### 조사기준일

- ▶ 2001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실시기간

- ▶ 2002년 4월 9일 ~ 4월 27일

### 조사대상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약 310만개)
-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 ▶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약 240만개)

### 법적근거

-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제10137호,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10108호)
-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4월 공포예정)

### 조사방법

-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사항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공통 조사항목
  -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등 10개 항목
-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특성 조사항목
  - ▶ 사업실적,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유흥자산 등 8개 항목

### 당부사항

- ▶ 본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nso.go.kr/~bcensus>